

19학번 력매전반

개인무빙 결과 자료집



강규림 강아란 김단오 김동연 박석현 백늘푸른
이룡수 이기범 이채영 여민지 임소은 최규민

력매전반



강규림

강아란

김단오

김동연

박석현

백늘푸른





이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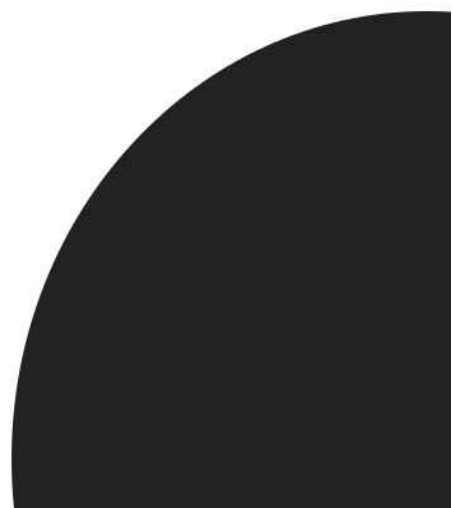
이기범

이채영

여민지

임소은

최규민



강규림
보부아르 (bobuart)



1. 움직이는 학교 현장 소개

< 보부아르 (bobuart) >

위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 13길 1 앤블가옥

인원: 7명

현장 멘토: 앤블가옥 디렉터 유람 (010-7559-1400)

@bobuart_ / @nblgaok / bobuart@naver.com

일상 속 예술 보따리를 풀다. 보부아르는 삶에 꼭 필요한 물건을 전달해주던 보부상들의 마음처럼 신중히 고른 책과 유용한 물건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보부아르 이름 뜻은 보부상의 '보부'와 'art'를 합쳐 '일상 속 예술 보따리를 풀어내다'라는 뜻을 담아 만들어진 이름이다. 주로 판매 용품은 책과 의류, 문구, 가전, 생활용품, 고양이용품, 식물 등 의식주와 관련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책의 힘이 매일 소비하는 일상용품의 하나로 자리 잡기 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2. 현장 선택 과정과 이유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흥행의 중요성은 매우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충족 시켜야 원만하게 유입되기에 영화부터 음악, 출판물까지 대중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형 자본에 연결되어 있는 대형 서점들과 다르게 본인만의 취향을 잘 고려해내고, 꾸며낸 독립서점이라는 곳이 나의 인디 분야에 시야를 보다 더 넓게 트여줄 수 있는 발판과 책이랑 조금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독립서점마다 모두 다른 분위기를 띄고 있다. 다른 대형서점과 다르게 책방지기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분위기가 매력적이었다. 단체 선정을 위해 독립서점을 찾아보다 아늑한 분위기에 고심이 고른 책들과, 잡화를 판매하는 보부아르라는 공간을 알게 되었다. 단순 서적만 다루는 것이 아닌 작은 소품부터 옷, 리빙 용품까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 마음에 들었다. 또한 잡화들과 함께하며 '책이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한 달 동안 보부아르와 함께하며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했다.

이번 무빙이 진로에 한발자국 다가가는 것이 아닌, 진로를 결정하기 전 여러 가지 경험 단계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며 한층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하는 바람으로 단체를 선택하게 되었다. 전에 내가 많이 경험하지 못한 책과 한 달 동안 지내보며 나의 적성을 찾고 알아가는 시간을 거치길 바란다.

3. 움직이는 학교 주제

'취향을 파는 상점에서 나의 색 찾아보기'

4. 활동 내용

1) 기간 및 활동 시간

- 일정: 5월 29일 (월) - 6월 24일 (토)

- 출퇴근 시간: 12:00 - 6:30 (휴게시간 미포함)
- 휴일: 수, 토, 일

2) 일정

5월 29일 월	- 매장 오픈 과정 배우기 - 페이지어 사용, 손님 응대 및 여러 인수인계 - 인스타 게시물 두 개 업로드 (책, 잡화 소개 게시물) - 손님 응대 보조
5월 30일 화	- 오픈 준비 - 인스타 게시물 두 개 업로드 (책, 잡화 소개 게시물) - 주간신문 1호 콘티 구상 및 표지 작업 시작 - 손님 응대
6월 1일 목	- 오픈 준비 - 책 입고 정리 및 포스기 입력 - 소품 입고 정리 및 포스기 입력 - 인스타 두 개 업로드 (책, 잡화 소개 게시물) - 주간신문 그리기 - 손님 응대
6월 2일 금	- 오픈 준비 - 가방 의류 입고 정리 및 페이지어 입력 - 입고 물품 택 붙이기 - 인스타 두 개 업로드 (책, 잡화 소개 게시물) - 손님 응대 - 주간신문 작업
6월 3일 토	- 오픈 준비 - 인스타 두 개 업로드 (책, 잡화 소개 게시물) - 주간신문 1호 마무리 및 인쇄 - 손님 응대
6월 5일 월	- 오픈 준비 - 가방 의류 모자 입고 정리 및 포스기 입력 - 입고 물품 택 붙이기 - 인스타 게시물 두 개 업로드 (책, 잡화 소개 게시물) - 손님 응대 - 앤블마켓 포스터 콘티 구상
6월 6일 화	- 오픈 준비 - 인스타 게시물 두 개 업로드 (책, 잡화 소개 게시물) - 손님 응대 - 주간신문 2호 콘티 및 그리기 - 앤블마켓 포스터 작업 - 고양이 보기
6월 8일 목	- 오픈 준비 - 책 입고 정리 및 페이지어 입력

	- 인스타 게시물 두 개 업로드 (책, 잡화 소개 게시물) - 주간신문 2호 그리기 - 손님 응대
6월 12일 월	- 정상쌤 온 날 - 손님 응대 - 앤블마켓 포스터 작업 - 주간신문 2호 그리기 및 인쇄
6월 14일 수	- 오픈 준비 - 앤블마켓, 셀러 모집 포스터 작업 - 주간신문 2호 수정 - 인스타 게시물 두 개 업로드 (책, 잡화 소개 게시물) - 손님 응대 - 다보잼 포장 외 자잘한 업무
6월 15일 목	- 오픈 준비 - 책 입고 정리 및 페이지어 입력 - 인스타 책 입고 게시물 업로드 (책, 잡화 소개 게시물) - 주간신문 3호 그리기, 뒤표지 콘티 구상 - 인스타 게시물 두 개 업로드
6월 16일 금	- 오픈 준비 - 다보잼 포장 및 자잘한 업무 - 주간신문 3호 포스터 마무리 및 인쇄 - 앤블가옥 크루 단체 사진 촬영
6월 19일 월	- 오픈 준비 - 의류 입고 정리 및 페이지어 입력 - 입고 물품 택 붙이기 - 인스타 게시물 두 개 업로드 (책, 잡화 소개 게시물) - 주간신문 4호 콘티 짜기 - 앤블가옥 7월 달력 제작 및 완성
6월 20일 화	- 오픈 준비 - 주간신문 4호 그리기 및 인쇄 - 인스타 게시물 두 개 업로드 (책, 잡화 소개 게시물) - 앤블마켓 셀러 이름표 작업 - 동전 정리 외 자잘한 업무
6월 22일 목	- 오픈 준비 - 책 입고 정리 및 페이지어 입력 - 입고 물품 택 붙이기 - 보통날 포스터 기획 및 제작, 마무리 후 인쇄 - 앤블마켓 셀러 명찰 제작 및 커팅 - 인스타 게시물 두 개 업로드 - 재고 정리 외 자잘한 업무 - 손님 응대
6월 23일 금	- 간판과 유리창 원거리식당 스티커 제거 및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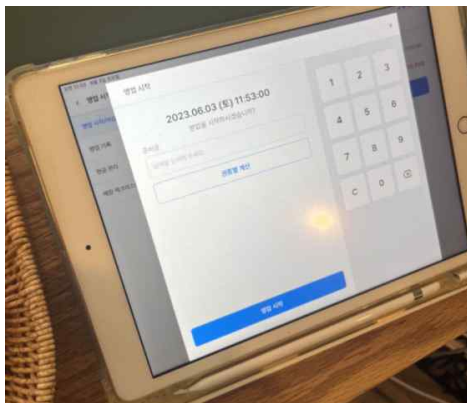
	- 선물 나눠드리기 - 셀러 명찰과 설명글 제작 - 손님 응대 - 인스타 게시물 두 개 업로드
6월 24일 토	- 오픈 준비 - 앤블마켓 탕후루와 중고책 가격표 제작 및 인쇄 - 앤블마켓 자잘한 보조 업무 - 손님 응대 - 주간신문물 1호부터 4호까지 10장씩 인쇄 - 인스타 게시물 두 개 업로드 - 유람님 인터뷰

3) 업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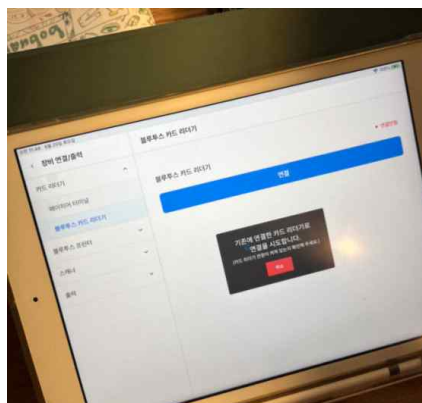
일단 보부아르는 사무직의 형태가 아니라 독립서점으로 개인무빙 내내 카운터만 있는 시간이 많았다. 카운터에서 주간신문부터 여러 잡일을 도맡아 작업해 왔다. 보부아르의 책방 지기 중 한 명으로 들어가 여러 가지 일을 작업했다.

① 오픈 준비

매장 오픈 준비는 비교적 간단하다. 보부아르의 특징이라면 무드등이 많다는 점이다. 오픈 준비 때 매장을 싹 돌며 무드등을 키고, 물건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하자는 없는지, 재고가 떨어지진 않았는지, 손님들이 보고 간 물건을 정리한다. 정리를 하고 들어와서 카운터에 있는 아이패드로페이히어를 열어 영업 시작을 누른 뒤 카드리더기랑 연결한다. 매장 노래 트는 폰으로 스피커 연결해 노래를 듣다. 청소는 비교적 간단하다. 일단 먼지 털이로 책과 잡화들의 먼지를 털어 준다. 먼지를 털며 책의 상태를 확인해 준다. 그 다음으로는 바닥 청소를 한다. 바닥 청소는 매장 안 바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게 앞까지 쓸어준다. 바닥 청소를 하며 가게 앞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쓰레기와 카운터 쓰레기통에 있는 걸 비우면 오픈 준비는 끝이다.



< 페이히어 영업 시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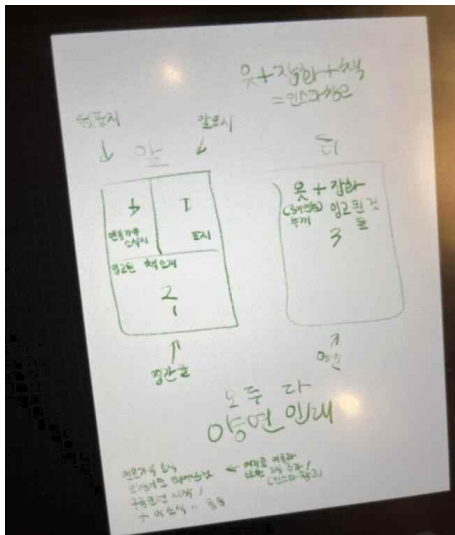


< 페이히어 카드리더기 연결 >

② 주간 신문

개인프로젝트로 진행한 주간 신문이다. 단체에 도움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씀

드리니 유람님이 일주일마다 신문을 내보는 게 좋겠다며 시작하게 된 주간 신문이다. 주간 신문은 A3 사이즈로 양면 신문이다. 일주일동안 지내며 있었던 앤블가옥의 소식들, 보부아르 신상 입고 등을 넣은 신문이다. 앞면은 표지와 새로 입고된 잡화들과 책, 그리고 앤블가옥의 소식을 전하는 방식이다. 뒷면은 포스터 형식으로 홍보부터 일러스트, 달력 등으로 그려냈다. 처음 콘티와 스케치는 작업은 전에 보부아르에서 냈던 주간신문 이야기를 바탕으로 콘티 작업을 시작했다.



< 주간신문 1호 콘티 작업 >

< 주간신문 표지 작업 >



< 주간신문 1호 앞면 >

< 주간신문 1호 뒷면 >

주간 신문 1호는 첫 결과물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이 묻어난 작품이다 아직 틀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 1호는 다음 주간 신문들과는 다르게 뒷면은 신상 입고 알림으로 채워져 있다. 1호와 2, 3, 4호의 다른 점이란 웬만한 건 다 그림으로 그려냈다. 일기 같은 느낌이 묻어있지만 개인적으로 예쁘게 그려지지 않아서 2, 3, 4호들은 그림 반, 타이핑 반으로 풀어냈

The collage features a variety of items: stationery like notebooks, pens, and a 'bobaart' brand stationery set; home decor like a red and white striped awning, a potted plant, and a small table; food items like a chocolate cake, a bowl of fruit, and a bowl of ramen; and other items like a small table, a small table, and a small table. A large banner at the bottom reads 'The week new product'.

2023년 6월 24일 토요일
pm 12시 ~ 6시
2층 연방 공간 [방안]
사탕이 담긴 종이컵 신작을 드려
가서 연방 [방안] 사탕을 모으고
신작을 드려 30분까지 맛을 보실수 있습니다.
신작 콘서트 신작 @shigook DM

< 주간신문 2호 뒷면 >

- 10 -



< 주간신문 3호 앞면 >



< 주간신문 3호 뒷면 >

주간신문 3호는 앞표지를 흑백 연출하여 흔히 아는 신문 같은 느낌을 더했다. 입고된 물품들을 누끼로 따서 작업하고, 앤블 소식 칸에는 빈칸 모임 알림과 원거리식당 시즌 4 보통날 오픈 소식을 넣었다. 뒷면은 포스터 형식으로 6월 24일에 열리는 앤블마켓 홍보 일러스트를 그려 넣었다. 앤블가옥 뒷마당에 사는 노을이 일러스트와 돛자리 위 셀러들의 품목을 그렸다. 덥고 맑은 하늘 표현을 위해 구름과 연한 하늘을 노출했으며 노을이 옆에 작은 나비 그림을 그려 소소한 일러스트임을 연출했다.



< 주간신문 4호 앞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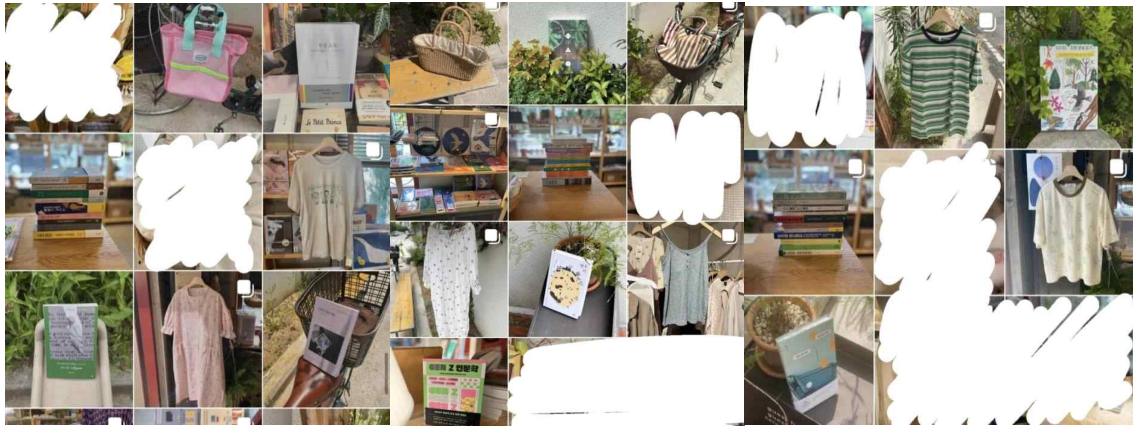


< 주간신문 4호 뒷면 >

주간신문 4호는 마지막 주간신문으로 열심히 작업하였다. 표지는 파란색으로 시원한 여름 느낌을 연출하였다. 입고된 물품은 누끼로 따서 작업하였고 애플 소식 칸에는 애플마켓이 열린다는 것과 원거리식당 시즌 4 '보통날'이 6월 24일에 오픈한다는 소식과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간신문이라는 것과 그동안 하면서의 소감을 짧게 적었다. 뒷면을 7월 달력으로 주간신문을 한 번 보고 버리는 게 아닌 나름 활용도 있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달력을 직접 제작해보았다. 6월 달력을 제작하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어 앞으로 다가올 7월 달력을 제작했다. 달력 안에는 애플가옥 관련해서 알리를 적어 마케팅 효과를 연출했다.

③ 인스타 게시물 업로드

이 업무는 무빙 내내 하루 이틀 제외하고 꼬박꼬박한 업무이다. 처음 무빙에 가서 할 일들을 계획한 것들 중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업무였다. 매일 두 번 책과 잡화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한 뒤 글을 덧붙여 보부아르 인스타에 업로드 하는 일이다. 책 코멘터리 게시물은 실제 판매되는 서적이니 도서 판매 사이트를 참고해 글을 올렸다. 잡화는 가방부터 의류, 양말, 생활용품 등 사진을 찍어 잡화를 소개하는 글을 덧붙여서 올렸다. 의류 설명은 보통 컬러와 기장, 사이즈, 디자인 등 설명글을 올렸다.



< 보부아르 인스타 게시물 > < 보부아르 인스타 게시물 > < 보부아르 인스타 게시물 >
위 그림들은 내가 업로드한 인스타 게시물들이다. 잡화와 책들의 설명글을 적어 올리는 게시물이다. 모두 문서에 넣기엔 많아서 그 중 몇 개만 문서에 넣겠다.



< 인스타 게시물 '집색' > < 인스타 게시물 책 소개 > < 책 입고 게시물 >

그 외의 인스타 게시물은 책이 입고 됐을 때 업로드 한다. 새롭게 입고된 책들을 카운터에 정갈하게 놓은 뒤에 사진을 찍어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는 게시물이다.

④ 포스터 제작

앤블가옥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에 앤블마켓을 연다. 셀러는 직접 모집해 열기 때문에 셀러 모집 미달이 되면 앤블마켓은 열지 않는다. 셀러 홍보를 위해서 셀러를 모집하는 포스터와, 기본 앤블가옥 포스터 두 가지를 제작했다. 앤블마켓 포스터 안 일러스트는 직접 그려 제작하였다.

개인적으로는 포스터가 앤블마켓 전까지 작업할 수 있는 여유가 됐으면 조금 더 괜찮은 퀄리티 포스터가 나왔을 텐데 주간 신문 2호 뒷면에 포스터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 시간적 여유

가 부족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포스터가 나오게 됐다.

원거리식당 시즌 4 ‘보통날’ 포스터 제작해달라는 업무를 받아 제작하였다. 옛날 느낌 나는 빈티지스러운 포스터를 컨셉으로 잡아 작업했다. 키슈 안에 들어가는 여러 재료들을 사진으로 깔고 옆에 재료들의 영어 설명을 덧붙였다. 오른쪽 위에는 보통날의 이름과 영업시간, 휴무일 등 중요한 내용을 적어 글씨를 크게 키웠고 아래편에는 키슈 모양을 넣어 작업하였다.

앤블마켓 포스터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이었다. 보통날 포스터는 하루 안에 작업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괜찮게 나와 칭찬 받기도 했다.



< 앤블마켓 셀러 모집 포스터 >

< 보통날 포스터 >

⑤ 입고 정리

책 입고 정리란 새로 들어온 택배를 뜯고, 페이지어에 입력하고, 사진 찍어 게시물 업로드를 하고, 책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서점에서 입고란 굉장히 잦은 일이다. 일주일에 두 번꼴로 입고가 되곤 한다.

책을 입고 받으면 재입고와 신간 체크를 한 뒤 신간은 페이지어에 새롭게 책 제목을 적어 입력한다. 하나하나 입력한 뒤에 신간들과 재입고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홍보용 게시물을 올린다. 올린 뒤에 책 판매를 위해 여러 군데에 책을 배치해 놓는다.

잡화 입고 정리는 책보단 조금 더 손이 많이 간다. 일단 입고된 잡화들을 페이지어에 전부 입력한 뒤에 보부아르 라벨을 새로 붙인다. 라벨은 가격과 잡화 이름을 적어 라벨기로 택을 붙이는 방식이다. 잡화 부분이 손상되지 않게 라벨을 붙이는 게 은근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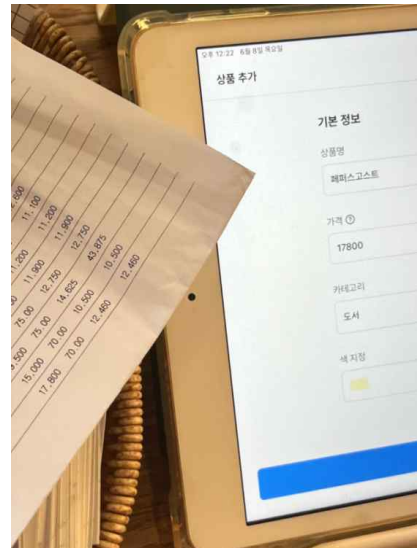
< 입고된 잡화들 >



< 의류 태그 붙이기 >



< 잡화 정리 및 태그 붙이기 >



< 페이지어 입고책 입력>

⑥ 손님 응대

보부아르의 결제 방법은 바코드 형식이 아니다. 보통 책은 책 이름을 검색하여 결제를 하며, 의류는 태그에 붙여진 이름으로 결제를 도와드린다. 그렇지만 태그와 제목이 적히지 않은 잡동사니 잡화들은 전부 외워둬야 한다는 점이 있다. 결제를 도와드린 후 구매하신 물품은 포장해서 손님에게 전달한다. 책을 구매 시 뽑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포장과 동시에 뽑기 유도를 한 뒤 뽑힌 등수를 말씀해 달라고 한다. 뽑힌 등수대로 준비된 상품을 넣어드리고 책 갈피, 애플가옥 할인권과 구매하신 물품을 전달하면 책 구매 시 손님 응대 매뉴얼은 마무리다. 책 구매하신 게 아니라면 포장만 도와드리고 할인권과 함께 물품을 전달하는 매뉴얼이다. 이 외에 디피만 되어있고 새 상품을 꺼내드려야 하는 것들은 계산대에 가지고 오시면 새로 꺼내드린다는 안내와 함께 결제 도와드렸다.



< 카운터에 있는 나 >

⑦ 여러 잡일

보부아르에 인턴으로 있으면서 큰일들 말고 자잘한 업무들을 맡을 때도 많았다. 6월 24일 날 오픈하는 원거리식당이 있어 간판 스티커를 전부 다 떼고 새로 붙이는 업무를 도왔다. 애플가옥 들어서면 있는 처음 간판에 원거리식당 시즌 3 스티커를 칼로 제거해 떼 뒤엔 소독을 해 준다. 그 다음 새로운 스티커를 가져와 붙이기만 하면 끝이다. 나열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칼로 하나하나 제거해야 돼서 번거로우며 스티커를 부착할 때 수평이 맞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붙여야 한다는 점이 있다.

책 구매 시 뽑기 하면 드리는 상품인 잼을 여러 개 포장해 두는 업무이다. 6등이라 많이 뽑혀서 미리 미리 작업해 줘야 한다. 잼은 작은 포장지에 두 개씩 넣고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 한 번 작업할 때 네 다섯 개는 해 줘야 마음이 편안하다.

뽑기 할 때 동전을 하나 드려서 하게 해드리는데, 뽑기 운영하며 동전을 넣기만 하고 한 번도 뽑지 않는다는 말에 직접 분해해서 뺀 뒤 동전 정리를 했다. 꺼내기 쉽게 차곡차곡 정리하였다.

애플마켓 때 애플가옥에서 하는 탕후루 사업과 중고책, 김밥과 샌드위치 등 가격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에 급히 작업한 프린트물이다. 가격표와 덧붙여 설명하는 글이 들어간 가격표이다. 이 외에도 주차 안내 프린트물, 애플마켓 때 필요한 셀러 설명 프린트물 등 여러 일을 도맡아왔다.

애플마켓 때 판매하시러 오는 셀러 분들의 명찰표를 제작하였다. 애플마켓 포스터를 중간에 삽입하고, 그 위에는 셀러 이름과 아래는 셀러의 소개를 간단히 적은 명찰이다. 제작 후 프린트한 뒤에 잘라서 명찰표 안에 넣어서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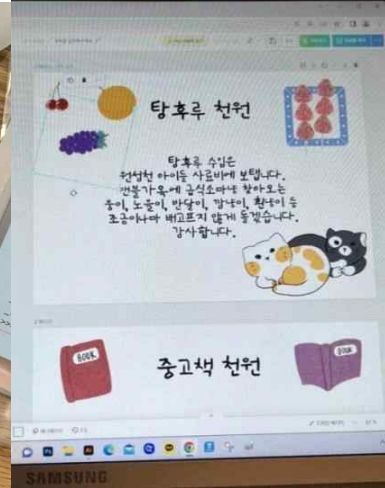
보부아르는 재고를 적정량 디피해둔다. 손님이 물건을 사가시면 새롭게 다시 디피해 줘야 한다. 의외로 많이 나가는 고양이 사료와, 메쉬백, 책, 의류 등 여러 것들이 나가면 새로 재고를 채워넣는 업무도 했다.



< 사은품 다보잼 포장 >



< 동전 정리 >



< 앤블마켓 가격표 작업 >



< 셀러 명찰 작업 >



< 셀러 명찰 최종 >



< 셀러 소개 포스터 >

위 그림들은 여러 가지 잡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는 그림이다. 다보잼 포장과 동전 정리, 앤블마켓 가격표 작업과 셀러 명찰 작업, 커팅 후 명찰에 넣기, 셀러 소개 포스터 등이 있다.

4) 현장 멘토 유람님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유람: 앤블가옥 전제를 운영 기획을 맡고 있는 디렉터 유람입니다.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유람: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어릴 때부터 책을 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랑 성인이 되어서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책을 달고 살았어. 아마도 독립책방이 생긴 게 한 구십 년대 초반에서 중후반쯤 생기면서 독립서점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서점이 유행하며 책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지. 그런 책방이 생기면서 대형서점이 아닌 독립서점들을 들리면서 더 책이 좋아졌던

것 같아. 독립서점은 책방마다 큐레이션이 완전히 다르잖아. 독립서점들이 그런 매력들이 있다고 생각해. 어디 가면 막 10권 사들고 나오는 반면 또 어디 가면 나랑 맞는 책이 없는 거지. 그럼 한 권도 못 가져올 때도 있어. 대령 서점에 베스트셀러들이 놓이는 느낌이 아니라 책방 지기에 따라 책이 달라지고 공간에서 나는 냄새와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게 너무 좋아서 사업을 한다면 꼭 책 넣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

책방을 하기 전에도, 책방을 하면서도 되게 많은 책들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읽었던 책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책이 있을까요?

유람: 일단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건 임경선 작가의 ‘교토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 부아르에도 배치 되어 있는 책이야. 그 책을 보고 일단은 교토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 그래서 교토를 가봤는데 나하고 이 도시가 맞다는 걸 그때 알았던 거지. 일본 중에서도 교토, 그리고 교토 안 책방에 대한 감성도 그때 더 좋아지면서 작은 골목부터 작은 책방, 그리고 동네에 관계된 책들을 수집하고 읽게 되었어. 그 다음에 본 책이 모종란 ‘교수의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라는 책. 그 책을 보면서 “아 내 생각을 이렇게 똑똑 한 분이 유연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있구나. 나는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던 걸 교수님은 이렇게 정리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감동을 받아서 교수님 쫓아다니고, 이렇게 건물도 짓게 되고 더 확실하게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

처음 앤블가옥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유람: 앞에 말했던 거와 같아. 일단은 모종란 교수님의 책을 읽기 전에도 내가 계속 그런 쪽 관련된 것만 찾아다니고 있더라고. 항상 힙한 곳들이랄까? 예를 들어 성수동 뒷골목, 홍대 뒷골목 메이저 골목 같은 곳들을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또 유현준 교수님 책을 또 보게 돼. 유현준 교수님이 주장하는 건 100m 내에 20개의 상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상가의 출입구가 계속 해서 보여야 한다. 그 다음에 모종란 교수님은 힙한 동네가 되려면 책방과 숙박, 카페 빵집, 공방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처음에는 공간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려고 해서 원성천 쪽에 세기빌라에도 책방을 먼저 시작했어. 근데 여기가 지금 원래는 다른 곳하고 똑같이 2층 주택이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작업하려 했더니 78년도 건물이라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지. 좀 있으면 막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거의 인테리어만 2억 이상 들어가는 거였거든. 그래서 아 이걸 도저히 안 되겠다. 신축을 하자. 결정을 하고 5층 건물까지 올리게 되었어. 원래는 수평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수직으로 다 올라가 버린 거지. 기왕 수직으로 올라간 김에 카페하고 책방, 공방, 숙박업소 다 넣어야겠다고 해서 이 모델이 된 거지. 일종의 상징적인 모델로 지어 놓은 거고 이제 나머지 공간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또 이 공간에 나는 책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방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원성천 일대의 조금 더 작업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것 같은 순간이 있나요?

유람: 97년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함께 지내던 분들인데 그 전날 밤 같이 저녁을 먹고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화재로 이분들이 세 분 다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불과 네다섯 시간 만에. 그때 아주 절실하게 와 닿은 거야. 우리가 보통 다음날 만나서 인사를 하잖아. 안녕하세요가 누구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를 그때 절실하게 깨달은 거야. 내일이 누구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지. 그래서 그냥 나는 오늘 내가 눈 감을 때까지, 잠을 잘 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하게 됐어. 그냥 하루를 마무리 할 때까지 후회 없는 하루가 되려고 노력하는 편이야.

앞으로 앤블가옥의 방향성, 목표가 있나요?

유람: 지금 방향이나 해나가는 걸이나 흐름은 얼추 다 맞춰줘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이런 모델을 지속 가능성 있게 하는 거 그게 가장 목표인 거지. 그야말로 지속 가능성은 사실 매출하고도 연관된 거니까. 당장 반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운영을 하고 수익을 우리하고 쉼어하는 형태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수익을 주고도 본인이 인건비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지속 가능성이니까. 모든 매장들이 다 안전하게 적정 매출을 유지하는 거. 완전히 조금 부족한 상태라 그게 좀 안정적으로 돼야 그래야 더 다른 사업체에 대장님과 내가 가더라도 안심이 되는 거지.

앤블가옥이랑 보부아르가 어떤 공간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나요?

유람: 음... 정체성이 문제인데 나는 사실 책만 팔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보부아르에 올 때 입구에서 여기 뭐야 그러면서 들어오잖아. “책방이야?”라고 들어온 사람보다는 “여기 뭐야 문구점이야?” “옷매정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카페야?” 하면서 들어오기까지 하고. 정체성이 입구에서 딱 나타나지 않아. 마케팅 관련으로도 일부러 그런 것도 있지만... 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방이구나’, ‘내가 책방을 왔다 갔구나’, ‘책방을 가서 이런 것들을 보고 구매를 했구나’라고 기억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싶어. 최종적으로. 아 ‘거기에 가면 뭐가 많아’ 아니라 ‘책방이야’라고. 근데 나는 책 말고도 이렇게 잡다한 걸 넣은 이유가 뭐냐면 슈퍼마켓에 갈 때 일상 용품에 하나 늘 우리가 소모하는, 그런 것들? 안 살 수 없어. 안 살 수 없이 살잖아. 뭐가 됐든 꼭 사야 되는 필수 품목, 내가 소모하는 필수 품목에 꼭 ‘책 한 권’이 항상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나 이제 책 다 먹었는데 또 먹어요” 이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건 최종적으로는 건 슈퍼마켓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먹거리도 야채도 있고 막 그러고 싶어.

해외여행을 가면 일반 슈퍼마켓 들어갔을 때 입구에 식물하고 책이 있어. 그들은 책이 이미 일상 용품인 거지. 책을 서점에만 가야 사는 게 아니라 슈퍼마켓 가면 살 수 있는 거야. 난 책방이 어떤 커뮤니티의 중심이 돼서 이제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중심점이 되었으면 해. 유명한 말이겠지만 김영하 작가님이 늘 얘기하시는 말 중에 “책방이 책방은 동네의 등대다.”, “그래서 어딜 가나 그 등대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처럼 나도 책방이 동네 곳곳에 등대처럼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지.

사회를 맞이하기 전인 저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해 주세요.

유람: 일단은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는데... 그 어른들이 여러 경험을 많이 쌓아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안 해본 건 다 해봐라. 그런 식으로. 근데 나는 그것보다 덕후 마냥 내가 좋아하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좋아하는 쪽 관해서도 다양한 게 또 있거든.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낸 뒤 계속 그 방향으로 가서 거기서 경험을 해나가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식당 일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막 이런 식의 경험 말고. 물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경험을 많이 쌓을 순 있겠지. 잡초처럼 강인해질 순 있어.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일 수 있지만 내가 프로페셔널 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싶은 거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했을 때 그러니까 좋았던 걸 계속 기억해내고 이제 그쪽 관련된 경험들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 같아. 책을 보든 일을 해보든 뭘 하는 거지. 그 일을 한다는 거는 그쪽 관련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거든. 그 사람들한테 보고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을 계속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뭔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대답하거나 할 때 그냥 난 다 좋아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좋고 싫음이 분명한 게 난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좀 세 보이거나 못나 보일 수 있지만 나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 난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싫은 건 싫은 거지. 상대방의 배려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지. 그냥 따라가는 거. ‘난 별로 그거 먹고 싶지 않은데 그냥 대다수 사람들이 좋다니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내가 먹기 싫으면 싫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편이야. 아무리 높은 회장님이 와도 자기의사 전달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인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싸가지 없어 보여도 그렇게 보여도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좋게 내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내가 좋으면 그만인 사람이거든.’ 근데 오히려 이런 점들을 좋아해준 사람이 근데 의외로 많아. 지나치게 남을 신경 쓰고 주변을 살피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인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렇게 그런 말들을 해. ‘내가 그게 좋아서 한 줄 아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뒷북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말을 안 하려면 처음부터 내 주장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성인이 되면 가족에서부터 독립해 본인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 이정도 있는 것 같아.

5. 움직이는 학교 소감과 평가

1) 단체 평가

단체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 앤블가옥은 사무직의 일이 아닌 가게 일과 앤블가옥 전체 일을 하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나는 보통 보부아르 카운터 안에서 포스터 작업과 주간신문 작업 등 여러 일을 카운터 안에서 작업해왔다. 회사의 느낌이 아닌 크루로 뭉쳐 각자 이름을 부를 땐 별칭을 쓴다. 나는 그 크루 안에서 ‘구름’이라는 별칭으로 함께했다. 앤블가옥은 크루 혜택이 좋았다. 매일 카페 음료 한 잔이 무료이며, 가끔 앨리님이 만드신 샌드위치나 김밥을 크루분들께 모두 나눠주시고 하고 보통날 키슈 맛 평가를 위해 크루 모두가 함께 먹는 것 등 한 달만 있다가 갈 사람이 아닌 한 달이나 있다가 갈 사람처럼 대해 줬다. 가끔씩 카페 디저트 박스를 무턱대고 주실 때도 있었다. 섬세하게 챙겨주시고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와 닿은 순간이었다. 앤블가옥의 의미를 본받아 정말 하고 싶은 것 모두 다 하고 간다. 첫 번째로 단체에게 도움되는 개인프로젝트이다. 사실 도움되는 거란 인스타 게시물밖에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멘토분이 제안해주신 주간신문을 주마다 내며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손님을 응대하며 낮가리는 것들이 점점 괜찮아지며, 단순 현장 멘토뿐만이 아닌 인생의 멘토같은 분을 만나 나의 진로를 꿈에 그리는 일이 많아졌다. 멘토분이란 얘기하다 보면 나의 꿈이 단순 헛된 꿈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며 이루어질 것 같았다. 덕분에 나의 진로 방향도 조금 알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으로써 하나하나 부모의 마음으로 알려 주셨던 것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현장 멘토 유람님을 인터뷰 하면서 보부아르에 대해 더욱 깊게 알게 되었다. 인터뷰는 마지막에 진행했지만 더 일찍할 걸 후회될 정도였다. 책과 잡화를 왜 같이 팔까 항상 의문이었는데 책이 일상품이 되어 어디에나 자리잡고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외국에서는 작은 슈퍼마켓에서도 앞에 식무로가 함께 책이 팔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부여를 하고 작은 것마저 사랑을 품는 이 앤블가옥이 너무 포근하고 따뜻한 공간이라 느꼈다.

2) 자기 평가

한 달 동안 보부아르에서 지내면서 정말 많은 성장을 했다고 느낀다. 무빙 가기 전에는 아무래도 독립서점이다 보니까 하는 일이 한정적이며, 무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알차게 한 달을 채워 보낸 걸 보니 뿌듯할 정도였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해 온 듯하다. 독립서점이라 할 일이 몇 없을 거라 예상했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많았다. 정말 크루 중 한 명이 되어서 하는 것만 같았다. 일단은 4주 동안 주간신문을 4호까지 내며 나만의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밍보이지 않으려고 정말 하루마다 최선을 다해 성과를 냈다. 지난 학교에서 해왔던 포스터 만들기나 서평 쓰기 등 해오던 것들을 하니 수월했고 할 만했던 것

같다. 처음에 손님 응대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목소리도 잘 안 나왔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손님 응대하는 비결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었다. 솔직히 개인무빙을 하며 진로의 대한 고민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 복잡할 거라 예상했지만 아니었다. 멘토님이 나에게 계속 진로를 물어보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봐야 된다고 하고 나의 미래를 응원해 줬다. 멘토님 덕분에 그림을 더욱 애정이 생기고 끝까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 매일하는 청소와 여러 잡일, 눈치밥 먹으며 지내오니 다른 고등학생들이랑은 다른 것 같다는 얘기도 들었다. 내심 기뻐했다. 개인적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 내에 많은 성장과 나의 고민이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만 이번에 느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영향을 받고 본받고 싶단 생각을 하였다. 덕분에 나의 진로 고민을 덜하게 되었다. 앞으로 3개월이나 하는 인턴십도 남았지만, 이번 개인무빙은 잊지 못할 듯하다. 좋은 인연으로 꼭 봤으면 하는 곳이었다.

4) 총 소감

총 소감은 만족스러운 한 달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사회의 첫 걸음으로써 천천히 다 배웠다고 느낀다. 주간신문을 하며 그림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손님 응대와 앤블가옥 속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니 정말 내가 많이 컸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는 대안학교 학생이 아닌 18살 강규림이라는 이름으로 보부아르에서 지낸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책을 읽고 나의 이름을 걸고 소감을 남겨 올리는 업무나 새로운 잡화를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 나의 색을 찾아가는 시간 모두 만족스러운 나날들이었다. 이 개인무빙을 시작하기 전, 이번 한 달을 다녀오고 나서 나의 성장을 기대하고, 책이랑 친해질 것 같았지만 성장은 당연히 하였고 책이랑은 가까워지지 않았다. 대신 책 말고 그림과 가까워진 듯하다. 그림에 대한 나의 열정이 확실하고 뚜렷하지 않아 이번 무빙에 목표로 잡고 가진 않았다. 그렇지만 보부아르에서 그림으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책보단 그림이 좋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 지내면서 이 시간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듯하다. 6학년 때 인턴십으로 갔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웬지 개인무빙만으로 끝내긴 아쉽다. 생각보다 단체와 너무 잘 맞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서 마음에 들고 행복했다. 이 시간이 나의 앞날에 발판이 되었길 하는 바람이다. 개인무빙에서 했던 단순하고 힘든 일들만 계속 하며 한 달을 보냈지만, 그 힘든 일들이 의미 없고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라 힘들었지만 그 안에 얻어 갈만한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멘토 분이 나에게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주셔서 독립서점 자체에 일들을 많이 했다가보다 앤블가옥, 그리고 개인프로젝트에 힘을 쏟아 작업했다. 후회 없고 만족스러운 한 달이었다.

6. 결산

1) 지출 내역

구분	내역	비용
전체비용	간식비 및 생활비	130,550
	교통비	43,700
합계		174,250

강아란
이루리북스 (yrurybooks)



1. 움직이는 학교 현장소개

<이루리북스 (yrurybooks)>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현장 멘토: 모수진 디자이너 (010-0509-6746)

fredericbooks@gmail.com / www.fredric.co.kr / 070-7715-1027

공덕역과 마포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루리북스는 대표인 그림책 작가와 번역가가 만나 차린 독립출판사 북극곰과 함께하고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림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방문하는 서점이다. 서점 및 카페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부가 운영하는 공간이라 각자 다른 기업이지만 서로 공간을 공유하며 지내고 있다. 실제로 이루리북스의 대표님은 북극곰의 편집장을 겸하고 계시고, 서점 내에는 다수가 북극곰의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루리북스는 서점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곳이다. 서점 내에 대관이 가능한 공간이 있어,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와 워크샵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도서 소개를 위한 sns 소통(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함께 운영되고 있는 북극곰 출판사는 환경 상생, 치유라는 주제로 어린이 도서와 교양도서를 출간하고 있다. 국내외 유수의 국제 도서전 참가를 통해 신인작가 발굴에 힘쓰는 동시에 국내 도서를 해외에 소개하는 일에 주력하는 단체이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를 WWF(세계자연기금)에 기부하고 있다.

2. 현장 선택과정과 이유

나는 대안학교에 재학하며 늘 불안감을 느꼈던 나의 진로와 학력에 관한 고민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하고 싶었다. 따라서 평소 생각하던 진로에 맞추어 여러 단체를 찾아보았다. 처음 생각하던 주제는 '비누'였다. 비누에 관련된 단체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있었다. 친환경 비누공방, 제로웨이스트 샵, 리필 스테이션 등등.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그리던 작업을 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비누라는 주제로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연관을 짓다 보니 내가 원하는 형태의 공간(비누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과 친환경적인 소품샵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생겨났다. 그래서 나의 관심사와 가치를 함께 엮을 수 있는 매개체를 다시 찾았고, 그렇게 그림책으로 주제가 굳혀지게 되었다.

그림책을 주제 삼아 찾아본 단체는 대부분 독립서점의 형태였다. 그림책과 관련된 곳은 서점이나 출판사가 가장 대표적이며, 다른 것으로는 교육기관, 개인 작업실 등이 있다. 그중 내가 택한 것은 단연코 독립서점이었다. 다른 곳과의 차별 점으로 가장 다양한 인물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끌렸다. 서점에서는 그림책 작가, 또는 작가 지망생, 출판사 관계자, 다른 서점 일원 등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특히나 이루리북스는 출판을 겸하고 있기에 나에겐 책 제작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어질 수 있는 셈이었다. 이런 이점 때문에 이루리북스를 선정하게 되었다.

3. 움직이는 학교 목표와 계획

1) 움직이는 학교를 통해 얻고 싶은 것

앞선 현장 선택 이유의 첫 문단과 동일하게 나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었다. 꼭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닌, 해당 분야의 현장에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움직이는 학교에서의 나의 목표는 그림책이라는 주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알아보고, 진로에 대한 나의 고민에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다.

4. 진행과정 및 활동내용

1) 기간 및 활동 시간

일정: 6/5(월) ~ 6/23(금)

출퇴근 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일: 토, 일, 국경일

2) 일정

월 (6/5)	* 서울국제도서전 홍보준비 카드뉴스와 포스터 7종 제작 중 * 일정 및 업무에 필요한 자료 전달받기 * 카페 업무에 필요한 보건증 검사(편집장님이 비용부담 해주심) * 직원분들 5명과 함께 점심식사
화 (6/6)	현충일 (국경일) 휴무
수 (6/7)	* 신간도서 등록 * 서국도 작가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시안제작
목 (6/8)	* 오전- 이현지 작가님의 그림책 리딩 모임 참관 * 오후- 서국도 때 쓰일 약 500개의 엽서와 떡메모지 포장
금 (6/9)	* 오전- 작가 프로그램 포스터 마무리 * 오후- 스티커 자르기, 소품 사진촬영
월 (6/12)	* 비품 구매하러 다이소 다녀오기 * 서울국제도서전 부스 포토존에서 사용할 소품 제작 * 타 독립서점 (가가77page) 탐방

화 (6/13)	* 서울국제도서전 전날! 부스 설치 및 도서정리
수 (6/14)	* 코엑스 서울국제도서전 참여: 도서 판매 및 부스 지킴이 * 작가프로그램 참여 * 이승범 작가님 인터뷰
목 (6/15)	* 코엑스 서울국제도서전 참여: 도서 판매 및 부스 지킴이 * 작가프로그램 참여
금 (6/16)	* 주간신문에 들어갈 지면광고 시안 3개 제작
월 (6/19)	* 주간신문에 들어갈 지면광고 시안 최종 컨펌 * 서국도 행사 끝난 기념 회식!
화 (6/20)	* 신간도서 카드뉴스 시안 제작
수 (6/21)	* 신간도서 카드뉴스 제작 후 온라인 서점 3사에 업로드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목 (6/22)	* 다크초콜릿 라떼 언어먹기 ㅎㅎ * 예술의 전당 전시-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 56th 관람 후 회식....이었지만 (컨디션 난조로 불참)
금 (6/23)	* 직원 분들 드릴 선물 사들고 출근! * 다 같이 이별기념 회식 * 편지와 선물 교환

3) 업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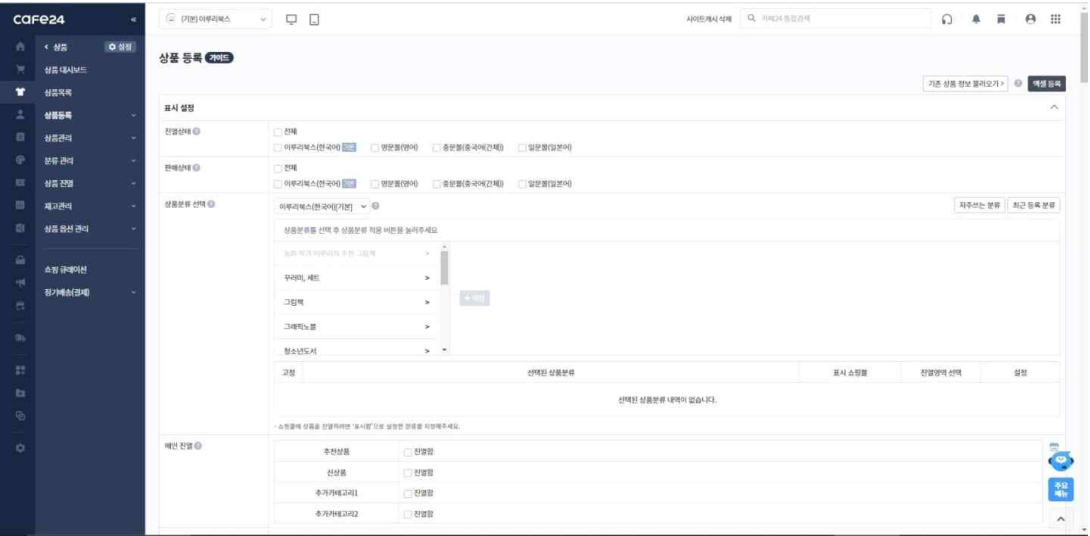
나는 서점에 움직이는 학교 현장지원을 했지만, 출판사와 동일한 공간같이 운영되고 있기에 따로 소속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유동적이게 업무를 진행했다. 오히려 작업의 대부분은 출판 업무(디자인)를 주로 맡았다. 이루리북스와 북극곰은 가로막이 없이 문턱 하나를 두고 바로 옆 공간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두 공간 모두 책상을 하나 더 둘 만한 자리가 있지 않아 나의 자리가 따로 있지는 않았다. 대신 단체 특성상 출근을 매일 하는 구조가 아닌 자율출근제의 분위기가 강해 매일 연차를 쓰시는 분이 한 명씩 계셔서 후반부를 제외하고는 주로 빈자리에 앉아 생활했다.

업무의 내용은 주로 디자인이었다. 신간 도서에 대한 홍보, 작가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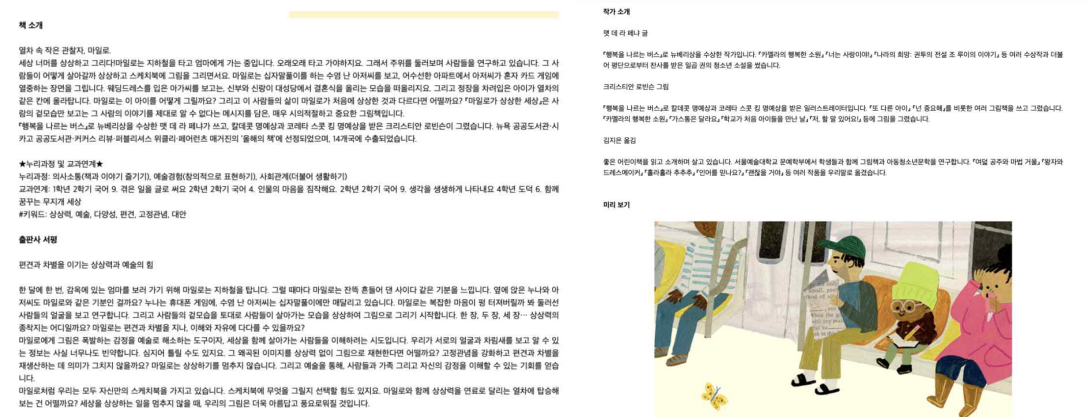
간신문에 들어갈 지면 광고 제작, SNS 계정에 업로드할 카드뉴스 등등. 서울국제도서전 준비 기간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업무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따로 서점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을 응대하거나, 오픈/마감을 맡지는 않았다. 사실 움직이는 학교 시작 전에는 위의 내용이 주를 이룰 거라고 예상했으나 오히려 이런 종류의 업무가 서점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높아야 하고, 작가에 관심이 있다는 나를 단체에서 배려해 주신 덕에 좀 더 그림책 자체에 가까운 일을 할 수 있었다.

(1) 신간도서 상품 등록

서점에 신간이 들어오면 홈페이지에 상품 등록을 한다. 먼저 cafe 24 페이지에서 관리자 로그인 후 해당 도서의 정보(ISBN)를 입력한다. 책 제목을 적고 대괄호 안에 자료와 같이 출판사명을 적어준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보일 상품설명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 에디봇을 이용해 책 소개, 작가 소개, 줄거리, 미리보기를 첨부한다. 메인 화면에서 보일 책 앞표지를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해 정해진 사이즈에 맞춰 잘라내고 그림자를 입혀 넣는다. 마지막으로 정가와 소비자가, 할인율까지 입력해준 뒤 등록한다.



< 그림 1- cafe 24 도서정보 입력 >



< 그림 2,3- 상품등록 후 홈페이지 >

(2) 서울국제도서전¹⁾

① 소품제작

팀장님, 멘토님과 함께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북극곰 부스 속 포토존에서 쓰일 구름모형을 제작했다. 북극곰의 도서 중 하나로 베스트셀러인 『구름을 키우는 방법』에 등장하는 구름을 이용해 포토존을 만들기 위한 소품이었다. 다 쓴 페트병을 재활용하려 세척하고 글루건을 이용해 뼈대를 먼저 만들어줬다. 글루건만으로는 결속력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 페트병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준 뒤 속에 우레탄줄을 끼워 단단히 묶어주었다. 그 위에 솜을 하나하나 덩어리처럼 보이게 하기위해 뭉쳐주고 만들어준 뼈대 위에 스프레이 접착제로 구름의 굴곡을 신경 쓰며 부착했다.



그림 4 페트병 몸통 이어 붙이기



그림 5 솜 뭉치기



그림 6 솜 붙이기



그림 7 완성한 구름의 모습

1) 서울국제도서전이란 전국도서전시회로 시작했던 1954년부터 현재까지 70년 가까이 출판사, 저자, 독자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책 축제. 올해 도서전의 주제는 <비인간, 인간을 넘어 인간으로> 이었다.

- 기간: 2023.06.14. ~ 06.18 / - 시간: 10:00 ~ 19:00 / - 장소: 코엑스 A, B1홀

② 굿즈 포장

서울국제도서전 행사에서 여러 이벤트를 진행했다. 도서를 구매하면 증정품이 따라오는 이벤트였다. 이 때 증정할 엽서와 떡메모지를 각각 대략 500개 이상 포장했다.

③ 부스 운영

국제도서전에서 부스 관리자를 맡은 각 출판사 직원들은 주로 참여자에게 책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 책을 풀이해준다. 나는 북극곰 책에 대해 막힘없는 정도의 설명이 가능하지 않기에 책을 풀이하는 역할대신 북극곰 부스를 방문해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면 증정하는 책갈피에 대해 설명하거나, 결제를 담당했다.

부스에서는 도서 판매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작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했는데, 나는 부스지기를 14/15일 이틀 간 지내서 작가님도 만나 뵈 수 있었다. 14일에 이승범 작가님을 만나 배서 인터뷰를 요청드렸고, 흔쾌히 수락해주셨다.



< 그림 8, 9 부스와 포토존 >

(3) 디자인

① 주간신문 지면광고

어린이와 청소년 독서운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자 사회적기업인 '행복한 아침독서'에 들어갈 지면광고를 제작했다. 지면광고는 주로 이루리북스의 신간을 홍보하는 내용이었고, 내가 맡은 도서는 <임금님 엄지척>, <블러와 고프>, <치치 포포>이다.

디자인 업무를 할 때는 멘토님이 전달해주신 참고자료 (이미지 파일, 지문 등)를 참고해서 작업했다. 지면광고의 경우에는 시안 3개를 제작했다. 먼저 236mm*96mm로 사이즈를 맞추고, 강조할 내용을 신경 쓰며 이미지와 텍스트를 배치한다. 책 표지의 위치를 먼저 선정한 뒤 배경과 약간의 구분이 가능하고 디테일이 있어보이게끔 그림자 처리를 해주었다. 틀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난 후에는 해당 도서의 분위기에 맞춰 어울릴 만한 요소들을 첨부해 다른 도서보다 신간이 더 눈에 띄게끔 꾸며주었다.



그림 10 행복한 아침독서 지면광고

② 서울국제도서전 작가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도서전에서 북극곰 주최로 진행되는 작가 프로그램을 홍보할 포스터를 제작했다. 작가 프로그램이란 서울국제도서전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도서뿐만이 아니라 작가의 책 소개 및 설명을 들으며 소통하고, 실제 책 속에 등장하는 요소들과 관련하여 소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 또한 주간신문 광고와 같이 주어진 자료들을 이용해 날짜, 시간, 장소, 작가 정보를 고려하며 작업했다. 아래 표에 적힌 작가 중 총 7명분을 제작했다.

<요일별 작가 라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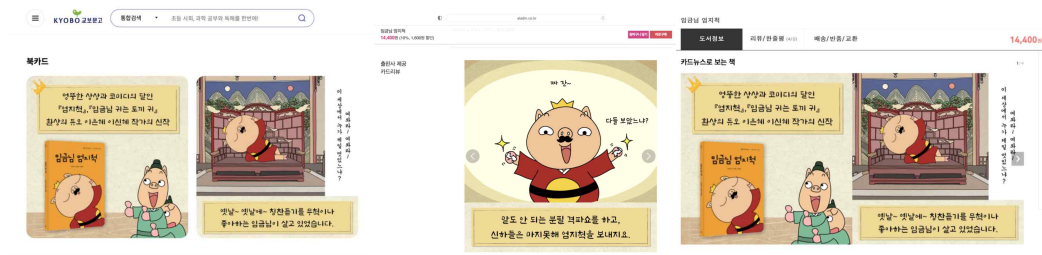
6.14 (수)	6.15 (목)	6.16 (금)	6.17 (토)	6.18 (일)
이승범, 정주희	도희경, 조아름	최영아, 하이진	모지애, 다은	홀링, 이은혜



그림 11 작가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중 하나

③ 카드뉴스

온라인 서점에 업로드 할 것과 도서홍보를 위해 SNS 계정에 업로드 할 것 총 두 종류를 제작했다. 먼저 온라인 서점에는 지면광고에도 등장했던 <임금님 엄지척>이라는 도서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일으키기 위한 자료로 쓰일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실제 책 속에 등장하는 몇 가지 주요장면(원화)을 이용하고 약간의 텍스트를 추가했다.



< 그림 12-차례대로 교보문고, 알라딘, yes24 각 온라인 서점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작업물 >

SNS 계정에 업로드한 카드뉴스 게시물은 서울국제도서전 시작 전 방문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한 게시물이자, 올해 진행한 방문이벤트란 도서전 내에 있는 북극곰 부스에 방문해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면 책갈피와 이루리북스에서 사용가능한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였다. 강조되어야 할 날짜와 북극곰 부스번호를 신경 써가며 작업했다.



< 그림 13-방문이벤트 카드뉴스 >

4) 개인프로젝트

부끄럽지 않은 소개

서점 밖의 공간에서의 경험도 함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 이루리북스와는 관계없이 개인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림책을 업으로 삼는 공간에서 나를 소개할 때 작가가 되고 싶다고 나를 소개했고, 그 소개말이 부끄럽지 않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또한 그림책을 진로로 고민 중인 지금 19년도 이후로 제대로 붓을 잡아본지가 없기에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고, 전문적인 지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6월 내 토요일마다 총 4번 휘리 작가와 함께하는 채색드로잉 수업에 참여했다.

워크샵 소개

휘리 작가와 함께하는 채색드로잉 수업은 B-platform이라는 그림책 독립서점 및 출판사에 서 진행했다. 움직이는 학교 현장을 찾아보다 알게 된 이곳은 예술적인 도서를 주로 다루며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도서가 즐비한 공간이다. 이 워크샵은 자연의 풍경을 그림책으로 표현하는 휘리 작가와 함께 각자 관심 있는 나무를 관찰하고 표현하며, 수채화를 기반으로 진행하고 수업과정에서 다양한 부수 재료도 다루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커리큘럼 구성

4주간의 커리큘럼은 6월 10일부터 17일, 24일, 7월 1일 간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었고,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 1주차 ; 강의소개, 연필과 붓, 다양한 채색도구 등을 사용하여 재료특성 파악 및 작업구상
- 2주차 ; 관심 있는 나무를 관찰하며 에스키스 및 스케치
- 3주차 ; 물감조합, 질감 표현 등을 연습하며 채색
- 4주차 ; 채색 개별지도, 개인작업 완성 후 피드백

성과

처음에 내가 목표로 하던 ‘그림에 다시 흥미 붙이기’는 완벽한 성공을 거뒀다. 사실 평소 너 무 존경하던 작가님을 만나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저 목표는 달성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작가님의 수업진행이 매끄러웠고, 또 수강생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수용하며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내 주셨기 때문이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놓치기 쉬운 기초적인 채색 기법부터 스케치 중 구도를 잡는 방법, 종이 바깥의 풍경 까지 함께 상상하며 그리는 것, 수채화 위에 색연필과 크레파스를 이용해 포인트를 주면 밀도가 올라간다는 것과 같이 정말 많은 지식을 단시간에 얻어간 시간이었다. 그 결과 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그림을 손에 놓지 않으려 수업에서 배운 바를 이용해 개인적으로도 현재까지 그림 작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매일 현장과 집에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쯤 소요됨에도 토요일에 집 밖을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나에게 만들어준 기적의 워크샵이었다.



< 그림 14-왼쪽부터 스케치⇒채색⇒완성된 모습 >

5) 인터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난 4분의 작가님들 중 이승범 작가님을 인터뷰했다. 원래의 계획은 도서전에서 만나 뵈 작가님들 모두를 인터뷰하려 했지만, 현장 진행상황상 작가 프로그램이 끝난 후 바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 부스 업무를 보는 동안 신경을 잘 쓰지 못해 한 분만 인터뷰하게 되었다. 그마저도 이승범 작가님 인터뷰는 대면인터뷰가 아닌 메일을 통한 인터뷰라 내용이 간결한 점은 아직까지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 이승범 작가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답변 보냅니다.

아래의 1~7번 질문까지의 답변 적어보겠습니다.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굴러굴러', '장화 신는 날', '내 친구 거미'를 쓰고 그린 이승범입니다.

2. 평소 그림책 제작을 하실 때에 작가님만의 작업 순서나 방식의 구성이 궁금합니다.

먼저 그림책을 이끌어갈 주요 장면을 생각하고 그다음 결말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이어나가는 장면들을 만드는 순서로 작업합니다.

3. 원화 작업을 하며 가장 신경 쓰는 포인트가 있다면? (자신만의 기법이나 연출방법 등)

일러스트레이터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하나의 그림스타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글과 책의 성격과 내용에 맞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입니다.

그림책에도 마찬가지로 책의 성격과 내용에 맞는 그림 스타일을 찾는 것을 그림 작업의 첫 번째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4. 평소 영감을 받는 타 작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작가 이외에 다른 요소도 좋아요)

그림책의 소재는 주로 생활에서 얻습니다. 특별하게 영감을 얻는 요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5. 작가로써 책 만드는 작업 이외의 다른 활동이 있다면?

그림책 작가로써는 '작가와와 만남'을 통해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6. 그림책 작가이기 전 직업이 궁금해요.

+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대학진학여부와 이전 직업이 작가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데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력에 관한 내용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래픽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를 직업으로 하였는데

일러스트작업은 마감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 작업 속도가 좀 빠르고

다양한 매체와 일을 해서 다양한 그림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6-1. 이 때 그림책 작가라는 직업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오래전에 영어로 된 전래동화책을 본적이 있는데 그림이 제가 어릴 때 보던 그림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뒤로 다른 그림책들도 보며 언젠가 그림책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 그림책 작가가 되시기 위해 따로 받으신 교육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 따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었던 글들을 정리해 그림책을 만들어볼까 생각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으로 공모전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작가가 되었습니다

작가가 된 뒤에 그림책 시장에 워크샵이나 북토크 학원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짧게나마 적어본 답변인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란님의 꿈과 발전을 응원합니다!

5. 소감과 평가

1) 단체평가

평가라고 하기보다 단체에 대한 나의 인상이나 주어진 활동의 만족도 정도를 설명해 보자면 대체적으로 사무적인 분위기와 업무 형태가 기억에 남는다. 내가 움직이는 학교 현장에 오기 전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이루리북스의 환경은 북극곰과 일정 부분 친밀한 공간이지만, 엄연히 다른 회사로 존재할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고, 서점 내의 직원분들과 출판사 내의 직원분들의 친밀도 자체도 같은 식구 수준에 가까웠다. 이런 점이 내 예상과 달랐지만 외려 나에겐 배움과 경험의 폭이 매우 넓어지게 되었다. 출판사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보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었다.

나에게 맡겨주셨던 업무들에 대한 만족도는 정말 높았고,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신 멘토님에게 너무나 감사했다. 내가 현장에 오기 전 점장님과 통화를 나누며 지원 이유와 동기를 설명드릴 때에는 서점이 매우 바쁘기에 맡겨줄 일이 변변찮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업무내용이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이 무색해질 정도로 멘토님께서 실무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맡겨 주셨다. 간단한 카드뉴스부터 시작해 포스터, 신문사 지면 광고, 온라인 서점에 들어갈 북카드까지 모두 나에게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준 경험들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멘토님만이 나에게 친절하셨던 것은 아니다. 대표님 두 분을 포함해 북극곰과 이루리북스의 인원은 11명인데 이 중 그 어떤 분도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편견을 가지거나,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누군가는 위의 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에겐 다른 것보다 단체의 일원 모두가 사회 초년생인 나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셨다는 사실이 가장 감동이고 감사한 일이었다. 지난 3주간 나에게 이루리북스와 북극곰은 좋은 서적과 좋은 사람들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2) 자기평가

맡게 된 업무가 예상보다 조금 무게감이 있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존재했다. 나를 일정 부분 신뢰해 주시기 때문에 일거리에 작은 무게감이 실렸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욱 크게 다가왔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매일, 매순간에 진심이 담기지 않을 수 없었다. 점심 식사를 함께할 때 나에게 오는 학교에 대한 사소한 질문에도 관심이 담겨있다는 것이기에 하나하나 열띤 설명을 해드렸다.

아쉬운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맡게 된 디자인 작업은 일이 많지 않기에 한 번 주어진 일을 끝내면 그 후에 비게 되는 시간이 조금 있었다. 그때마다 서점에 널린 책을 더 많이 읽어봤다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근무일 후반부로 갈수록 읽는 책의 양이 줄어 더욱 그 아쉬움이 부각되게 느껴진다. 또한 그림에 관련해서 서점 내에서 개인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출판업과 서점일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욱 좋은 성과로 남을 수 있는 활동은 나의 그림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었을 텐데.. 팸플릿이나 주간신문 제작 또는 소품 제작 같은 활동을 시도해봤다면 더욱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

3) 총 소감

3주간의 움직이는 학교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사회 첫 경험으로 딱 적절했던 기간이었다. 그 기간이 길지 않게 느껴지게 해준 건 단연코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분이었다. 근무 시작일부터 끝나는 날까지 가끔가다 정감 있게 이름으로 불러주실 때, 애정을 담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누구도 나에게 말을 낮춘 적이 없었다. 그건 나에게 큰 존중의 의미로 다가왔다. 나 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미숙한 청소년에게 옆에 동료와 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곳의 사람들은 이 쉽지 않은 일을 당연하게 베풀어주는 ‘어른’이었다.

무빙 중 단체 안에서 크게 힘든 점은 없었다. 가장 큰 고비는 바깥에 있었다. 집과 거리가 꽤 있는 편이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씩 소요되었다. 사실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퇴근하고 타 독립서점이나 엽서 제작소 등 서점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도 배움을 이어가고 싶었는데 정말 쉽지 않았다. 또 다른 고비라 하면 낮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친절하고 따스히 대해주셔도 한동안 좀처럼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 꽤 애를 먹었다. 아무래도 직원분들끼리 사이가 워낙 좋으시다 보니 대화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마다 우물쭈물하는 나를 보고 다정히 말을 건네주시던 향령님이 내 무빙 생활 중 마주친 참 소중한 인연이었다. 한 번 향령님과 단둘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음의 문이 단박에 열려 사적인 얘기를 왕창 나누기도 했었다.

움직이는 학교를 준비하며 주하쌤이 건네주셨던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어른을 만나는 일이 드물다”. 이때해 주신 말씀을 듣고 개인무빙을 지내는 내내 생각했다. 좋은 어른이란 무엇일까? 근무 마지막 날에 드린 선물과 편지를 받으신 이 루리복스, 북극곰 직원분들은 정말 따스하게도 헤어짐 인사의 의미로 보내주신 책 5권 속에 깜짝 선물을 넣어주셨다. 그곳에는 밴드 파라솔을 좋아하신다던 양양 작가님이자 팀장님이 보내주신 인디음악 cd가 있었고, 멘토님이 직접 작업하신 시집에 사인과 덕담이 함께 있었고, 정혜님이 보내주신 이루리복스 로고가 적힌 공책 위에 그동안의 고마움을 담은 짧은 글이 함께 있었는데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향령님의 이름이 적힌 편지 한 장이었다. 편지 속에는 같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함께 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이란 분명한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지워낼 수 있는 사람이야. 아란님도 자신만의 좋은 어른의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이번 움직이는 학교를 통해 나는 좋은 어른을 만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

김단오
충북야생동물센터



1. 움직이는 학교 현장 소개

1) 단체에서 하는 일과 목적

충북야생동물 센터는 접수된 조난 야생동물이 다시 건강하게 야생에서 살 수 있도록 구조, 검사, 재활훈련을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야생동물에 대해 알아가고, 야생동물 보호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감염성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하고 있다.

야생동물센터는 앞선 활동을 통해 전문적 기술을 갖춘 전문 수의사들의 양성, 배출하는데 기여한다.

2) 그 외 정보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 45(오창읍 주성리 311-4)

현장 인원 : 9명

현장 멘토 : 김지은 선생님

2. 움직이는 학교 현장 선택 과정과 이유

좋아하는 분야 중 내가 졸업하고 나서 하지 않을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그러다 양지원누나가 갔던 충북야생동물 센터에 대해 듣게 되었다. 동물은 나의 관심사중 하나였고, 동물을 돌보는 일, 더군다나 야생동물을 돌보는 일은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하지 못할 만한 경험이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 흔쾌히 받아주셨다.

3. 움직이는 학교 목표와 계획

1) 움직이는 학교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

경험이다. 첫 사회에 나가 일을 하는 경험, 낯선 장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 퇴근을 직접 해보는 경험, 돈을 관리하며 규칙적으로 쓰는 경험 등 첫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또, 다시는 해보지 않을만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야생동물에 대해 알아가고, 배우는 경험, 야생동물을 많이 보고, 돌보고, 접하는 경험 등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하지 않을 경험을 해보고 싶다.

2)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업무 형태

출근 : 오전 9시

퇴근 : 오후 17시

주말 제외 주 5회 출근

4. 움직이는 학교 진행과정

1) 맡은 역할과 업무

(1) 청소

매일 출근 직후 9시부터 로비부터 휴게실, 처치실을 청소한다. 처치실 내부 복도도 시간이 남거나 따로 시키시면 청소한다. 먹이 준비실과 세탁실을 사용 후 어느 정도 이상 더러워

지면 청소한다. 집중치료실과 조류 입원실에 케이지가 비면 물청소한다. 집중치료실, 조류 입원실, 포유류실이 어느 정도 이상 더러워지면 물청소한다.

(2) 빨래, 헹대 닦기, 설거지

아침에 청소를 끝내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돌린 후 끝난 빨래를 접어서 장롱에 넣는다. 하루에 3~4번 정도 이 일을 반복한다. 더러워진 헹대(나뭇가지나 조형물 따위)가 세탁실에 쌓이면 닦고, 말린다. 건조가 끝난 헹대는 따로 모아 정리한다. 이틀에 한 번 정도 한다. 먹이 준비실에 다 쓴 먹이 그릇이 쌓이면 설거지한다. 하루에 2~3번 정도 이 일을 반복한다. 처치실에 다 쓴 주사기 또는 의료용품이 쌓이면 설거지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

(3) 먹이 준비, 먹이 주기 보조

매일 아침 청소와 빨래가 끝나면 야외 계류장 먹이를 준비한다. 죽은 병아리와 메추리, 살아있는 밀웜, 개 사료, 알곡과 크럼블, 배추와 볶씨, 조류사료와 블루베리 등을 정리된 표를 따라 알맞은 동물에게 알맞은 그릇을 사용해 나눈다. 병아리와 메추리는 매일 아침 흐르는 물에 담가 해동해야 한다. 그리고 병아리는 가끔 손질을 해서 준비한다. 배추도 자주 부족해져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썰었다. 같은 일을 오후에 한 번 더 반복한다. 그 외에도 직원분이 시키시면 유동적으로 실내 동물들의 먹이를 준비하기도 한다. 이유식, 물에 푼 개 사료, 잘게 자른 병아리 등.



준비된 먹이를 오전 11시, 오후 4시쯤에 직원 한 분과 같이 야외 계류장 먹이 주는 일을

보조한다. 주로 물통을 씻고 물을 따르는 일, 먹이를 두고 나오는 일 등이다. 그 외에도 유조 입원실에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도 가끔 했다.

(4) 동물 무게 재기 보조, 방생 보조

실내, 외 계류장에 동물들의 먹이 자가 급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몸무게를 재는 일을 한다. 주로 동물을 잡고 무게 재는 일은 직원분이 하시고 나온 무게를 받아 적는 일을 했다. 한, 두 번은 같이 잡고 무게도 직접 재봤다. 방생 보조를 한 번 했다. 방생 장소까지 동물들을 데려간 후, 방생하는 일을 했다.



2) 인터뷰

충북 야생동물센터에서 경험만으론 얻기 힘든 것들을 질문했다.

Q. 충북 야생동물센터에서 일하실 때, 본인만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A. 야생동물들이 사람에 의해서 다쳐서 들어오니깐 이런 야생동물들은 치료하고 내보내는 것 또한 사람의 몫이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Q. 충북 야생동물센터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학교에서 야생동물 학이라는 수업을 계기로, 그해 여름에 다른 센터에 실습 지원을 했었다. 실습 이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쩌다 기회가 돼서 지원하고 일하게 되었다.

Q. 충북 야생동물센터에서 일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힘이 드시나요?)

A. 힘들 때는 센터에 동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다. 관리해야 하는 개체수가 늘어나면 육체적으로 힘

들다. 어려운 부분은 진단할 때, 장비가 부족해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또, 어린 개체들이 이유 없이 아플 때, 이유 없이 시름 거리다가 폐사할 때 어렵고 슬프다. 또, 미아 개체들이 센터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사람 손에서 크게 되는데, 그렇게 큰 개체들의 자연 적응력을 어떻게 높여줄지도 고민 거리다.

Q. 반대로,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A. 방생할 때다. 흰 뺨 오리 같은 개체들은 센터에서 성체로 다 키워서 방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 특히 더 뿌듯하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일이었나요?

A. 작년에 오소리 새끼가 들어왔었다. 그중 한 마리는 앞다리 하나가 없었다. 오소리는 앞다리가 없으면 굴을 팔 수 없어서 앞다리 없는 오소리는 안락사 대상이다. 하지만 센터에서 잘 키우고 방생했을 때, 다행히 적응을 잘해서 기억에 남는다. 그 때 카메라를 설치해서 관찰했는데, 굴을 잘 파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 것 같다.

Q. 이 시기에는 어떤 동물이 가장 많이 구조되고, 어떤 동물이 가장 많이 자연으로 방생되나요?

A. 여름철엔 조류들과 포유류 모두 번식기다. 때문에, 미아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 현재 센터에 동물 80%가 미아 동물들일 정도로 새끼 개체들이 많이 들어온다. 작년에 개선충 때문에 들어온 너구리들이 많이 방생된다. 그 외엔 방생은 불규칙적이다. 현재는 까치가 곧 방생될 듯 하다.

Q. 야생동물 질병을 모니터링하고, 유전자 연구를 하는 '진단 연구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어떤 일들을 하나요?

A. 치료(?) 채취, 진단기나 혈액 채취나 분별(?) 채취 등을 한다. 채취한 샘플의 일부는 충북 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해 사용하고, 광주에 있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원에도 보내서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한다. 다른 시설에서도 샘플을 요구하면 보내주는 식이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른다.

Q. 진단 연구부에서 야생동물 질병 및 유전자에 관해 연구한 것이 사회에 쓰이기도 하나요? 예를 들면 야생동물 질병을 연구하며 만든 약이 애완동물이나 가축에게까지 영향을 주기도 하는지요?

A. 없다.

Q. 야생동물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민원인(부상 야생동물 발견자)들이 발견하면, 센터로 연락이 들어온다. 전화로 상황을 듣고 어떤 조치를 할지 판단 후에 민원인에게 현장 조치만 부탁하거나, 센터로 들여오게 된다. 들어오는 방도는 민원인이 데리고 올 때도 있고 직원이 가서 데리고 올 때도 있다.

Q. 야생동물이 인간 손에 다치지 않게 하려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야생동물이 센터에 들어오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미아, 교통사고, 유리창 충돌. 미아의 경우에는 연락이 들어 왔을 때, 센터로 데려오는 것이 미아 구조인지 납치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때문에, 연락 시 민원인의 정확한 상황설명과 센터의 판단(현장 조치)을 잘 따라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고라니가 보통 많이 들어온다. 가장 처음으론 고속도로에서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특히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밤에 산길을 운전하거나 야생동물을 마주쳤을 땐 전조등을 켜는 것보다, 경적을 울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전조등은 보면 놀라서 멈추어 서는데, 경적을 울리면 소리 때문에 도망가기 때문이다. 유리창 충돌의 경우에는 유리창이 투명해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유리창 방지 스티커를 붙이면 충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스티커가 아니더라도 5x10으로 아크릴 물감을 그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실 애초에 유리창을 덜 쓰는 것이 가장 좋다.

Q.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A. 야생동물에 대한 많은 관심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5. 움직이는 학교 평가

1) 단체 평가

직원분들이 대체로 정말 잘해주셨다. 밥도 종종 사주시고,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주시고, 거리낌 없이 해주시고, 일도 친절히 잘 알려주셨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친근하게 해주셨다. 센터 시설도 냉방도 잘 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있었다.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과 사람들, 그리고 철학 모두 너무 멋있었다. 동물들도 다양했고 직원분들과 센터에서 진심으로 동물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2) 자기 평가

맡은 일과 지시받은 일 모두 항상 최선을 다해 임했고, 큰 사고도 치지 않아 나름 잘했다고 생각한다. 동물들을 많이 관찰하고, 여러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낯을 많이 가려서 센터 직원분들과 더 친하게 지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래도 나름 힘들고 바쁜 개인무병이었으나 내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나름 잘한 것 같아 뿌듯하다.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충분히 만족하는 개인무병이다.

6. 결산

시준, 시현이네 집에서 하숙. 교통비와 저녁, 주말 식비만 계산하면 됨.

주말 식비 1끼 1만 원으로 계산 시 12만 원.

평일 저녁 식비 1끼 3,000원으로 계산 시 $\times 15 = 45,000$ 원

교통비 편도 1,200원으로 계산 시 $\times 30 = 36,000$ 원

총합 211,000원

개인 부담금 11,000원

교통비와 평일 저녁 식비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음.

교통비는 퇴근을 걸어서 하게 될 경우. 18,000원

평일 저녁 식비는 간단하게 해결하지 않는 경우엔 1끼당 1만 원으로 계산 시 15만 원

위와 같이 계획하였으나, 점심 식사를 센터에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버스 이용도 예정대로 하지 않았다.

교통비

출퇴근 교통비 $1,200\text{원} \times 16 = 19,200\text{원}$ (퇴근 버스 이용 10회 3일 비 와서 출퇴근 버스 이용 따라서 16)

주말 교통비 $20,400 \times 2 = 40,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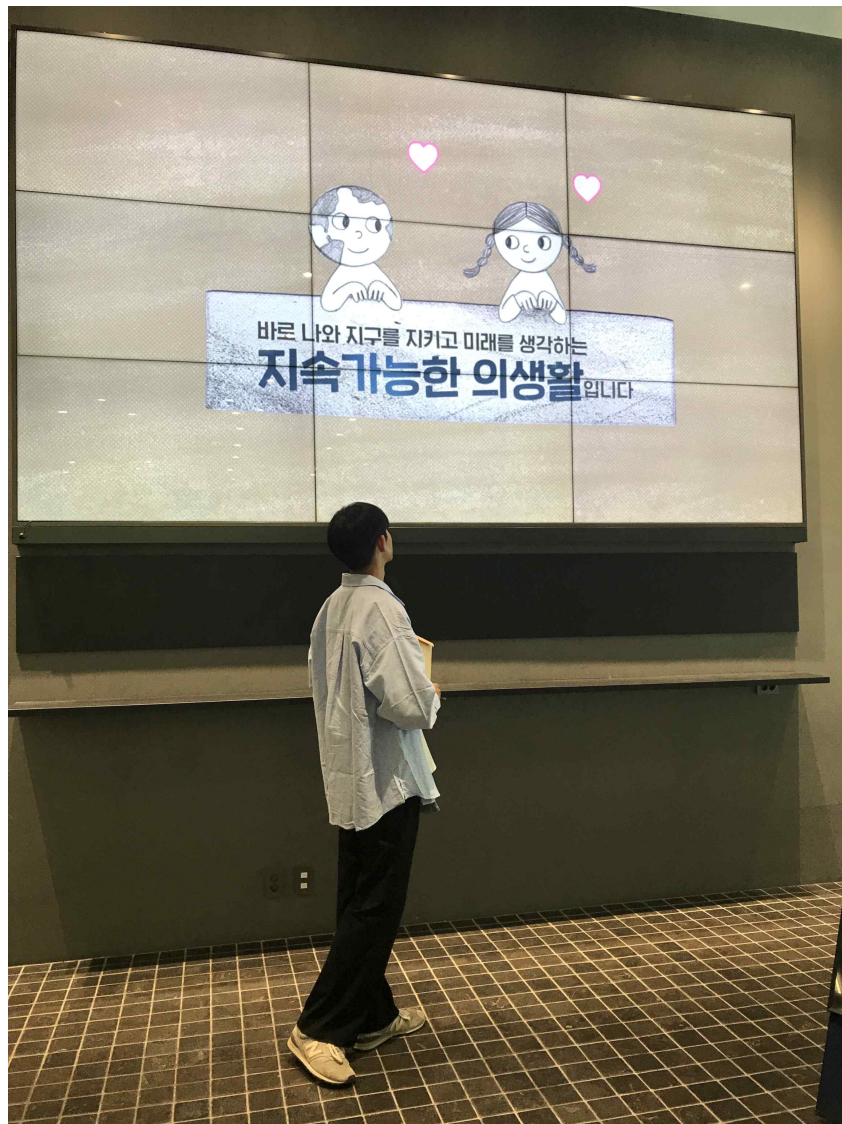
식비

저녁 닭가슴살 $3,600\text{원} \times 15 = 54,000\text{원}$

점심 편의점 도시락 $5,000\text{원} \times 13 = 60,000\text{원}$ (센터에서 두 번 밥 사주셔서 13회로 계산함)

합계 174,000원 남은 돈 26,000원

김동연
다시입다연구소



1. 움직이는 학교 현장 소개

<다시입다연구소>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1나길 5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G605

현장 인원: 4명

현장 멘토: 박지원 매니저님 (010-5299-2997)

다시입다연구소 메일 lab@wearagain.org

1) 단체 소개

다시입다연구소는 패션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의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비영리 스타트업입니다. 다시입다연구소는 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의생활 문화를 꿈꿉니다. 패션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의류 재사용의 가치를 알리고 교환을 통한 대안적 의류 소비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이들과 새로운 의생활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2) 주요 활동

다시입다연구소의 주요활동은 크게 6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21%파티이다. 21%파티는 안 입는 옷이 재화가 되어 새로운 옷을 얻을 수 있는 대안적 의류 소비문화 행사이다. 21%파티의 가장 큰 특징은 1:1물물교환입니다. 중고 옷 경험을 통해 편견과 거부감을 없애고 건강한 지구환경을 주도하는 시장사회가 유발한 환경 문제를 비 시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행사이다. 21%의미는 2020년 다시입다연구소 설립과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옷을 사놓고 입지 않는 옷의 평균 비율이 21%로 나와서 21%파티이다.

두 번째는 21%파티 톨킷이다. 21%파티 톨킷은 의류교환 파티 21%파티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지인들과 함께 열어볼 수 있도록 돕는 도구 세트이다. 톨킷 구성품은 21%파티 방법 설명서 초대장 엽서 교환 티켓 스토리 태그가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는 21%파티 워크이다. 21%파티 워크는 2013년 4월24일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봉제 공장 붕괴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의류 노동자들이 희생된 참사가 있었습니다. 21%파티 워크는 라나플라자를 추모하기 위해 다시입다연구소가 기획한 캠페인입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모집된 호스트들에게 21%파티 톨킷을 제공하여 전국적으로 모으고 교환하고 나누는 21%파티를 개최한다.

네 번째는 법 제정 운동이다. 패션 기업이 '재고와 반품을 폐기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운동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1569명이 서명해서 국회의사당에서 패션 재고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21%랩이다. 21%랩은 의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 놓고 입지 않는 옷은 교환을 통해 재사용을 유도 하고 입던 옷은 수선과 리폼 등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입는 경험과 실천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의생활 문화공간이다.

여섯 번째는 지속가능한 의생활 매거진이다.

지속가능한 의생활 매거진은 뉴스레터를 작성해서 다시입다연구소와 의류재사용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있다.

2. 움직이는 학교 현장 선택 과정과 이유

개인무빙을 어디로 가야할까를 생각했을 때 처음 생각난 주제는 패션 이었다. 패션은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옷을 잘 입고 싶다는 생각에 매일 관심이 있던 주제였다. 3학년 때 논문으로 패션관련해서 쓰려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했었다. 논문 때는 포기했지만 개인무빙 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패션으로 주제를 잡았다. 하지만 패션을 주제로 잡고 가기에는 너무 많은 분야가 있어서 학교가치를 생각해 보았다. 학교에서는 친환경적인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환경과 패션을 조합해서 재활용 패션, 친환경 패션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2가지의 키워드로 단계를 찾아보던 중 다시입다연구소를 알게 되어서 환경에 대해서도 뜻 깊은 일을 할 수도 있고 패션에 대해서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다시입다연구소로 개인무빙을 가게 되었다.

3. 활동 내용

1) 기간 및 활동 시간

- 일정: 5/30(화) ~ 6/16(금) - 출·퇴근 시간: 10:00~18:00
21%랩 5/30(화)~5/31(수) 1:00~8:00
- 휴일: 토, 일, 공휴일
- 점심시간 12:00~1:00

2) 일정

화 (5/30)	-직원 분들과 인사 -회의 참여 -21%파티 톨킷 개수 체크 (280개,200개,50개) -21%랩 공간 운영 -21%랩 손님 응대
수 (5/31)	-21%랩 오픈준비 -21%랩 손님 응대 -21%랩 공간 운영 -앞치마 만들기 -가랜드 만들기 보조 -21%랩 마감
목 (6/1)	-21%랩 공간 철수작업 지원 -21%랩에 있는 모든 옷 개서 박스에 정리하기 -박스 트럭으로 옮기기 -21%랩에 있는 모든 물품 트럭에 옮기기

	-글자 스티커 떼기 -21%랩 마지막 청소 및 정리 -사무실로 이동 -옮긴 짐 창고로 옮기기 -사무실로 옮기기 -설문지 취합 -회의 참여
금 (6/2)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 사업 중간워크숍 참여 -다양한 인권운동관련 사업, 단체들의 강의 듣기
토 (6/3)	-21%파티 공간 꾸미기 (가랜드 천장에 걸기, 포스터, 행사 물품 전시등) -21% 파티 스텝으로 참여 -행잉(옷 나르기) 총 710벌 -손님 응대 -21%파티 뒷정리
월 (6/5)	-21%파티 남은 짐 정리 -옷 개서 박스에 넣기 -짐 사무실과 창고로 옮기기 -21%파티 엑셀파일 취합하기
화 (6/6)	-현충일이라 출근 x
수 (6/7)	-토요일에 출근해서 모두 쉽
목 (6/8)	-21%파티 엑셀파일 취합 -다시입다연구소 뉴스레터 작성
금 (6/9)	-정상 쌤이 오셨다. -재봉틀로 다시입다연구소 전시물 만들기 보조 -동락가에서 스타트업 단체 소개 전시 구경
월 (6/12)	-뉴스레터 작성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콘티 기획
화 (6/13)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콘티 수정 -다시입다연구소 블로그에 올릴 셀프인터뷰 작성
수 (6/14)	-헤이그라운드 독점 점으로 이동 -비영리 스타트업 임팩트 역량평가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 듣기 -간단한 자기소개 -다양한 비영리 단체 자기소개 듣기 -ican 강의듣기(Impact Capacity Assessment Toolkit For Nonprofit Startups) 비영리 스타트업을 위한 영향 용량 평가 툴킷
목 (6/15)	-박지원 매니저님 인터뷰 진행 -제로웨스트 챌린지때 넣을 사진 촬영
금 (6/16)	-마지막 인사 -마지막 회식

3) 업무 내용

자기소개서에 21%랩을 체험해 보고 싶다고 썼었다. 그래서 서울숲 언더스탠뉴 예비뉴에있는 다시입다연구소 21%랩 팝업 공간에서 2일 동안 업무를 맞게 되었다. 다시입다연구소의 사무실은 헤이그라운드라는 공유 오피스에 입점해 있어서 21%랩 공간 업무가 끝난 뒤에는 사무실로 출근을 했다.

(1) 21%랩

① 21%랩 팝업 공간 오픈



<그림 2 출근해서 붙인 포스터>

<그림 1 21%랩 모습>

오전 12시 50분까지 출근을 해서 1시까지 오픈 준비를 한다. 의자를 세팅하고 재봉틀과 책상을 밖으로 꺼낸다. 포스터를 자석을 이용해서 벽면에 붙인다. 앞치마를 입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② 손님 응대

손님 응대의 경우에는 21%랩 공간 설명, 의류 교환 하는 방법설명, 표에 인원수 작성 등이 있었다. 의류 교환하는 방법설명은 옷에 스토리 태그를 적어야 해서 어떻게 적는지 알려드리고 가져오신 옷을 옷걸이에 걸면 된다. 그리고 표에 몇 명이 오셨는지 옷을 몇 벌 교환하셨는지 체크한다. 사실 2일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손님 응대하는 법을 첫 날에는 옆에서 보고 배우고 다음날부터 해 보았는데 나름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21%랩을 전부터 알고 오신 분들도 있어서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들르시는 분들한테는 21%랩을 다 설명해 드려야 해서 어려웠다. 21%랩이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하는 거라서 내가 갔을 시기가 딱 마지막 이튿날이여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던 것 같다.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많이 와 주셔서 점심에는 한가했는데 딱 퇴근시간인 5~7시에 정말 많은 손님 분들이 찾아와 주셨다. 표를 취합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약 한 달 동안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찾아와 주셨다.



<그림 64 21%랩 내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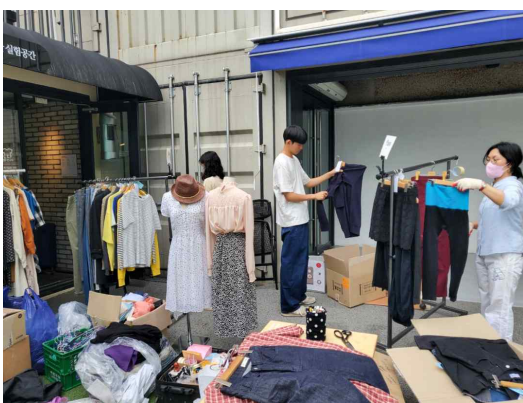
<그림 65 손님 응대하는 모습>

③ 21%랩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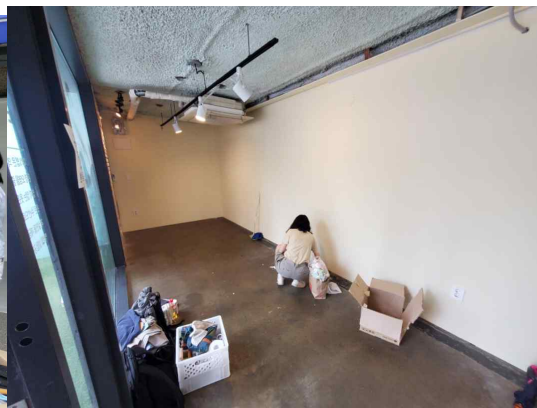
밖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다 수거해서 정리한다. 의자와 책상을 다 정리한다. 사용한 옷걸이를 옷걸이 박스에 모은다. 불을 끄고 나오면 퇴근을 한다.

④ 21%랩 철수 작업 지원

21%랩이 팝업으로 진행되어서 내가 갔을 시기에는 2틀밖에 진행하지 못 했다. 그래서 철수하는 작업을 돕게 되었다. 21%랩 안에 있는 물품들을 다 정리해서 트럭으로 싣었다.



<그림 5 정리하는 모습>



<그림 6 모든 짐을 뺀 21%랩의 모습>

(2) 21%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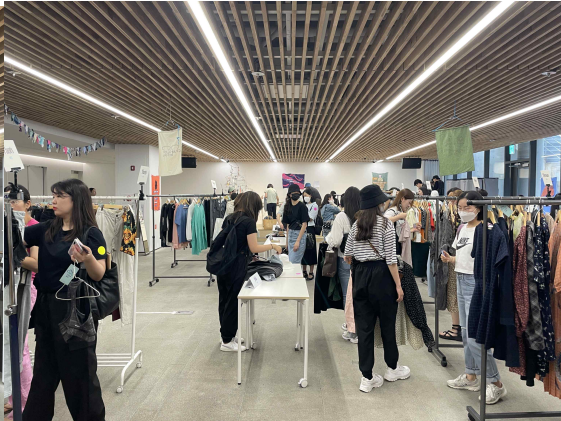
① 행사스텝

21%파티 행사에 장식할 소품들을 행사장에 장식한다. 21%파티에서 내가 맡은 일은 행거였다.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옷을 옷걸이에 걸고 카테고리에 맞는 행거에 옷을 거는 일을 했다.

시간이 나면 스탬프 이벤트를 참여하시는 분들의 도장도 찍는 일을 했다. 이날 21%파티 행사에는 총 178명이 참가해 주셨고 720개의 옷이 접수되어 657개의 아이템이 교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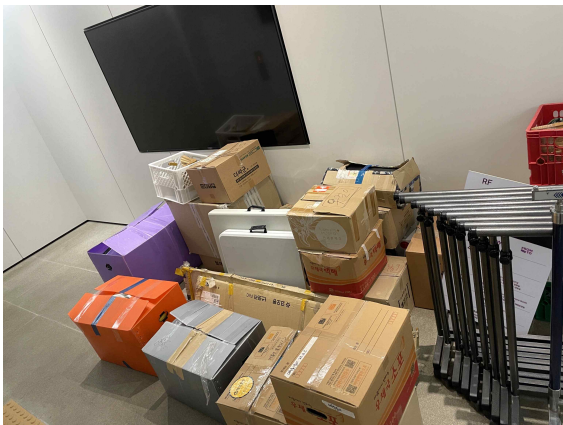


<그림 7 21%파티 시작 전 모습>



<그림 8 21%파티 하는 모습>

② 21%파티 철수 지원



<그림 9 짐>



<그림10트럭으로 옮긴 짐>

21%파티의 남은 옷들을 다 박스에 넣고 행사 소품들을 치우는 일을 했다. 다 모은 박스를 다시 트럭으로 옮겼다.

(3) 워크숍 참여

① 워크숍은 총 2번을 들었다. 첫 번째로 들은 워크숍은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 사업 중간위

크숍' 이었다. 처음에 대표님이 이 워크숍에 강의를 하러 가서서 나도 같이 가서 듣고 다른 다양한 단체의 강의도 들어보라고 제안 해 주셔서 듣게 되었다. 정말 다양한 단체가 왔었는데 기억에 남는 단체는 카카오톡 같이 가치라는 단체였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 카카오톡이 이 워크숍에 와서 카카오 톡에서 만든 기부단체를 소개하였다.

두 번째로 들은 워크숍은 '비영리 스타트업 임팩트 역량평가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다. 사실 이걸 모든 직원 분들이 가서 같이 따라가는 느낌이었다. 이 워크숍도 다양한 단체의 소개와 ican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림 12 카카오톡 같이 가치 발표>



<그림 11 다시입다연구소 대표님의 강의>

(4) 다시입다연구소 사무실

다시입다연구소 사무실에서는 설문지 취합 엑셀파일 취합 다시입다연구소 뉴스레터 작성 셀프 인터뷰 블로그에 게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참여 톨킷 개수 체크 등을 했다.

① 톨킷 개수 체크

톨킷은 21%파티를 열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이다. 다른 지역 혹은 단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톨킷을 사람들의 인원수만큼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톨킷 개수를 세는 역할을 했다.

② 취합

다시입다연구소는 21%파티 21%랩 등을 설문지나 설문을 받아서 취합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취합하는 일들을 맡겨 주셨다. 논문으로 다져진 취합 실력이 이렇게 잘 사용될 줄 누가 알기나 했을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실 엑셀은 처음 해 봐서 많이 여쭙면서 하긴 했는데 비슷해서 할만 했다.

③ 블로그 작성

다시입다연구소의 뉴스레터를 작성해서 올렸다. 21%파티가 끝나면 결산 보고와 무엇을 진행했는지 알려주는 글을 써서 올리는데 그 글을 써서 올리게 되었다. 처음 블로그를 작성하는 거라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ppt와 어느 정도 비슷해서 할만 했다. 뉴스레터는 21%

파티를 작성 했고 멘토 분께서 개인적으로 셀프인터뷰를 해서 올리면 재밌을 것 같다고 제안 해주셔서 셀프인터뷰도 블로그에 올리게 되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도 간단한 환경의 날 설명과 실천할만한 행동들을 블로그에 적어서 올렸다.

④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다시입다연구소가 지목당해서 어떻게 챌린지를 참여 할지 콘티를 짜고 사진과 글을 써서 다시입다연구소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사진에 내가 나오면 좋은 것 같다고 하셔서 모든 사진에 내가 나오게 되었다. 6000명이 내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니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사진을 잘 찍어서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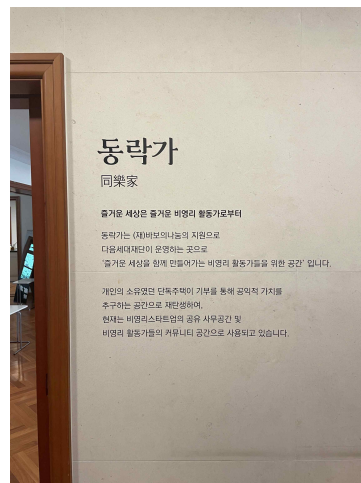
⑤ 인스타그램

업무 중 인스타그램을 관리하는 일도 주셨다. 인스타그램에 ‘실습생의 하루’ 라는 주제로 하루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에 대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는 일도 하였다.

(5) 기타



<그림 15 전시 들어가는 곳>



<그림 16 동락가 설명>

동락가라는 곳에 다시입다연구소의 소개와 전시가 되어 있어서 동락가에 가게 되었다. 동락가는 비영리 활동가들을 위한 공간인데 공간이 정말 좋아서 놀랐다. 예전 다시입다연구소의 사무실도 이곳이라고 말씀 해 주셨다.



<그림 76 동락가에 전시 되어있는 톨킷, 포스터>

4. 현장 인터뷰

내 멘토이셨던 박지원 매니저님을 인터뷰하였다.

1. 어떻게 단체를 알고 입사하게 되었나요?

저는 원래는 21%파티 참여자로 알게 되었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소비 인증하고 무지출 챌린지 하는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 또 옷도 좋아하다보니까 그러면 내가 좀 비용을 안 쓰고 옷을 좀 새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21% 파티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나 옷 많은데 다섯 벌 내가 안 입는 옷 교환하면은 재밌겠다. 하고 처음에 이렇게 참여를 했고 참여자로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골랐던 빨간색 가디건이 서포터즈 분 옷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포터즈 분이 제가 이제 옷 고르고 나가는데 이거 제 옷이에요. 라고 해서 그게 되게 그분이랑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경험으로 남았고 그 뒤로 몇 번 이제 파티를 참여하다가 여기랑 그냥 참여자 말고 같이 모두 해보고 싶었는데 뭐 없나 하다가 또 서포터즈를 뽑으시기에 지원을 했고 서포터즈로 이제 일을 같이 하는데 열심히 하고 이런 걸 보시고 그러면 아예 우리랑 일을 같이 하자 지금 쉬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럼 직원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여자로 참여했다가 서포터즈 했다가 이제 직원까지 됐습니다.

2.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들을 하셨나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네 저는 작년 11월 2022년도 11월에 입사를 해서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헤이 그라운드 성수 시작 점에서 21% 랩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21%의 공간 관리하는 거를 11월에 중점적으로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21% 파티 할 때 외부 이제 기관을 꺼가지고 한다거나 기업을 꺼서 하면 그 업체들이랑 소통하는 거를 제가 주로 하고 그 외에도 파티 하면서 강사님들 섭외하거나 참여자 관리하거나 이런 것도 주로 했었고 그 외에는 저희가 sns 채널이 인스타그램 블로그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통해서 참여자분들이랑 저희 팬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번에 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메인으로 들어가서 업무 맡고 있고 그거랑 재고 폐기 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의류 재고를 기업에서 판매가 되지 않은 의류 재고를 소각을 하는데 이거를 금지시키자 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외부랑 소통을 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중점으로 하고 있죠.

3.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 있나요?

얻은 거 얻은 거는 사실 할 때마다 이게 반복되는 업무도 있지만 사실 할 때마다 다 새로운 업무거

든요. 왜냐면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내가 이런 외부 행사 기획을 하면서 입법 활동도 하면서 지원 사업도 하면서 이런 일이 잘 없으니까 그냥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그게 가장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비영리 단체에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비영리 조직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소명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지 이야기 나눌 시간이 많아서 좀 그분들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사회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점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또 알아가는 것 같아요.

4. 다시 또 연구소의 장점을 하나 뽑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난 해보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되게 추진력이 좋아서 뭔가 의견을 그러니까 되게 개방적이고 추진력이 좋아서 의견을 냈었을 때 그게 되겠다 싶으면 해보라고 하는 되게 자율성이 높다. 만나면서 그냥 행사하면서 그냥 업무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되게 좋다.

5. 다시입다연구소를 다니면서 겪은 일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기억에 남는 일 제가 2023년도 1월 27일이었죠. 저희가 경복궁 쪽에 있는 동락가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다음 세대 재단에서 이제 비영리사업 지원해 주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이제 재고 폐기 금지법 활동을 시작한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자님들 국회의원 그다음에 환경단체 아니면 일반인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가 이렇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한다. 법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 이런 설명하는 입법 모임의 첫 모임을 가졌었는데 거기서 제가 사회를 봤단 말이에요. 전체 기획도 거의 다 하고 그래서 그때 전체 기획하고 사회 보고 하는 게 되게 새로웠어요. 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앞에서 약간 유재석에 빙의해서 약간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하는 날 보면서 스스로 박수를 쳐주는 일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6. 다시입다연구소를 다니면서 입사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한 적 (혹은 일)이 있을까요?

입사하길 잘했다. 앞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 왜냐면 그전에 직장을 다녔을 때는 복지기관에서는 교육 사업을 했었는데 교육 사업은 거의 비슷한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내가 교육 기획을 하고 보통은 이제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부모 교육이나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 기획을 하고 참여자 모집하고, 모집하고 나서 교육 운영하고 결과 보고 그걸로 이제 다시 회고를 한번 하고 환류를 한다. 그래요 환류를 한번 하고 다음 사업을 또 짜고 이게 계속 반복인데 여기는 파티 한 번 한다. 그래서 파티가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새롭고 또 가지 수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담당한 업무도 사실 파티도 담당해 인스타그램 같은 sns 채널도 하고 있어 지원 사업하는 거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입법 활동 하는 것도 거기서 중간에 이제 제가 거의 연락을 많이 하니까 그런 업무 다양성이 있다.

7. 미래에 다시 입사 연구소는 어떻게 바뀌어 있으면 좋겠나 혹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당장으로는 재고 폐기 금지법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순환경제법과 잘 맞물려 갔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지속 가능한 의생활을 위한 캠페인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지속 가능한 생활만 들으면 그게 뭔데 라는 물음표가 나오거든요. 그냥 일반인들한테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했던 나의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한번 그냥 이 다시 입다 연구소라는 타이틀만 들어도 나는 이거 실천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미래 목표예요.

8. 추가로 다시 입다연구소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보고 싶은 거... 지금 다시입다연구소 활동이 다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서

울이나 경기권 아니면 인천 이런 수도권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이 옷을 입는 거는 국적을 안 가리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체 다 입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이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지역사무소 같은 것도 차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지금은 참여자분들이 보통 20대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왔다면 이 범위도 조금 더 넓혀가고 싶고 넓혀가서 이제 뭐 그냥 연령대를 불문하고 사실 올리는 건 누구나 입으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고 참여해 보고 재밌는 경험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죠.

9. 추가로 더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추가로 해주고 싶은 말. 자기 인생은 어떻게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궁금하면 뭔가 궁금하거나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봐도 나쁘지 않다.

5. 결산

구분	내역	금액
전체 비용	식비	150,000
	교통비	30,000
	비상금	20,000

6. 움직이는 학교 소감과 평가

1) 단체 평가

다시입다연구소를 3주 동안 다니면서 느낀점은 시작한지 몇 년 안 된 단체인데도 정말 바쁘단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표님과 매니저님은 주에 1~2번쯤은 외부 출장이나 다른 단체 분들과의 소통을 하셔서 사무실에 안 계신날도 있었다. 그런데도 나를 정말 잘 챙겨주셨고 내가 할 일이 없거나 없어 보이면 계속 할 일을 주셔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다. 사소한일부터 조금은 전문적인 일 까지 다양하게 많은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다시입다연구소의 장점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정말 활발하게 할 수 있다. 21%파티는 규모가 커서 '서포터즈' 라고 불리는 21%파티를 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단점이기도 했다. 할 일이 많은 만큼 육체적으로는 힘들었다고 생각한다. 힘쓰는 일부터 머리를 쓰는 일까지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집에 오면 정말 힘들어서 쉬기만 했다. 그래도 그만큼 보람 있는 활동을 많이 한다. 직원 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하는 활동도 정말 좋아서 온 것을 후회하진 않는다. 오히려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한다.

2) 총 소감

처음 개인무빙을 어디로 갈까 찾아보던 중 다시입다연구소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처음엔 무엇을 하는 곳 이지 하는 궁금증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입다연구소의 소개와 활동을 봤다.

하는 활동을 보고 나니 막연하게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더 알아볼수록 너무 좋은 곳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연락을 드리고 자기소개서를 보내드렸다. 사실 처음 자기소개서를 보내는 단체여서 거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단체가 확정되어서 정말 기뻐다. 다시입다연구소에서 가장 참여해 보고 싶은 활동은 21%파티와 21%랩 공간이었다. 근데 정말 운 좋게 내가 가는 주에 둘 다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타이밍이 좋았고 생각한다.

첫째 주는 21%랩에서 이틀간 근무했는데 손님을 응대 하는 일이 처음이라 어색해서 잘 하지는 못 했던 것 같다. 첫날은 거의 다 21%랩 수선사분이 하시는 걸 보고 어떻게 손님응대를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외우는 시간 이었던 것 같다. 그래도 다음날 출근 했을 때 수선 사분께서 커피를 사러 가셔서 나 혼자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손님이 오셨다. 정말 떨렸지만 공간 설명을 하고 교환하는 법까지 잘 설명해서 알려드렸다. 처음 나 혼자 맞아본 손님 이였다. 개인무빙에 와서 이런 매장 비슷한 곳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할 것 이라곤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시입다연구소에선 정말 나를 배려해 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호칭을 부를 때도 동연님이라고 불러 주시고 업무도 너무 많이 맡겨주셔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맡은 업무는 정말 다양했는데 개인무빙 한 번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서 정말 좋은 시간 이였다고 생각한다. 사회를 나와서도 이렇게 많은 경험은 못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자기성장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짐 나르는 일은 진짜 힘들었다. 워크숍을 들은 것은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고 다들 비영리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이어서 실천하는 일들이 너무 좋았다.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도 해서 받은 명함이 정말 많다. 워크숍은 아무래도 내용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다. 그래도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다시입다연구소에서 3주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개인무빙이 끝났다. 개인무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아쉬울 것 없이 너무 많은 것을 잘 체험하고 가는 것 같다. 일이 많을 때는 조금 벅차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이 배워갔다고 생각한다. 다시 개인무빙을 갈 수 있다 해도 다시 갈 것이다. 그만큼 너무 좋은 곳 이였던 것 같다. 정말 다시입다연구소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박석현
퍼즐랩



1. 움직이는 학교 현장 소개

1) 단체 소개

“퍼즐랩”은 공주 원도심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 관리 회사이다. 주요 업무는 숙박업, 여행업, 교육업 경영 컨설팅업이다. 마을 안에서 개인의 자유로움과 다양성으로 생겨나는 강성에 집중하고 청년과 주민, 개인의 관심사를 연결하며 새로운 공간과 모임,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식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마을 내에서 구현하고 있다. “퍼즐랩”은 마을 내 사람들이 각자에게 맞는 다채로운 커뮤니티와 프로젝트들로 서로 연결되어, 느슨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삶은 풍요로워지고, 마을이 매력과 활기가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2) 주요 활동

날마다 멘토님이 바뀌기 때문에 날마다 다른 일들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소 가구 설치, 청소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했다.

두 번째는 퍼즐랩 사무실 1층에 있는 “크림”이란 마을 지도, 퍼즐랩 굿즈, 와인 등 다양한 것을 파는 매장에서도 근무 하였다.

세 번째는 일주일에 하나씩 퍼즐랩 공식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네 번째는 마을투어를 따라가면서 사진 촬영을 했다.

3) 정보

위치: 충남 공주시 감영길 9, 2층

현장 인원: 7명

대표: 권오상 (010-2785-5324)

2. 움직이는 학교 현장 선택 과정과 이유

개인무빙을 가기 전부터 선배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

첫 번째 진로를 더 깊게 탐구하는 목적, 두 번째는 지금 해보고 싶은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줬다. 하지만 나는 아직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를 고르지 못했고 지금 해보고 싶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단체를 확정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다 당장 하고 싶은 게 없다면 개인무빙을 통해 다양한 경험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에 맞는 주제들로 단체를 찾아보았다. 그러다 공간을 대관해줘서 뮤지컬, 작품 전시,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퍼포먼스 공간인 “윈드밀”에 지원을 하였고 확정이 되었다. 하지만 윈드밀은 지속적인 활동이 아닌 즉흥적인 활동으로 학교 규정과 맞지 않아 윈드밀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개인무빙 확정 기간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다시 개인무빙을 찾아봐야 했다. 일주일 안에 새로운 단체를 찾고 단체에게 다시 자소서를 쓸 자신이 없었다. 설령 단체를 찾아 지원을 해도 까이게 된다면 정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단체를 찾아 여러 군대에 지원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윈드밀처럼 퍼포먼스 공간은 많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을 청년마일로 간 재영이와 통화를 하다가 청년마을을 알게 되었고 청년마을이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청년마을을 가기로 결심했다. 청년마을을 알아보던 중 로컬 몬스터, 자유도, 라이프밸리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유

도를 가고 싶었지만 가고 싶은 곳보다 최대한 숙소 제공, 대중교통 등 원활할 것 같은 라이프 벨리에 지원을 하였다. 하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까이게 되고 아쉬워 할 것도 없이 자유도에 바로 지원을 했고 자유도가 받아주게 되었다.

3. 움직이는 학교 계획

1) 움직이는 학교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

첫 번째는 아직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최대한 다양한 업무를 도맡아 많은 경험을 쌓는 게 목표이고 어렵겠지만 다양한 업무 경험으로 내 진로에 대한 영향을 줄 정도의 잘 맞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학교가 아닌 처음으로 사회를 나간다는 것이다. 사회를 나가 학생이 아닌 퍼즐랩의 인턴으로써 회의에 참가하여 나의 의견을 말해보고 싶다.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2) 단체와 협의된 업무나 활동 내용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잡아주셨다. 첫 번째 주제는 마을 내에서 자신의 역할 찾기, 두 번째는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알아가기 세 번째는 마을 내 자신만의 프로젝트 기획부터 실행까지 해보기 주제들 안에 마을투어, 블로그 작성 등 세분화해서 알려주셨다.

4. 활동내용

1) 기간 및 활동 시간

- 일정: 6/12(월) ~ 6/30(금)
- 출·퇴근 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휴일: 토, 일

2) 일정

월 (6/12)	- 인사 나누기 - 마을 소개 듣기 - 대표님과 면담 - 학교 소개 ppt 작업
화 (6/13)	- 학교 소개 ppt 작업 - 학교 소개 - 마을 투어 답사 - 마을 투어 사진 촬영 - 크림 근무 - 택배 보내기
수 (6/14)	- 크림 근무

	- 블로그 작성 - 블로그 넣을 사진 촬영 - 슬로크루즈 점검
목 (6/15)	- 전체회의 - 대표님 강의 참관 - 버드나무밀, 봉황재 가구 설치
금 (6/16)	- 슬로크루즈 이불 커버 씌우기 - 우편 보내기 - 전시관 구경 - 크림 근무
월 (6/19)	- 정상쌤 방문 - 대표님과 면담 - 전체회의 - 버드나무밀 가구 설치
화 (6/20)	- 크림 근무 - 슬로크루즈 장소 기획 - 찬미님과 면담
수 (6/21)	- 블로그 작성 - 인터뷰 질문 - 발표 준비 - 전체회의 - 진서님과 면담
목 (6/22)	- 블로그 작성 - 코팅, 재본 작업 - 마을 투어 사진 촬영 - 중년마을 ot 참관
금 (6/23)	- 블로그 작성 - 전체회의 - 네트워킹 파티 준비 - 네트워킹 파티 참관 - 네트워킹 파티 뒷정리
월 (6/26)	- 버드나무밀 대청소 - 크림 근무 - 발표 준비
화 (6/27)	- 잠자기^^ - 크림 근무 - 블로그 작성 - 보고서 작성
수 (6/28)	- 한국 일보 인터뷰

	- 북 토크 - 보고서 작성 - 회식
목 (6/29)	- 보고서 작성 - 크림 근무 - 책방 구경
금 (6/30)	- 블로그 작성 - 마무리

3) 업무 내용

① 크림 업무

퍼즐랩 건물 1층에 위치한 와인과 퍼즐랩 굿즈를 판매와 마을 주민 12명을 선정해 인터뷰와 와인 추천 글과 책 등을 쉬면서 볼 수 있는 매장이다. 크림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크림 담당자 분이 매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매장에 내려가 일을 한다. 일은 보통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크림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크림에서는 혼자 있기 때문에 스피커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 수 있어서 크림을 제일 좋아했다.



② 블로그 작성

일주일 한 번씩 퍼즐랩 공식 블로그에 내가 주제를 정해 글을 올렸다. 첫 주 블로그 주제는 “고등학생 인턴의 시선으로 본 제민천” 이였고 1주일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장소를 소개하는 글을 썼다. 처음 블로그를 써봤기 때문에 살짝 어색했다. 이 주째 블로그는

도저히 쓸 주제가 생각이 안나 6월 22일, 6월 23일 있었던 일을 주제로 글을 썼다. 6월 22일은 마을투어를 하였고 23일은 네트워킹 파티를 해서 블로그에 들어갈 이야기가 많아서 수월히 썼던 기억이 난다. 마지막 삼 주째 블로그는 퍼즐랩에서 지내면서 느낀 소감들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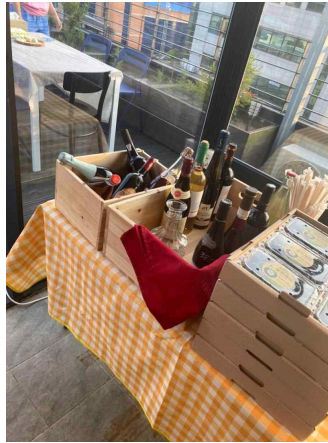
③ 숙소 정리 및 가구 조립

“퍼즐랩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라고 묻는다면 신체적으로는 숙소 정리와 가구 조립을 말할 것 같다. 퍼즐랩에서 운영하는 숙소는 한옥마을 봉황제, 게스트 하우스 버드나무빌, 슬로크루즈 이렇게 3개의 숙소가 있다. 일주일에 1~2번은 가구가 와 조립을 한다. 사실 가구 조립은 힘들진 않는데 퇴근시간과 가까운 5시쯤 가구 조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 같다. 하지만 숙소 정리는 말이 다르다. 6월 16일에 슬로크루즈 이불을 겨울 이불에서 여름 이불로 바꾸는 일을 했을 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3시간 동안 커버 벗기고 다시 씌우고 날씨도 덥고 개인무빙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6월 16일이었던 것 같다.



④ 네트워킹 파티& 와인 시음회

6월 23일 크림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마을 주민 열두 분의 추천 와인으로 마을 주민 분들을 초청해 네트워킹 파티와 와인 시음회를 진행하였다. 5시부터 파티 장소를 세팅을 진행했다. 슬로크루즈 옥상에서 했는데 햇빛이 강해서 얼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7시까지 와인 잔 닦기, 음식 준비 식탁보를 깔았다. 7시부터 사람들이 오면서 블루베리, 빵, 먹을 것 들을 많이 갖고 오셔서 원희님과 서빙을 했다. 7시 30분쯤 다 같이 돌아가면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파티가 시작되었다. 와인을 추천해주신 열두 분이 다 오시진 못했지만 몇 명분이 와주셔서 이 와인을 추천하신 이유와 현재 공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서님의 도움으로 많은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제천간디학교가 궁금하신 분들한테 학교 소개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다. 10시쯤 파티가 끝나서 뒷정리를 하고 집에 갈 수 있었다. 사실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만 오신다고 들어서 기대 안했는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부끄럼 없이 남들 앞에서 얘기를 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10시에 끝나서 피곤하단 느낌보단 재밌었던 생각을 한 것 같다.



⑤ 마을 투어

퍼즐랩에서 개인무빙하는 기간 동안 3번 진행했다. 오신 단체마다 다른데 보통은 1시에서 1시간 30분 정도 투어를 진행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찬미님이 진행하는 걸 따라다니며 사진 촬영을 했다. 처음에는 제민천 주변에 있는 에피소드를 말해주는 재밌고 아무 설명이 없으면 그냥 작은 마을을 1시간 30분 동안 말할 에피소드를 만들어 내시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 마을 투어는 현재 공주에 사시고 계신 동민님을 따라 갔다. 확실히 마을을 사시고 계시는 주민이셔서 저번 투어를 하면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셨다. 3번의 마을 투어를 하면서 든 생각은 “마을이 정말 예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 사진을 많이 안 찍는 나도 카메라를 들어 주변 사진을 찍게 하는 매력이 있는 마을이다.



⑥ 마을생활 튜토리얼

마을생활 튜토리얼은 공주에 와서 퍼즐랩이 운영하는 “자유도”라는 브랜드에서 일정을 짜서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컨셉은 중년마을이다. 첫날 중년마을 ot 시간을 참관을 해 사진을 찍었다. 다음날에는 “이퀄컨퍼니”에서 안전하게 운동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함께 운동하는 법을 배웠다. 어제 초면인 참가자분들이 친구처럼 재밌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다. 참가자분들이 학교에 궁금한 것도 물어봐 주셔서 조금은 말은 튼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5.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즐랩 대표 권오상입니다.

Q. 퍼즐랩 소개 부탁드립니다

퍼즐랩은 공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주요 사업은 숙박업, 여행업, 교육업 경영 컨설팅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퍼즐랩이 운영하는 브랜드는 마을스테이가 있고요. 자유도라는 브랜드가 대표적인데요. 마을스테이라는 브랜드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영역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자원이나 인적자원을 포함해 장소 같은 요소들을 조합해서 여행 상품으로 만들고 그것을 기

획해서 손님을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매출을 일으키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자유도라는 것은 시작은 2021년도에 청년 중심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외부에서 공주나 저희 마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역에 와서 체류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브랜드가 자유도입니다.

Q. 퍼즐랩의 시작하게 된 계기

시작은 원래 퍼즐랩은 2019년도 9월에 법인으로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전에 1년 정도는 개인 사업자로 봉황제라는 한옥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봉황제가 마을 리조트나 마을 호텔처럼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해서 봉황제라는 숙소를 퍼즐랩에서 운영하는 여러 공간이나 서비스 중에 하나로 내려가고 퍼즐랩에서 마을에 있는 공간과 자원을 연결하는 마을스테이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Q. 퍼즐랩을 하기 전 자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셨나요? or 하고 있으셨나요?

2018년에 봉황제 한옥을 오픈하기 전에는 경기도 산하에 공공기관인 경기관광공사라는 회사에서 15년 정도 일을 했는데, 주로 했던 일이 해외 마케팅입니다.

Q. 많은 지역 중에서 공주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딱히 없고요. 처가가 공주이긴 한데 그냥 우연한 기회에 봉황제라는 건물을 발견하고 매입을 하고 그다음 날에 사표를 내고 오게 된 거라서 전국 중에 어디가 내가 하려는 거와 제일 맞는 곳일까 돌아다니면서 고민을 하거나 찾는 과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Q. 퍼즐랩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무엇인가요?

글쎄요 매 순간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퍼즐랩은 어제까지는 상상에 가까운 일들을 오늘 해버리고 내일부터는 그냥 일상적인 일처럼 만드는 방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은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행사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니까 도전적으로 해서 해봤는데 잘 됐어 그러면 그다음에는 계속 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하거나 조금 더 가치의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완성도가 높아졌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도 안 하던 일이거나 혹은 이 지역에서는 안 되거나 혹은 그 계층을 대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도전해서 해보고 그다음에 개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다른 팀한테 넘긴다든지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로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은 항상 공주에 있지만 여기서 계속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행사를 꼽으라고 하면 작년 12월에 이 작은 마을에 120명이 와서 3박 4일 동안 하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나 슬로크루즈, 봉황제, 하숙마을이나 다른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숙소를 짝 다 동원해서 한 8개인가 숙소를 동원해서 120명을 다 채웠어요. 그때가 진짜로 이거는 물리적으로 수용이 안 되니까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동네 자원을 다 끌어당겨서 무리 없이 행사를 잘 치렀던 기억이 남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그런 방식에 의해서 120명이 여기서 잔다고 말도 안 돼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우리는 120명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불과 한 달 뒤에는 120명이 오는 행사가 또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기저기 찾고 전화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두 번째 올 때는 120명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Q. 참여자들의 전체적인 평가는 어떠한가요? 가장 개선해야겠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인가요?

외부 평가는 일단 되게 좋았다고 하죠. 왜냐하면 누구나 여기서는 120명이 수용되는 행사장이 없고 공간이 안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랬는데 평가는 이런 게 진짜 되네 이런 평가였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다 나쁘다 라기 보다 이제 그런 상상을 실행에 옮기는 첫 번째 팀이 퍼즐랩이었다라는 정도만으로도 저한테는 최고의 평가였죠.

개선할 점은 아무래도 사전 준비 기간을 많이 갖고 하는 게 우리 내부 구성원들이나 주변에 무리가 덜 가겠다 라는 게 있기는 한데 그거는 개선할 점을 찾은 거지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랑은 상관이 없는 거라 앞으로는 당분간은 이려고 있지 않을까요.

Q. 반대로 제일 힘들었던 모임이나 행사는 무엇인가요?

뭐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모든 것들이 예측 가능하거나 이 정도는 당연히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걸 주로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 저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는 조금 더 도전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참가자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거나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너무 과격해 그거에는 별로 참가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힘들 다면 힘든 것이지만 어쨌든 퍼즐랩에는 힘든 일은 없다.

Q. 퍼즐랩의 앞으로의 목표, 앞으로 꼭 시도해보고 싶은 일

도전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 첫 번째 조건일 수도 있는데 돈을 계속 벌어야 되기 때문이고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일을 하지만,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숙소를 운영하고 있고 투어도 유료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국에 있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매출 전환이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도전적인 일들을 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계속 같은 고민이었었는데 이렇게 오면 좋아해주고 한 번 왔던 분이 또 오고 그런 일들은 생기는데 왔다 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아니네 뭐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빨리 방을 늘려야 된다 라는 목표가 있었죠.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어느 날 갑자기 슬로크루즈를 누가 해보지 않겠냐 해서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그 뜻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어떤 기회가 올 수가 있는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회사나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거라서 올해도 이제 분명히 필요한 건 있고 당장은 해답이 없기는 한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눈에 띄는 거고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나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중기부 사업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되면 뭔가 먹을 것과 관련된 뭘 하지 않을까, 디저트 가게든 베이커리 카페든 하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Q. 진로가 없는 저에게 한마디

훨씬 더 다양한 환경에 계속 본인을 노출시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든 나의 인생을 1년을 맞춰가지고 저길 향해 돌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게 뭔지를 알고 움직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아니면 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안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일 수도 있지 특히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하는 거랑 하고 싶은 거랑은 별개인 건 알고 있죠? 나 같은 경우는 잘해보니까 뭐 좋은 것 만큼 어렵진 않네 그냥 잘하네 그중에 더 재미있거나 끌리는 것들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계속 내 자리에 지키고 있는 다고해서 갑자기 나를 끌어당기는 어떤 게 생기는 건 아니니까 일부러 더 이질적인 환경에 나를 노출해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까 다시 돌아가면 퍼즐랩은 이제 더 도전적인 걸 계속 찾아서 한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계속 뭘 찾아서 간다기보다 환경을 움직이거나 평소에 안 다니던 길로 다니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평소에 교류하지 않던 사람들과 만나거나 그럴 걸 계속 만들어요.

그랬을 때 전 허 뜬금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연결이 생기네. 나는 나랑 관계없는 어떤 영역이나 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방식이 이쪽이랑 유사하네. 그런 걸 계속 찾아가다 보면 뭐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아니면 나는 이게 연결이 가깝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보호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책이나 유튜브 아니면 다른 경험자의 말을 하는 건 되게 그 사람들만의 제한된 환경에서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 가보고 또 얘기해보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또 석현님도 그렇고 퍼즐랩도 그렇고 하는 게 뭐냐면 미지의 세계거나 적립이 안 되어 있는 세계로 일부러 더 가서 거기서 하나의 트랙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거나 할 때 우리가 이런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 정도의 결과는 나오더라 라는 거 하나를 남겨놓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답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Q.자기소개

저는 주식회사 퍼즐랩 이사 박진서라고 합니다.

공주 온지는 이제 2년이 넘어서 3년 차로 접어 들었습니다.

본가는 대구라서 공주로 이주 왔어요.

Q. 퍼즐랩에서 하는 일

제가 퍼즐랩에서 하는 일은 공간 기획 운영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고 다양한 것들 하고 있어요.

Q. 퍼즐랩에 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예전에 2021년도에 참가자로 3주 살이 프로그램을 왔었어요. 퍼즐랩이 운영하는 지역 살이 프로그램이었고 소도시 모험 로그 2기로 이제 공주를 첫 방문하게 됩니다. 3주 동안 고종 원도심 내에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고 원도심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도 진행했었어요. 그때 공주가 아직 많이 발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무언가 더 잘 될 가능성을 발견도 했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까지 대학교에서 했던 팀 과제보다 뿌듯하기도 했고 내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봤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공주에 내가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일도 많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주를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또 퍼즐랩이라는 회사에 마침 좀 큰 사업이 진행이 되던 찰나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구인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게 또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Q. 퍼즐랩을 하기 전 자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셨나요? or 하고 있으셨나요?

저는 원래 관광경영학과 전공에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관광 분야에서도 일을 해보고 싶었고 아니면 관광 분야가 안 되더라도 마케팅 일반 기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4학년 때 우연히 지역사회 기반 관광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지역사회 관광, 지역 관광 개발 쪽에 관심이 가져졌고 그러던 중 제가 학교는 서울이었고 본가는 대구인데 대구의 관광재단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관광재단에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딱 하니 붙었죠.

저는 붙은 이유는 학벌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뒷이야기를 하자면 그때 관광재단의 대표가 오상님(대표님)이 경기관광공사에 있을 때 경기관광공사 대표를 맡았던 분이었어요. 관광 쪽에서는 나름 제가 나온 학교가 유명하거든요. 인재를 알아보

셨던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는 해외관광팀에 있었고 해외 관광 마케팅을 주로 진행을 했구요. 저는 그중에서도 동남아를 맡았고 베트남, 태국 두 나라 정도한테 대구로 오라고 다양한 마케팅도 진행하고 캠페인이나 항공사랑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하고 했죠.

대신 그때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더 랜선 투어 이런 거나 아니면 좀 국내 쪽으로 돌려서 국내에 있는 와인 관광객외국인들을 잡아보고자 하는 사업들도 진행했구요. 또 관광 sns 대구 관광 sns도 운영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됐고 퇴사를 하고 또 대구관광재단이나 아니면 또 공사 쪽에 계속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퍼즐랩을 만나게 된 거죠.

Q. 진로를 관광 전문 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저는 학창시절 때 장래희망을 적으면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항상 해도 마케팅 전문가 아니면 공무원 이런 식으로 정했었는데 저도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던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혼자 대구 여행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대구 중심에 살지 않고 좀 가장자리 쪽에 살다 보니까 중심부에 시내라는 곳이 있긴 한데 쇼핑하러 가는 곳까지밖에 몰랐던 거죠. 근데 외적으로도 대구 내에서도 근대문화유산도 있고 김광석 거리도 있고 다양한 문화재들도 많고 또 서문시장이라는 되게 유명한 재래시장도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한번 여행을 떠나요. 배낭 매고 김광석 거리도 걷고 이곳저곳 걸으면서 대구도 생각보다 되게 관광이 있구나 이렇게 다니는 게 되게 좋다 라고 생각 하던 찰나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이 대안학교에서 대안 학교 학생이 쓴 책이었어요. 그분이 말하는 주요 키워드가 “길에서 배우다”였거든요. 저는 그때 마침 고등학교의 한국 교육 시스템을 정말로 경멸하던 때여서 왜 나는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상은 넓고 배울 게 많은데 길에서도 충분히 더 배울 게 많은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진로를 그때는 이제 워낙 내 시야가 좁았기 때문에 여행 상품을 만드는 여행사에 들어가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게 하는 여행 상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수학여행을 중국 상해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해외여행에 눈을 뜬 거죠. 이런 세상이 있다니 그리고 너무나도 다른 문화와 내가 처음 보지도 못했던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강보다 거기에 황ㅇ가 무슨 강인데 여튼 그 산에 있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진짜 몇 배는 더 넓어 보였고 그 규모가 규모의 압권이 되면서 이제 중국 문화도 익히고 하다 보니 더 재미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엄마 아빠는 또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많이 가려면 선생님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저도 그때 솔깃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선생님보다는 그냥 관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과를 관광 쪽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 찾아봤죠.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과를 찾다가 관광이 경희대가 그때는 가장 높았거든요.

경기대 까지는 내가 안 돼. 그다음 이제 세종대가 경기대, 한양대가 좀 거의 비슷한 급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대학 입시도 되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가게 됐고 입학사정관제라는 걸로 통해서 자소서 쓰고 면접 보고 최소 성적은 맞춰야 했지만 그걸로 들어가게 됐던 경우도 또 저희 때는 그게 있었어요. 적성 검사라는 유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성 검사에서 또 높은 점수를 받으면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최저는 또 맞춰야 되죠. 최저 등급은 그것도 그렇게 열심히 적성 검사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로도 이제 됐지만 결국엔 저는 입학 사전과제로 된 걸로 선택을 했죠. 저는 수시 6개 넣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5개를 다 관광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관광과를 가게 됐죠. 관광과를 가게 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별거 없잖아 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너무 관광과에서 배우는 학문이 관광 학문이 진짜 얄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부분 마케팅 위주의 느낌이에요. 이 관광자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예를 들어 호텔이면 이 호텔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이끌 것이냐 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영학과를 복전을 했고 경영학과는 훨씬 더 깊게 배우거든요.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재무 회계 이런 쪽이랑

법이랑 경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플러스 깊이도 훨씬 깊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도 복전을 하게 되고 그 뒤로는 앞에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과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Q. 퍼즐랩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모임이나 행사는 무엇인가요?

모임이나 행사 흠... 아무래도 작년 말에 진행했던 슬로크루즈 오프닝 행사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인상 깊고 기억에 남냐면 제가 맡았던 정말 a부터 z까지 다한 유일한 프로젝트였었고 그렇게 a부터 z까지 한 첫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을 기획하는 것부터 설계사 랑도 되고 브랜딩 하는 사람이라도 얘기해야 되고 시공사 랑도 이야기해야 하는데 나는 이제 경력도 얼마 없고 한데 그들은 다들 나이도 많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과 소통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웬지 어렵고, 무섭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 해결이 됐고 또 마지막에 이제 자체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베게 커버를 씌운다든지 그거는 너무 힘들 거든 요. 게다가 그걸 다 처음부터 세팅이니깐 다 옮겼어야 했어요. 매트리스부터 계속 옮기고 뜯고 샴푸 넣고 샴푸 새고 난리 브루스를 치다가 그때 또 다행히도 지혜님이 도와주셔서가지고 잘 끝냈습니다. 다 옮기고 나서 오픈식을 했어요. 오픈식 할 때도 제가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은 다 와주셨어요. 그 자리에 사실 너무 각자의 일로 엄청 바쁘실 텐데 그 시간 내주셔서 오셨고 그리고 시공하시는 선생님께서 맨날 시공하시니까 그냥 천조가리 입고 오시는데 그날은 드레스 코드가 블루 앤 화이트여서 제가 드레스코드로 입고 잘 갖춰서 오시라고 하니깐 그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양복을 갖춰서 오시니깐 그게 너무 감동이었고 설계사님은 여성분이시고 좀 무서운 분이셨는데 그분도 오셔서 자리를 내주셔서 한마디씩 다 제가 부탁드렸어요. 시공할 때 어땠는지 설계할 때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브랜딩할 때도 브랜딩하는 분이랑 설계하는 분이랑 좀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랜딩도 어떻게 했는지 또 브랜딩 팀은 서울에서까지도 오셔서 또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가 필요한데 먹거리는 또 미정님께서 맥주 세팅해 주시고 음식도 미정님이 다 주문해서 세팅을 해주셔서 그분에게도 고맙고 제가 아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어떻게 보면 슬로크루즈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면서 뭐랄까 내 뽐내기 자리였던 것 같아요.

Q. 반대로 제일 힘들었던 모임이나 행사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회사 들어와서 올렸던 적이 한 2~3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이 힘들어서 라기보다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조금 마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오늘 이 포스팅을 올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관여를 해서 이게 지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일을 하는데 저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내 일을 못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랬던 부분이지 생각났어요.

제일 힘들었을 때는 이제 한 9명 10명 직원들이 있다가 다 나갔어요. 그게 계약 만료일도 있었고 창업하려고 나가는 것도 있었고 그냥 자기가 다른 일을 하려고 나간 사람도 있었고 하다보니까 이제 나 혼자만 남았거든요. 나랑 오상님(대표님) 2명이서 투어랑 숙소 이런 걸 또 하고 사업 계획서도 쓰고 고군분투했던 것? 한 달 정도의 그렇게 2명이서 일을 한 거죠.

한달 정도까지는 좀 나름 참을 만했는데 이게 좀 더 하니까 진짜 나까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둘이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에는 5월 말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쉬었어요.

그냥 우리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둘이 자체적으로 쉬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지혜님이 들어왔죠. 지혜님이 들어오면서 숨통이 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진짜 그 만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건 급여였거든요. 급여를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급여로 1년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최저였어요. 사실 그 돈 가지고 내가 그 돈 받으려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까지 일을 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표님이 올려주셨죠. 나중에 사람도 들어오고 또 팬찮아져서 지금은 만족합니다.

Q. 참여자들의 전체적인 평가는 어떠한가요? 가장 개선해야겠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평가는 다들 여유롭고 조용해서 좋다는 평들이 많았고요. 대신에 체험까지는 괜찮지만 살러 온다는 건 정말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큰 마트 없는 거, 병원이 제대로 된 곳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는 거에서 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개선사항이거 제가 전에 여기에서 다니면서 또 같이 일했던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일하고 나가셨어요. 그분은 여기에 처음에 와가지고 너무 좋고 사람들도 좋다고 해서 여기서 일을 하고 본인이 하는 일도 되게 즐겁고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다양성 아니면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점들 브랜드 그리고 전시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여기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되게 크신 분이었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서울로 이적을 하셨는데 현재는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계세요. 그걸 보면서 그러한 청년들을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청년들을 여기에 좀 자주 방문하게끔 하게 하려면 조금은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다양성 자체도의 퀄리티도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지역이라서 이정도면 라는 말보다는 서울과 비교해도 이 정도는 진짜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Q. 퍼즐랩의 앞으로의 목표, 앞으로 꼭 시도해보고 싶은 일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일은 워낙 다양한 걸 많이 해 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제는 좀 더 퍼즐랩 레벨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브랜드를 밖으로 알리기 위해서 조금은 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대기업이든 그게 중견이든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 브랜드들과 함께 콜라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보고 싶네요.

6. 움직이는 학교 소감과 평가

1) 단체 평가

처음 단체에 가서 깜짝 놀랐다. 생각보다 엄청 스케일이 엄청 컸기 때문이다. 퍼즐랩에서 청년마을을 하는 줄 알고 간 거였는데 기간이 만료가 돼서 청년마을을 안한다는 말을 퍼즐랩에 가서 들었다. 사실 그때는 다른 청년마을처럼 청년들과 함께 마을을 활성화 시키는 줄 알았는데 숙박업, 여행업, 교육업으로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게 신기했다. 청년마을을 안한다고 해서 실망한 건 아니다. 나의 개인무빙 주제는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의 퍼즐랩도 좋았다. 퍼즐랩은 하루하루가 정말 바빠 보였다. 그럼에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멘토를 해주시고 궁금한 걸 물어보면 정성스럽게 설명해주는 따듯한 단체였다. 하고 싶은 것이 생겨 회사를 취직한다면 퍼즐랩 같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개인무빙을 하면서 꽤 많이 생각했다. 퍼즐랩 직원분들이 각자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멘토를 해주셨을 때 항상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 그럼 나는 개인무빙을 통해 얻고 싶은 것과 더불어 사회에 따듯함도 배웠다.

2) 자기 평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무빙이 아닌 처음으로 개인무빙을 하는 게 처음이어서 첫 출근 할 때 긴장이 됐다. 긴장 된 거와 다르게 직원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초반부터 적응을 잘한 것 같다. 부탁하신 업무도 귀찮은 기색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하지만 9시간 근무여서 그런지 6시가 점점 가까워지면 체력이 버티질 못해 일을 피하려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일하고 잘 적응한 것만으로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아쉬

운 건 두 가지 정도 있다. 첫 번째로 많은 업무를 했지만 기억에 남고 나한테 맞는 업무를 찾지 못한 거다.

솔직히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좋아 하는 일을 찾는 건 어려울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조금 아쉬웠다. 두 번째는 퇴근하고 난 뒤 일상이다. 마을이 예뻐서 산책하기도 좋고 갤러리샵도 많다고 직원분들이 알려주셨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끼니도 돈을 아끼겠다고 항상 김과 김치로만 저녁밥을 먹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집 근처 맛집도 돌아다니면서 든든하게 챙길 걸 그랬다. 이 두 가지를 빼면 후회되는 일은 없다. 퍼즐랩 정말 감사했습니다.

3) 총 소감

개인무빙 첫 출근부터 지금까지 퍼즐랩에 간 걸 후회한 적이 없다. 반대로 단체 선정 잘했다는 생각은 몇 번 했던 것 같다. 선배들은 개인무빙은 짧다고 그냥 자취하면서 놀라고 말했지만 나는 배운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배운 것을 다 글로는 담지 못하겠지만 이미 몸에는 많은 배움을 담은 것 같다. 그리고 인턴ships을 간다면 자취는 하고 싶지 않다.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서둘러 수고했다.

7. 결산

구분	내역	금액	비고
전체 비용	식비	86,060원	점심 제공
개인부담	숙박비: 1박 14,280원 X 21	300,000원	공과금 포함
		186,060원	학교지원금 -200,000원
합계	186,060원		

백늘푸른
한겨레 작은집 건축학교



1. 움직이는 학교 현장 소개

1) 단체 소개

‘한겨레 작은집 건축학교는’ 작은집 한 채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첫째 날. 바닥 판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7박8일이라는 시간 동안 작은집 한 채를 통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만드신 기수의 누군가 또는 동문 누군가에게 옮겨가 실제 사용되게 됩니다. 이미 채 50 넘는 교육용으로 지어진 집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 주요 활동

7박 8일 건축학교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작은집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자크 르 마을 관리와’ 마을에 있는 여러가지 건축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 스스로 짓는 작은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 또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정보

위치: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로15길35 현장인원 : 5명

현장 멘토 : 손정현 대표님 (010-5299-6115)

2. 움직이는 학교 현장 선택 과정과 이유

1) 진로와 관심사

관심사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딱히 없어 단체 선정 과정에서 꽤나 어려움이 있었 습니다 평소. 생활속에서 그나마 좋아했던 것들을 추려서 키워드를 짜내 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2) 시도와 경험

새로운 어딘가로 몸을 옮기거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언제나 어 색하고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했고 이도 저도 아닐 바에는 차라리 한번도 경험해보 지 못했던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작은집 건축학교’ 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 현장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시대적, 가치

‘작은집 건축학교는’ 우리의 주거공간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집은’ 상업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육체적인 고통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집을 직접 짓는 것에는 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직접. 짓는 과정에서 느끼는 뿌듯함과 완성되고 난 뒤에는 더욱 애정이 담긴 공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작은집은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자원을 훨씬 절약하며 집을 지을 수 있기때문에 지구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3. 움직이는 학교 목표와 계획

1) 움직이는 학교를 통해 내가 얻고 싶은 것

새로운 경험이니 만큼 건축학교에서 지내는 모든 순간이 배움으로 다가올 것이라 기대한다 단
기적인 경험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여기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 단체와 협의된 업무나 활동 내용

협의된 업무는 무빙 마지막주에 진행했던 건축수업 이수 정도이다 그 외에 딱히 정해진 업무
는 없었고 그날그날 단체가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진행 했다 비는. 시간이 거
의 없었기 때문에 개인프로젝트 같은 활동은 진행하지 않기로 협의 후 무빙을 진행했다.

3) 출 퇴근 시간을 포함한 업무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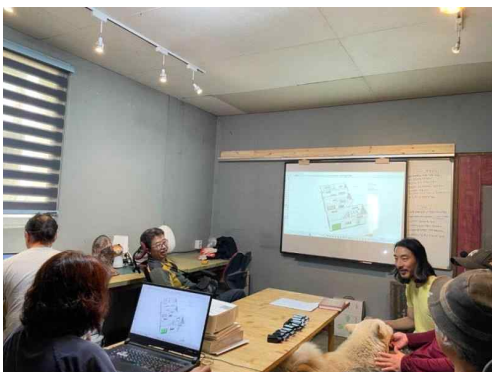
출근 : 오전 9시 (마지막 주는 오전 8시) 퇴근 : 오후 5시 (마지막주는 오후 6시 30분) - 휴일
(토일 제외) 모두 출근

업무 형태 : 날마다 오전에 출근해 오후에 퇴근하는 일근

4. 움직이는 학교 진행과정

1) 움직이는 학교

첫번째 주 한달에 한번 7박 8일로 진행하는 건축학교는 매달 마지막 주에 진행하기 때문에
나는 건축학교 시작 2주전부터 시작해서 건축학교까지 수료한 뒤 무빙을 마쳤다. 건축학교 시
작 전은 비교적 편한 업무들을 맡았다 솔직히. 첫날 대표님을 도와 건축학교 수강생들이 먹을
김치를 만들고 오후에는 할일이 없어 건축학교에서 키우는 개를 산책을 다녀올 때 까지만 해
도 앞으로도 쭉 할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다행히 한가한 날은 첫날이
마지막이었다. 그 다음날부터는 건축현장에 따라가 과정을 기록하고 조금씩 도와드렸다 슬슬
건축학교를 준비할 때가 다가오면서 건축학교 스텝 회의에 참여하고 숙소 인테리어를 위한 장
판 비슷한? 것을 만들기도 했다.



2) 움직이는 학교 두번째 주

2주차는 건축학교 일주일 정도를 남기고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수강생들 이 머물 숙소 벽을 사포질해서 얼룩을 지우는 일을 이틀에 걸쳐 마무리했다 생각. 보다 나무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 꽤나 힘들었던 작업이었다. 이 활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에 시간을 숙소 청소 점검으로, 채웠다 스텝 인원이 많지 않은 건축학교 구 조상 수업 준비와 숙소관리까지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3) 움직이는 학교 세번째 주 (건축수업)

개인무빙 마지막주에 진행했던 건축학교 수업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과 함께 내손으로 집을 지어보는 시간이었다 기초가. 되는 바닥부터 벽채를 만들고 지붕 과 전체적인 인테리어 가구, 배치 까지 7박 8일동안 설틈없이 배웠다 나를. 제외한 모든 수강생분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덕분에 일도 하면서 중간중간 앞으로 살 아가면서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인생조언 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5. 작은집 건축학교 손정현 문건호, 대표님 인터뷰

- 인터뷰 질문은 미리 짠 질문도 있지만 무빙을 진행하며 내가 새롭게 궁금한점 이나 느낀점 들을 바탕으로 추가한 질문도 포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정현대표. 님과 진행하기로 한 인터뷰는 운 좋게 문건호 대표님도 시간이 되셔서 두분 다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인터뷰 내용

1. 청년들이 작은집에 살았으면 하는 이유?

- 청년특성상 토지구입부터 건축까지 하기에 비용이 너무 큼니다. 바퀴달린집 은' 최소한에 비용토 지구매비용(절감) 으로 자신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땅만 임대한다면 집으로 가져 갈 수 있어서 1년에 1~2백만원으로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큰집 에 대한 욕심을 내려 놓으면 공간도 마음도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집에서 나올 수 도 있지만 한 사람이 거주하 기 위해 먹고 자고 씻고 할 수 있는 최소공간이 6평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시에 있다면 고 시원이지만 시골에서는 에너지 효율도 아끼며 최적한 공간 휴식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을 최소로 하기 때문에 지구를 위해서도 장점이 있음

2. 작은집이 환경에 미치는 좋은 영향은 무엇이 있나요?

친환경 자재목재는() 숲을 깎아서 관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숲을 관리할 때 오래 사용할 나 무가 3프로라면 5퍼센트를 심어 가능하면 시멘트나 철을 생산할 때 내 집이라면 목재를 지속 가능한 지구 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3. 건축학교 7박 8일 과정에서 배워갈 수 있는 것

- 건축 전반에 걸친 흐름을 살펴보고 한 공장별로 전문가가 되어보는 교육이 아니라 가볍게 전과정 을 체험해보는 과정임 전문가 양성이 아닌 일반인들이 본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주는 과정 대부분의 경우 본인 집을 지을 때 전문가에게 맡기지만 전문가에 힘을 빌리 면 결국 집에 문제 가 생겼을 때 전문가를 통해 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짓는 다면 수리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작은집. 정도를 함께 스스로 지어서 본인이 지속해서 관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

작은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중요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학교보다. 작은집 스스로. 집짓기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만날 수 있는 매체를 많이 알아봐야함 공중파 방송으로 홍보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원해서 나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나가서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은 유 튜브를 통해 본인이 직접 지을 수 있다는 근거를 계속해서 보여드리는데 중요할 것 같다

간디학교 학생들에게 하고싶은말이 있다면?

- 우리의 자녀도 간디학교 출신입니다 이곳에. 건축학교가 생긴 것도 간디학교가 이곳에 있 었기 때문 우리나라 교육 특성상 교육이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작은집은 도 시가 아닌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디학교. 학생들 역시 나중에 많은 경험을 하고 농촌과 작 은집에서 살면서 마을 을 살려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간디학교 학생들이 정착해서 살 곳이 필요할 때 본인의 집을 스스로 지을 수 있게 이런 학교에 많이 방문해 주었으면 좋겠다 업으로 하지 않아도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니 부담가지지 말고 편하게 와줬으면 한다.

6. 자신이 스스로 집을 짓는 것에 담긴 구체적 의미

- 건축학교 운영하며 처음 우리대표님의 집을 지었을 때 만족감이 컸기 때문에 생각이 들 었음 점 점 스스로 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굉장히 행복해보였음 집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성한 분이 있을 수 있음 이건 전문가가 지어도 마찬가지 하. 지만 본인이 여러 시 행착오를 거치며 집을 지으며 애정이 생기는 공간이 되고 추억이 담기는 공간이 될 수 있음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가질야 할 능력 중 주거부분은 사회적으로 상업화시 킨 부분이 다수임 복유럽등 다른 곳은 주거공간은 당연히 주어지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무 겁게 생각해야하는 부분으로 자리잡음 스스로집짓기를 통해 집을 평생 가져가야할 집으로 가 저가는 것이 아닌 의식주 그저, 필요해서 짓 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집 은 저렴하고 가볍게 행복하고 애정있게 삶은 목적 하게 공간은 가볍게 살았으면 좋겠다.

6. 움직이는 학교 평가와 소감

1) 단체평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다 하지만 실력과는 무관하게 모두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셨다 대표님의. 자제분도 간디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어떤 식으로 내가 활동해야 할지 잘 알고 계시는 듯 했다 덕분에.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 만족스럽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처음해보는 일들이었다 목공은 기술도 필요하고 계 산도 필요한 일이었다. 건강한. 신체만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했던 기대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건축수업에서 나와 같이 수료한 다른 동기분들은 하루 이틀정도 배운 뒤부터는 거진 전문가 처럼 해야 할 일들을 착착 붙여서 진행했다 경험에서 나오는 센스도 있겠지만 정말 자신의 집을 짓는것이 그분들께 얼마나 소망하는 일인지 드러나는 모습이였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이 뉘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건축학교 스텝분들과 대표님의 노력도 우리가 지은 작은집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스스로 지었으면 한다는 대표님의 바램과 신념은 나에게 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졌다 앞으로 나의 삶에서 경제적 문제와 신념이 충돌할때 대표님의 강한 뜻이 떠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직원으로. 들어갔지만 학생으로 나왔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다 내가 돕는다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단체가 하는 활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배우며 지냈다 그럼에도. 끝까지 열심히 지도해주신 스텝분들 손정현, 문건호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자기평가

여러 가지 의미로 기억에 남을 3주였다. 덕산에 거주한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작은집 건축학교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무빙을 떠났지만 돌이켜보면 마음을 더 굳게 먹었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3주동안 나를 괴롭혔다. 내 손재주가 얼마나 처참한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다. 학교에서는 학교생활에 집중하기 때 문에 미래의 대한 생각까지 하기에는 항상 피곤하고 힘들었다 하지만. 건축학교에서 배우며 앞으로의 나를 조금씩이나마 생각하게 되었다 일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뒤로 갈수록 처지는 느낌은 피할 수 없었다 내가.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는지 모두 쉬엄쉬엄 하라고 많이 배려해 주셨다 무빙을 통해 낸 결론 중 하나는 미래의 내가 이렇게 노동을 많이 요구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경험을 통해 건문을 넓히기에 더할 나위 없이 뜻깊었던 시간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하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7. 결산

- 학교 지원금 20만원

건축학교 보험료 : 26,000원

- 집에서 출퇴근하고 점심도 단체에서 제공해 주셔서 지출은 건축학교에 입교할 때 낸 보험료 정도이다.

여민지
머드스콘



1. 움직이는 학교 현장 소개

단체 이름: 머드 스콘

위치: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260, 4층 (피앤아이빌딩, 화곡동)

머드스콘은 자연 식재료로 고 식이섬유, 고 단백 스콘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이다. 영양성분이 실측된 매일 먹어도 좋은 건강한 수제 스콘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다이어터나 건강한 식단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요 소비자층이다. 머드스콘은 스콘 판매 이외에도 건강한 식생활과 재밌게 하는 운동을 모토로 하는 소통 커뮤니티 '머라클'과 식단용 농산물을 파는 '머드상회' 까지 함께 운영한다.

2. 현장 선택 과정과 이유

나는 개인무빙을 좋은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의 관심사나 진로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분야와 주제를 정하지 않고 단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의 단체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고 싶은지는 알기 어려웠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쉽게 알 수 있었다.

나는 어디가 되었든 내가 일부러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설레는 곳으로 가야 개인무빙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다. 무언갈 한정하지 않고 마음이 끌리는 곳을 찾는 것이 진로에 대해 잘 모르겠는 나에게도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여기저기 서치를 하며 단체를 찾았다. 친구들끼리 흔히 말하는 개인무빙으로 갈만한 곳, 학교 철학과 연결 지어지기 쉬운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단체를 찾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야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나는 주로 개인무빙으로 갈 수 없을 것 같더라도 끌리는 분야를 찾아보았었다. 그렇기에 단체를 서치하는데만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 점점 마음도 급해지고 당장 단체를 정해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졌다. 내가 찾아본 단체들 단체가 아니거나 현실적으로 가기 어려운 곳들이 많았다. 아까 말했던 비영리 단체나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곳에 가는 방법도 있었고 그게 당장은 쉬운 선택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개인무빙이라는 기회를 나에게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다. 별로 관심이 없는 곳은 가고 싶지 않았다. 나의 개인무빙 목표는 개인무빙이란 기회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설렘과 호기심, 모르는 것에 맞닥뜨려 보는 기분과 경험을 느끼고 싶었다. 진로와 연결 짓지 않더라도 이곳에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만 가보고 싶었다. 규모가 작아 보이고 내가 편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으로 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 힘들어야 기억에 남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나는 단체를 찾는 과정에서 큰 배움의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데에 좀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사소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었다. 개인무빙을 찾는 과정도 배움 중 하나인 것을 느꼈다.

나는 머드스콘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인스타그램으로 처음 접하게 되었다. 다른 건강 빵집 인스타그램도 많이 보았는데 머드스콘은 좀 더 눈길이 갔다. 이유는 피드에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다. 빵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닌 포토샵으로 디자인된 게시물 사진 등이 그런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팔로워 수가 꽤 많았고 온라인 판매지만 꽤 규모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제빵에 관심이 없는 나지만 머드스콘은 호기심을 유발했다. 이런 잘 팔리는 스콘 판매 회

사는 어떻게 영업할까? 꽤 세심하게 제작된 홈페이지와 인스타 피드 때문에 평범하고 흔한 빵집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다른 건강 빵집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파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머드스콘이라는 브랜드가 궁금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미지의 느낌을 받았다. 내가 여기 간다면 무엇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말이다. 잡일만 해도 좋으니, 사람들이 하는 일을 관찰하고 싶었다.

다양한 일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경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용기 내 연락을 드렸다. 톡 상담으로 연락을 넣었는데 상담원분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렸고 그렇게 자소서를 보내고 몇 차례 톡 연락을 주고받은 뒤 확정이 되었다.

3. 활동 내용

1) 출퇴근 시간

출근 9:00

퇴근 5:30

2) 머드스콘에서 나의 업무

지하는 생산실 4층이 사무실 5층이 택배 포장실이었다. 나는 주로 생산실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하였다. 생산실엔 포장실, 재료실(?), 스콘 생산실(?) 이렇게 나뉘어 있다. 직원분들은 7시부터 스콘 제작을 시작한다. 난 9시부터 일을 시작한다. 아 생산실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생산 복을 입고 머리망 모자 마스크 그리고 1분 몸 돌돌이 하기 필수이다.

학교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빵 만들었냐고 물어보는데 일단 빵을 만들진 않았다. 그곳은 대량 생산을 하는 현장이라 직원들이 각자 역할이 있고 체계적으로 일한다. 약간 공장식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스콘은 모두 수제작 한다. 이름이 머드스콘이니 스콘이 주 생산품이다. 재료실? 인지(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에서 직원들이 반죽을 주면 여러 명의 직원이 스콘 성형을 한다. 스콘 성형 방법을 첫날에 약간 배우고 해봤는데 나에게겐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느릿느릿 행동하면 안 되고 뭐 토씨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그냥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생산실에서의 모든 것이 그렇다. 도구 위치, 무엇을 하든 간에 순서, 하는 방식 등 그냥 모든 것이 말이다. 그 때문에 처음 왔으면 외워야 하고 지켜야 할 게 많다. 정말 체계적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빨리 정확히 해야 한다. 대량을 당일 발송 해야 하므로 말이다. 생산실 직원들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한다. 정말 분주하다. 15초만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 기계 같다. 하나를 끝내면 재빠르게 다른 것을 한다. 일이 반복적이다.

스콘 성형은 스킬이 좀 필요하고 외워야 할 게 많고 나 같은 초짜가 배우고 하기엔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서인지 나는 주로 포장실에서 일했다. 생산실이란 영역만 살짝 분리된 것뿐 붙어 있다. 포장실 일도 쉽지 않았다. 삼각 스콘은 기계로 포장하는데 스틱 스콘이나 다른 것은 수작업으로 포장한다. 나는 오전마다 주로 수작업 포장 일을 했던 것 같다. 포장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아니다.. 포장 자체는 쉬운데.. 똑같은 거 포장만 죽치고 하는 게 아니라서 초짜는 애를 꽤 먹는다. 설명하기가 정말 힘든데... 어 민폐 끼치기 딱 좋은 느낌? 포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라도 잘못하면 정말 큰일나는... 진짜 난 여기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긴장

을 놓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눈치 챙기겠다고 뭐 하나 했다가 잘못 만지면... 큰일이다. 나는 특히 눈치 보였던 것 중 하나가 뭐 하나 끝낼 때마다 다음에 뭐 해야 할지 직원분한테 물어봐야 했다. 직원도 바빠 보이는데 물어봐야 했다. 이곳에서 내가 일이 어려웠으려면 택배 발송을 해야 하므로 5층 택배포장실에 가서 직원들 여럿이 택배 포장을 한다. 이것 또한 정말 체계적인 것 같다. 뭐든지 신기하긴 했다.

택배 포장도 무지성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꼼꼼히 배워서 했다. 약간 여기 일이 전체적으로 난도가 높다기보단 스킬과 속도 정확성이 필요한 일이랄까. 누구든지 배우면 할 수 있지만 나 같은 느림보 어리바리 에게는 힘들었다. 나는 택배 포장도 거의 매일 했다. 2시간은 서 있어서 초반엔 진짜 힘들었다. 그리고 조금 틀릴 때마다 심장 떨어지는 것 같다. 직원들도 나한테 모든 친절히 가르쳐줘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파는 것이다 보니 지적할 때 진짜 쫓리고 무섭다... 그래서 멘탈이 좀 힘들 때도 많았다.

아무튼 가장 반복적으로 했던 일은 이 두 가지 일이었다. 이외에 직원들과 같이 잡일도 많이 하였다. 잡일이라기보단 직원들이 해야 하는 일을 같이하였다. 뭔가 소독제로 닦기, 포장지에 스티커 붙이기, 박스 접기, 요거트 면포 빨래, 설거지, 오븐, 개수대, 생산대, 철판 닦기, 스킨에 토핑 올리기. 간단한 재료 손질하기, 요거트 가루 소분하기, 종이 자르기, 무언가 나르기, 청소하기 등등 무엇이든 퇴근 시간까지 시간이 비지 않게 짹짹 채워서 했다. 내가 일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지만 사실상 있으나 없으나 일 것 같긴 하다. 직원분들은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스피드니까.

그래도 나는 모든 것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3일 정도 4층 사무실에서도 지내보았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진 않으니까 직원분 옆에 앉으면서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구경했다. 솔직히 편한 시간이었다.

사무실에 계신 직원분들은 항상 무엇을 하시나 궁금했는데 한명한명 역할과 하시는 일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좋았다. 뭔가 머드스콘에 대해 80퍼센트는 알게 된 느낌이었다.

던 이유를 설명하기가 힘든데 전체적으로 정말 단순하지 않은 개인무빙이었다.

4. 인터뷰

나는 아쉽게도 인터뷰하지 못했다. 인터뷰 질문지를 개인 무빙 중 준비할 생각이었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미루다 결국 하지 못하였다. 다른 이유도 있었다. 대표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대표님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즉석에서 질문했다. 감사하게도 대표님은 가벼운 질문에도 성심스레 대답해 주셨다. 이런 순간이 나에게도 생기는구나 싶어 정말 즐거웠다. 대표님의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나에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다. 마음 같아선 더 많이 질문하고 대표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싶었지만, 점심시간이었기에 아쉽게 끝났다. 기억하거니 싶어 적지 않았더니 지금 전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점도 아쉽다. 그렇지만 여러 질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나에게도 대표님에게도 좋은 질문이 되었을 거로 생각해 만족한다. 솔직히 귀찮은 마음에 이게 곧 인터뷰이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해서 그렇게 대표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가 개인 무빙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도 해서 생산실에서 갑자기 탈주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다

5. 결산

1) 지출내역

교통비 왕복 4000 × 15 = 60000

나머지 140000 = 식사, 간식비, 비상금, 개인 필요 용품 등

6. 움직이는 학교 소감과 평가

1) 단체 평가

모두 친절하신 분들인 것 같다. 많이 긴장하고 갔는데 다행이다. 솔직히 무서웠던 분들도 있는데 나빠서 무서운 게 아니다. 철저하고 짬이 있으신 분들이라 그런 것 같다. 무섭지만 나에게 일을 알려줄 때에는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했다. 다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게 고마웠다. 솔직히 직원분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못 했던 게 조금 아쉽지만 큰 상관없다.

직원분들끼리 사이가 좋아 보였다. 장난치시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 보인다. 이곳은 악덕스러운 직장 느낌이 전혀 없었다.

머드 스콘은 좋은 회사인 것 같다. 대표님과 대화했을 때도 느꼈다. (입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아 그리고 생산실 위생에 정말 정말 신경 쓴다. 구매자들 컴플레인도 무시하지 않는다. 원래 그런 건가. 다른 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곳은 모든 정성인 것 같다. 간식도 있어서 좋았다.

2) 총평가

개인 무빙을 하며 느꼈던 점이 정말 많은 것 같다. 어떤 것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다. 매일매 일을 편하게 살던 내가 머드 스콘에 오게 되어 천등번개 같은 3주를 보냈다 내 인생에서 꽤 임팩트 있었던 일이라는 뜻이다. 안 그래도 새로운 곳에 오게 되어 긴장되고 피곤한 상태인데 업무를 거의 서서 하므로 매일 피곤한 몸과 한 번에 2시간 가까이 되는 출퇴근길 그리고 5시 30분에 매일 기상했던 것까지 3주가 정신없고 느리면서 빠르게 흘러갔다.

일을 하며 여러 가지가 힘들어도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진 않았다. 이유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 머드 스콘에서 오게 된 것부터 머드 스콘에서의 모든 일이 나에게 배움이 되고 성장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중 힘들었기에 배울 수 있었던 점도 있었다.

개인 무빙에서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지만 내가 머드 스콘에서 처음 겪어본 여러 상황에 미숙하고 약했다. 낯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보며 나의 부족함과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마주할 수 있었다. 만약 내가 머드 스콘보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개인 무빙을 가게 됐었다면 머드 스콘에서 첫 사회생활을 하며 느꼈던 부정적인 기분들을 못 느껴보았을 것이다. 어느 곳을 가던 배움이 있기가 하겠지만 머드 스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겪어볼 수 있었고 사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첫 사회가 머드 스콘인 점도 감사하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머드 스콘은 착한 사회인 편이고 직원들도 모두 친절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쓴맛을 느껴보았기 때문이다. 나에게 개인 무빙이 없었다면 첫 사회생활 때 조금 더 고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

는 심정도 있다. 그리고 확실히 학교와 사회는 다르다는 것도 느껴보았다. 착한 직장인 어른과 착한 선생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인 것도 느껴졌다. 아무튼 미리 이런 경험을 해보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느껴보았는데 일단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린 상태로 이곳에 왔으면 난 정말... 상상하기 싫다. 정말 필사적으로 이 정도를 한 건데 작년의 나였다면 이 정도도 못했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작년보다 발전한 상태여 봤자 이 사람들에게는 그저 어리바리한 학생 수습사원으로 보인다는 게 정말 내가 어리다는 게 느껴졌다.

아 그리고 나는 어른이 되어 여기 직원분들처럼 나 같은 청소년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친절하고 안 무섭게 잘해줄 것이다.

그리고 또 느낀것은.. 난 여기 3주 이상은 못 있을 것 같았다. 끝나기 이틀 전쯤부터 몸이 너무 지쳐서.. 꽤 적응해서 마음은 편해졌긴 하는데 이젠 그만 있고 싶었다. 학교가 그리워졌다. 이틀 전쯤부터 나는 곧 나간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은 이 일을 쉬지않고 매일 계속 하신다니.. 정말 너무 피곤할 것 같았다.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직장인으로 사는 것은 힘들것 같다. 돈을 벌어야만 하는 어른은 참 힘들것 같다. 대표님도 학생때가 좋을 때라고 하셨다. 어른은 아니지만 동감한다.

이제 어느정도 소감을 다 쓴것 같다. 느낀게 많았어서 쓰고싶은 말을 다 썼을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머드스콘에게 감사하고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인턴십은 죽어도 생산에 가지 않을 것이다. 절대.

부록

평가에 넣으려고 쓰다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뺐지만 지우기 아까워서 넣는 나의 고생길—

나는 이곳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짐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어른들과 가벼운 대화, 사소한 것 모든 것을 말이다. 뭐든 과하게 신경 쓰고 눈치 보았다. 사실 나는 눈치나 센스가 좋은 편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예의 없어 보일까 봐 정말 신경 써서 행동하느라 힘들기도 했다. 모든 게 처음인 곳이라 어쩔 줄을 몰랐다. 적지만 나만의 18년 인생과.. 그동안 무의식 속 자연스럽게 쌓여온 자신감 등 나의 작은 내공은 깨끗이 사라졌다. 이곳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바리 수습사원일 뿐이었다. 어른들만 있는 곳에는 혼자 처음 지내본다. 내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체감되었다.

잘하고 싶은 마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커지니 더 뼈격거리고 내가 생각해도 평소 나 같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도 이상적인 내가 될 수 없었고 어리바리한 나 자신이 속상했다. 바쁘고 항상 정확해야 하는 현장에서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만 생각하며 지내니 작은 지적만 들어도 마음이 아팠다.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정말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아 이런 곳에서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사실이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끼옥!!!!!! 이런 말도 못 한다. 근데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바엔 눈치 많이 보는 애가 나을 듯? 아무튼 학교가 많이 그리워지는 나날들이었다.

이기범 삼각산 재미난 학교



1. 움직이는 학교 현장 소개

1) 단체 소개

삼각산 재미난 학교는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초·중 대안학교이다. '따뜻한 돌봄과 자유로운 배움이 일어나는 마을 속 학교 공동체'를 지향하며 자립과 순환의 마을 공동체와 더불어 삼각산 재미난학교의 교육적 지향을 일터인 마을에서 실천하기 위해 2011년 1월 교사와 부모를 중심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삼각산 재미난 마을'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2) 활동 내용

첫 번째로는 보조교사 활동이다. 움직이는 학교 활동 기간동안 초등학교 1학년 부터 중등까지 돌아다니며 보조교사를 했다. 여러 학년마다 다른수업에 참관하며 수업에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로는 수업 개설을 했다.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루 통째로 할 수 있는 자기활동 시간에 직접 스스로 수업을 준비해 개설해보고 진행했다.

세 번째는 야외활동 보조이다. 금요일마다 매학년이 나들이를 간다. 학생들끼리 가고싶은 곳을 정해 탐방을 한다. 야외활동을 할때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 통솔을 했다.

마지막으로 삼각산 재미난 학교 하교후 3시부터 4시30분 까지 방과후 돌봄교실 활동을 하며 돌봄교실에 남아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3) 기타

위치: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58-32

연락처 : T. 02-995-2277

현장 인원 : 선생님 13명

현장 멘토: 해피선생님(한주연 선생님) h.p 010-5285-6751

2. 움직이는 학교 현장 선택 과정과 이유

처음에 나는 관심사와 관련된 단체로 가고싶었다. 내가 잘 하는 것이나 더 깊이 배워보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면 힘들어도 내가 얻는 것이 많을 것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개인무빙 단체를 선정 할 때에 학교 가치와 맞는 단체를 가야한다는 큰 장애물이 있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좋아했던 관심사들과 우리학교가 지향하는 가치와 맞는 단체를 찾기 힘들었다.

개인무빙 주제에 대한 틀을 잡지 못하고 있었을때 정상쌤과 면담을 하며 내가 몰랐던 나의 장점을 알게되고 정상쌤과 면담을 마친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과 나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며 개인무빙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 개인무빙 때 관심사에 대해 꼭 배워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며 나에 대해 다시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대안초등학교로 정하게 되었다. 많은 대안학교중에 삼각산 재미난 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내가 다녔던 학교였기에 학생때 학교를 다니며 느끼는 점과 선생님이 되어서 학교에 갔을때 느끼는 점과 얻는 것이 분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선택하게 되었다.

3. 움직이는 학교 목표와 계획

1) 움직이는 학교를 통해 얻고 싶은 것

예전부터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활동이 많이 없었던 것 같다. 늘 내가 하고싶은대로 하지 않고 다른사람 의견에 의지하며 지냈던 것 같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 주도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대한 수업을 개설해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해보며 나의 관심사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다녔던 대안학교에서 학생이 아닌 선생님의 신분으로 지내보며 차이점을 알아보며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

2) 단체와 협의된 업무나 활동 내용

- 1학년부터 중등학년까지 보조교사
- 수요일 자기활동시간에 수업개설하기
- 야외 나들이 활동 보조
- 돌봄교실

4. 움직이는 학교 활동 내용

1) 기간 및 활동 시간

- 일정 : 6/1 (목) ~ 6/28 (수)
- 출·퇴근 시간 : 08:30 ~ 16:30
- 점심시간 : 11:30 ~ 13:00
- 휴일 토, 일, 공휴일, 개인사정

2) 일정

6월 1일 (목요일)	- 교장쌤 만남 - 6학년 보조교사 - 돌봄교실
6월 2일 (금요일)	- 3학년 보조교사 -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나들이 보조 - 돌봄교실
6월 7일 (수요일)	- 아침맞이 - 자기활동 수업 참여 - 돌봄교실
6월 8일 (목요일)	- 1학년 보조교사 - 돌봄교실
6월 9일 (금요일)	- 1,2,3학년 단체 나들이 보조 - 돌봄교실

6월 12일 (월요일)	- 6학년 보조교사 - 대표단 회의 참여 - 돌봄교실
6월 13일 (화요일)	- 중등 보조교사 - 돌봄교실
6월 16일 (금요일)	- 3학년 보조교사 - 서울특별시 교육청 과학관 나들이 - 돌봄교실
6월 19일 (월요일)	- 4,5학년 통합반 보조교사 - 대표단 회의 참여 - 돌봄교실
6월 20일 (화요일)	- 4,5학년 통합반 보조교사 - 돌봄교실
6월 21일 (수요일)	- 자기활동 수업 개설 - 돌봄교실
6월 22일 (목요일)	- 3학년 보조교사 - 아침맞이 - 돌봄교실
6월 23일 (금요일)	- 6학년 보조교사 - 노원 어린이 교통공원 나들이 보조 - 돌봄교실
6월 27일 (화요일)	- 중등 보조교사 - 돌봄교실
6월 28일 (수요일)	- 중등 보조교사 - 돌봄교실

3) 맡은 일과 업무

(1) 각 학년 보조교사

15일 동안 단체에서 짜주신 일정대로 요일마다 정해진 학년의 반에 들어가 수업을 참관하며 수업시간에 선생님 보조를 했다. 맡은 학년마다 내가 해야할일이 다 달랐던 것 같다. 저학년 반에서 보조교사 활동을 하면 모르는 것 알려주기와 수업에 집중할 수록 도와주기 있었고, 고학년은 모르는 것 도와주기가 있었다. 내가 알려준 것을 친구들이 이해하고 써먹을때 뿌듯함과 희열이 있었지만 내가 반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반에서 큰 영향

이 없었던 것 같다.

<인턴학생용>

월	화	수	목	금
			1<출근> 9:00~10:30 학교철학 10:30~ 6학년	2 6학년
5 재량휴일	6 현충일	7(자기활동) 수업진행	8 1학년	9 2학년
12 6학년	13 중등	14(자기활동) 수업진행	15 중등	16 중등
19 통합반	20 통합반	21(자기활동) 수업진행	22 3학년	23 6학년

그림 94 삼각산 재미난 학교 일정표 (어느정도 일정 변동이 있었다)



그림 95 6학년 보조교사



그림 96 1학년 보조교사

(2) 수요일 자기활동 수업개설

수요일에 진행되는 자기활동 오전시간에 우쿨렐레 수업을 진행했다.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 우쿨렐레 동아리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쿨렐레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수업 자료를 만들고 수업자료를 참고하며 우쿨렐레를 가르쳐 주었다. 수업에 참가한 친구들

중에 평소에 우쿨렐레에 관심이 없었지만 수업을 한 이유로 우쿨렐레에 관심을 갖게된 친구가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다.



그림 97 우쿨렐레 수업



그림 98 우쿨렐레 수업

(3) 야외 나들이 활동 보조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 금요일마다 있는 야외 나들이 활동 보조를 했다. 야외 나들이 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회의를 통해 정해지는 장소로 가게된다. 놀이터에 가기도 하고 수업에 관련된 곳으로 탐방을 가기도 한다.

첫째 주에는 과학시간에 배우던 생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3학년과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갔다. 생각보다 거리가 있고 사람이 많았던 지하철을 많이 탔어서 10명정도 되는 아이들을 챙기고 신경쓰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 처음해봤기에 더 그랬던 것 같다.

둘째 주에는 1,2,3학년과 같이 똑딱똑딱 놀이터에 갔다. 인원은 20명 정도 되었지만 같이 나들이에 가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아이들 통솔하기는 힘들지 않았지만 저학년 친구들이 그네를 밀어줬는데 끝없이 계속 밀어줬던 기억이 난다. 힘들고 많이 피곤했다.

셋째 주에는 과학수업 나들이로 3학년 친구들과 서울시 교육청 지하에 있는 과학관에 갔다. 어느정도 경험이 쌓이니 많이 힘들지도 않고 능숙하게 통솔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넷째 주에는 6학년과 노원 어린이교통공원에 갔다. 2학기에 기획하고 있는 자전거 여행을 위해 자전거 연습을 했다. 확실히 초등학교 최고참이라 그런지 학생을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서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



그림 99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나들이



그림 100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나들이



그림 101 똑딱똑딱 놀이터 나들이



그림 102 똑딱똑딱 놀이터 나들이



그림 103 서울시 교육청 과학관 나들이



그림 104 6학년 어린이교통공원 나들이

(4) 방과후 돌봄교실

방과후에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돌봄교실을 운영하시는 쌤을 도와 활동했다.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하교후 집에 혼자 남는 어린이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내가 할 일은 딱히 크게 없었지만 돌봄교실에 있는 친구들이 심심할 틈이 없도록 쉬지않고 같이 놀았다. 돌봄교실에 있는 친구들과 여러가지 보드게임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맨날 똑같은 보드게임만 하루종일 해서 질리기도 했지만 시간도 빨리가고 핸드폰 없이도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달을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4) 선생님 인터뷰

대안학교 교사를 하시게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백호 선생님 : 예전부터 교회에서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는 선생님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방과후에 돌봄교실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서 해봤는데 나와 너무 잘맞아서 대안학교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피 선생님 : 20012년도에 제 친구가 무지개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일자리를 찾던 도중 방과후 선생님을 하게되었고 생활 교사를 뽑는다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뽑히게 되어서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수리 선생님: 알게 된 것은 요가 명상을 하셨던 분이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였어요. 계속 대안학교 교사 권유를 받았었는데 매번 거절 하다가 서점에서 어떤 책을 읽고 대안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때 꿈이 교사이기도 했어요.

2. 많은 대안학교중에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근무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백호 선생님 : 딱히 없는데 근무하면서 대안학교를 많이 알게 되었는데 학교도 직장인만큼 채용이 되어야하는데 채용하는 타이밍이 저랑 잘 맞아서 오게되었습니다.

해피 선생님 : 1번 질문 대답과 동일합니다.

수리 선생님 : 알게되었던 분이 다녔던 분이 추천해주셔서 여기를 찾아보게되었다. 다른 학교도 찾아보았지만 저와 철학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 대안교육의 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백호 선생님 :대안교육의 장점은 있는데 대안교육이 학교마다 철학이 다르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학교는 아이들 한명한명 가지고 있는 개성과 기질을 있는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해피 선생님 :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즐거워 하게 된다는 점인것 같아요. 보통 일반 학교는 지각하면 뛰어오는데 삼각산 아이들은 늦어도 즐겁게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학교오기를 즐거워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리 선생님 : 자신이 하고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 힘들지만 이런 교육공간에서 같이 힘을 모아 키울 수 있는 것이 좋은 점 같습니다.

4. 대안학교 교사 임금이 적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계속 대안학교 교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백호 선생님 : 세상 살아가면서 임금이 전부는 아니라 생각해요. 돈을 더 많이 벌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 교사를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대안학교 교사로서 살아가는 정체성과 가치가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이지 않을테지만 어디를 가도 만족을 못할 수 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좋아서 계속 근무를 하고있어요.

해피 선생님 : 고민을 해봤는데 이 직업이 나에게 너무 매력이 있고 활력이 된다. 힘들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뿌듯함이 있고 나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일을 하면 자꾸 생각하게 될 거리를 주게되는 것 같아요.

수리 선생님 : 저의 가치관에는 돈이 원래 없었어요. 가치관은 행복이1순위였고 애들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치관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많은 갈등에 놓여있습니다.

5.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진행하셨던 수업이 있나요?

백호 선생님 : 재미난학교에서 6학년 교사를 하면서 졸업여행 교육과정을 자주 맡았던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자차로 남해안 따라서 여행했던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작년에는 10박 11일 중에 아이들이 하고싶은 자유여행을 3일정도 진행했었는데 교사로서 염가되면서 아이들을 믿었는데 아이들이 큰 문제없이 마무리해서 다행스럽고 아이들의 성장을 느껴서 좋았다.

해피 선생님 : 탈것 모임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었다. 몸이 불편했던 친구가 탈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학교에서 힘들어했을 것 같다. 그 친구가 좋아할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다가 만들게 되었고 그 안에서 여러 친구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었다. 이곳 저곳 다니며 여러가지를 타봤다. 2층버스 의정부 경전철 등등

수리 선생님 : 담임이기에 여러가지 과목을 하고있지만 과학을5년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애들이 원하는 수업 위주로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6. 대안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나요?

백호 선생님 : 여행도 기억에 많이 남고 어떤 3학년 담임이었을 적에 둘레길 완주했던 것 어느 학년 담임일때 네팔을 가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성미산과 축구를 했었는데 옛날에 2:0으로 지다가 3골 연속으로 넣었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해피 선생님 : 아이들과 여행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아이들이 노는 것이 너무 예뻐서 사진찍고 그 사진으로 앨범보는 것이 너무 좋았다. 학교 이사한 것이 너무 힘들어서 기억에 남는다.

수리 선생님 : 지금 떠오르는 것은 작년에 밖에서 잠깐 떨어져 있었는데 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이산가족 상봉하듯 달려오는 것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들이 내년에도 담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주셨던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7. 대안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백호 선생님 : 교사로 지내면서 힘들었던 일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교사를 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없으셨을때 무력감이 들며 많이 힘들었다. 지금은 지나갔으니 괜찮다.

해피 선생님 : 학교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 삼각산 아이들이 많이 전학가고 학교를 떠났을때가 힘들었다. 부모님들 사이도 좋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다.

수리 선생님 : 수업이 계획한대로 진행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았을때, 반에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다른 친구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마음도 힘들어졌습니다.

8. 대안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뿌듯했던 순간

백호 선생님 : 아이들 졸업시킬때가 뿌듯한 것 같다. 6학년 담임을 3번 연속하고있는데 해냄식을 준비하며 아이들 마다의 다른방식으로 성장한 것을 발표할때에 뿌듯 한것 같다.

해피 선생님 : 졸업생들이 학교에 와서 나랑 함께했던 추억을 기억해주고 학교를 다닌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줄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다.

수리 선생님 : 아이들이 나를 인정해줄 때 아이들이 좋아해주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내가 바란대로 성장했을 때.

9. 대안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무엇을 얻으실 수 있으셨나요?

백호 선생님 : 개인적으로 스스로 몰랐던 나의 내면에 모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유롭게 생활하고 혼자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아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행복한 것 처럼 내가 좋아하는 등산,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대안학교에서 일을 하며 체력을 얻을 수 있었다.

해피 선생님 : 나의 가치관을 다시 점검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여러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것 같다.

수리 선생님 :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내 인생에 너무 중요했던 것 같다. 원래 엄청 개인주의적이었는데 공동체생활을 하다보니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10. 삼각산 재미난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수업 또는 교육과정이 무엇인가요? 그 이유도 말해주세요.

백호 선생님 :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여행이 좋은 것 같다. 내 생각에는 학교마다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중등까지 학교에 다녔다고 치면 1년에 3번씩이니깐 27번을 여행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친구들하고. 어디가도 그만큼 여행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여행을 어디로 갈지 직접 스스로 정하는 것이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서로 갖춰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다. 학교에서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수업으로 시간표를 채우는 학교 교육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해피 선생님 :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대안학교에 꽃은 여행이라 생각한다. 초등학교에서 여행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 생각한다. 1학년 부터 6학년 까지 여행을 다니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 같다.

수리 선생님 : 미술이 좋은 것 같다. 제가 직접 미술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과 같이할때 너무 좋은 것 같다. 아이들의 창의적인 그림을 보면 나의 틀이 깨지는 것을 느낄때가 있는 것 같다.

11. 삼각산 재미난 학교 친구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백호 선생님 : 매일매일 학교를 가고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만큼 학교가 아이들에게 행복한 공간이고 이곳에 오면 안전하고 즐겁단 마음이 매일매일 들었으면 좋겠다. 꼭 건강했으면 좋겠다.

해피 선생님 : 저는 행동말고 말로 먼저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리지 말고 말로하자.

수리 선생님 : 저랑 함께 있었던 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내며 느꼈던 정서, 즐거움을 기억해서 다른사람에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받은 것과 얻을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 움직이는 학교 평가

1) 단체 평가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 갔을때 교사분들이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잘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고 직접 찾아와주셔서 힘든 것 없냐고 물어봐 주셨다. 덕분에 방황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대안학교 교사분들의 따뜻함 덕분에 화목한 분위기 안에서 인턴활동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2) 자기 평가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 가기전에 기대보다 긴장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대안학교 인턴교사였기에 교사라는 역할이 부담되기도 하며 걱정이 많이 되었다. 학생이 학생을 가르쳐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주제를 넘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 가보니 생각보다 초등학생들이 더 어려보이고 착해서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저학년에게 수업을 보조를하며 수업에 대해 알려줄때 별 생각이 없었지만 중등이나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수업에 대해 알려줄 때는 나랑 나이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데 이래도 괜찮은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것으로 인해 고학년과 중등반에 들어가 보조교사를 할때에는 과감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던 것 같다.

3) 총평

학교에서 큰사람들을 보다가 초등학생들을 보니까 체구도 작고 순수해서 귀여웠던 것 같다. 개인무빙을 가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었고 사실 내 관심사나 미래 진로와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평소에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해본 것 같아 좋았다. 대안초등학교 보조교사를 하며 아이들과 지내며 15일이라는 시간동안 순수한 마음을 갖고 아이들과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삼각산 재미난학교를 다녔을 때에 그냥 재밌는 놀이만 같던 수업들이 절때 재미만 있는 수업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냥 놀이같았던 수업들안에 보이지 않는 학교의 교육목표가 담긴 알찬 수업이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턴활동 경험을 통해 생각보다 대안초등학교 교사도 나랑 잘 맞겠다는 생각이들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나눌 수 있었던 것 시간이었던 것 같다.

7. 결산

구분	내역 (식비, 교통비)	금액
전체 비용	식비 : 하루 5,000원 X 15일	75,000원
	교통비	21,000원
총 지출	75,000원 + 21,000원	96,000원

이룡수
성미산학교



1. 단체 소개

성미산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56-13

멘토 선생님 : 오필선 선생님

연락처 : 010-2526-9819

1) 성미산학교

성미산학교는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 학교이다. 마을학교이자 생
태학교이자 도시형 학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미산학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 속
에서 잘 융화되어 살아가는, 서로 다른의 차이를 인정하고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하는 학교이다.

통합학교이기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다.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인 학생들도 있다. 장
애가 있는 학생들에겐 선생님 한 분이 멘토링을 하신다. 성미산학교는 공강 시간이 없다. 인
력이 부족한 만큼 시간이 벌 때는 다른 선생님들 수업에 지원을 나간다. 장애가 있는 학생을
멘토링하거나 느린 학습자인 친구들이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단체 선정이유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헤맸다. 내가 이 주제를 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단체를 갔을 때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던 와중, 정상쌤의
추천으로 초등대안학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처음엔 버리학교에 가보고 싶었지만 사정상 불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셔서 고민하던 중, 정상쌤
의 추천으로 성미산학교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알아보다 보니 성미산학교에 가고 싶은 이
유가 생겼다.

첫 번째는 ‘12년제 대안학교’라는 것이 끌렸다. 12년제 대안학교는 어떤 운영 방식과 교육 과
정이 존재하는지 궁금하였다. 3년제 대안학교는 친구가 다녀서 어떤 운영 방식과 교육 과정이
존재하는지 알고 있다. 6년제 대안학교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간디학교여서 딱히 궁금하진
않다. 직접 경험해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2년제 대안학교는 성미산학교를 알기 전까지
는 몰랐다. 초등 저학년 과정부터 고등 과정까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했다. 나에겐 12년제
대안학교가 생소하였기에 운영 방식과 교육 과정이 궁금해졌다.

두 번째는 성미산학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길러나가는 과정이 궁금했다. 성미산학교와 제
천간디학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길러나가는 과정의 차이점이 궁금하였고, 이러한 차이점에
서 배운 점들을 나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길러나가는 과정을 성장시키고 싶었다.

세 번째는 수업 진행이다. 나는 어린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좋아한다. 이번 개인무빙을 초등대안학교로 감으로써 어린 친구들과 같이 지내
기로 되었으니 이 기회에 어린 친구들을 가르쳐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그렇기에 가능하
다면 이번 기회에 어린 친구들을 가르쳐보고 싶다.

네 번째는 어린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나만의 강점 발견하기이다. 내가 어린 친구들과 함께

놓고 가르치는 과정속에서 나 스스로가 어린 친구들과 어떤 과정을 통해 관계를 맺는지를 발견하고 싶다. 어린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나만의 강점을 발견하여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다섯 번째는 성미산 학교가 통합학교라는 점이다. 통합학교라는 것은 12년제 대안학교보다도 생소하였다. 그렇기에 통합학교가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그리고 평소 길거리에 나가보면 장애인들을 보기가 힘들다.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그 이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또,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였다.

2. 움직이는 학교 목표와 계획

1) 움직이는 학교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

12년제 대안학교의 운영 방식과 교육 과정

성미산학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식

어린 친구들을 가르쳐보는 시간

어린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나만의 강점 발견

통합학교에 대한 지식

2) 움직이는 학교를 시작하기 전 계획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 정리

3. 진행 과정

1) 출, 퇴근 시간을 포함한 업무 형태

6월 7일 ~ 6월 23일

월, 수, 금요일은 9시 출근, 5시 퇴근 / 화, 목요일은 10시 출근, 6시 퇴근 (하루 8시간 근무)

2) 업무 활동

(1) 수업 지원

주로 느린 학습자인 학생 옆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수업이 잘 진행되도록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2) 방과 후 활동 (돌봄교실)

방과 후 활동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바로 집으로 못가는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다가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제 할 일이 다 끝나는 4시 쯤, 퇴근 시간 전까지 남아서 방과 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간식을 잘 먹고 뒤통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이들과 책을 읽는 활동, 보드게임, 술래잡기 등 아이들과 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수업 참관

성미산학교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내가 궁금했었던 점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수업을 참관하면서 해소되었던 나의 궁금증, 개인무빙을 진행하면서 내가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다.

4. 움직이는 학교 평가

1) 단체 평가

전체적으로 좋았다. 선생님들도 잘 챙겨주셨고, 아이들도 나랑 잘 융화되어 지냈다. 원래는 성미산학교에 프로젝트 수업에 좀 더 관심이 있었는데 성미산학교에 가서 직접 체험해보니까 통합 교육에 관심이 생겼다. 일단 학교의 분위기,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장애인은 자신과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장애인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하는 일도 없다. 오히려 챙겨주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 아이들 덕분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쉬웠던 것 같다. 성미산학교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아서 좋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공간시간도 없고,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에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별로 없었다. 선생님과 교류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2) 자기 평가

이번 개인무빙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거리낌없이 대하여야 했는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더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특별 대우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다. 이것이 좀 아쉬웠고, 앞서 말했듯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아무래도 내가 낮을 가리다보니 먼저 다가와 주셔도 밀어내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도 성미산학교에 개인무빙을 감으로써 통합 교육에 관심이 가고 장애인의 인권에도 관심이 갔다. 그래서 통합 교육과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 또, 내가 성미산학교에서 이루려고 했던 목적들을 다 이룬 것 같아서 좋았다.

5. 결산

지원금 : 200,000

식비 : $6,000 \times 13 = 78,000$

교통비 : $1,120 \times 13 = 14,560$

총 : $200,000 - 92,560 = 107,440$

학교에서 식비를 내면 점심을 제공해주어서 집에서 출, 퇴근을 하였기에 식비와 차비만 들어서 지원금 200,000원에서 107,440원이 남았다.

이채영
시타북빠



1. 움직이는 학교 현장 소개

1) 단체 소개

시타북빠는 문학평론가, 패션기획자, 타이포그래피스트 등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디자인한 시집 중심 북 스튜디오 카페이다. 책방을 넘어서 북클럽, 재즈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제주의 문화적 거점을 목표로 두고있다.

2) 주요 활동

첫 번째로는 오픈 준비가 있다. 아침 근무자가 맡아서 하며 화장실, 홀, 주방 청소 및 책장 정리(먼지털기)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음료 제조다. 책방에 찾아오신 손님들이 음료를 주문하시면 주문에 맞게 음료를 제조한다. 주로 커피, 구좌 당근주스, 제주 레몬에이드 등을 만든다.

세 번째는 책 판매이다. 카운터에서 책을 결제하고, 미등록된 상품(책)은 포스기에 등록한다.

마지막은 판매할 디저트 만들기다. (베이킹 스텝만 해당) 정해진 요일에 카페에서 판매할 디저트들을 직접 만든다. 구좌 당근케이크, 우도 땅콩마들렌 등이 있다.

3) 정보

위치: 제주 제주시 구좌읍 평대13길 44 1층

현장 인원: 11명

현장 멘토: 함돈균 대표님(010-3589-1418)

2. 움직이는 학교 현장 선택 이유

1) 현장 선택 이유

나는 개인무빙은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로에 관련된 곳으로 가고싶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진로는 베이커리 카페 쪽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베이커리만 하는 곳으로는 가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에 어떤 분야를 연결시켜야 할지 고민하던 중, 내가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책이 떠올랐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끼워서 같이 경험하면 하나만 하는 것보다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베이커리 카페&책방으로 잡게 되었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단체를 찾아보던 중 부모님한테 제주 시타북빠를 추천받게 되었다. 인스타그램으로도 몇 번 봤던 곳이고 얘기도 많이 들어서 관심이 갔다.

좀 더 알아보니 정말 내가 원하는 베이커리, 카페, 책이 다 갖춰져 있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부모님이 아는 곳이다 보니 보다 안전하게 내가 꿈꾸는 일이 실제로 사회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더 깊숙한 곳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이 나에게는 큰 메리트가 다가왔다. 비록 제주라는 먼 곳에 있지만, 경험을 쌓기에는 이곳이 제일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단체를 최종 현장으로 정하게 되었다.

3. 움직이는 학교 목표와 활동계획

1) 움직이는 학교 목표

첫 번째는 진로 탐색이다. 아무래도 내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곳으로 가는것만큼 직접 경험을 쌓아보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살펴보며 나의 미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고 싶다.

두 번째는 책과 가까워지기다. 나는 중학교 올라왔을 때부터 책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서 어스새 지금은 거의 읽지 않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책방에서 일하면 내 의지가 아니어도 한 달 내내 계속 책을 접해야 하니 전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있다.

세 번째는 사람 만나기이다. 사실 학교에 오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밖에서 손님, 같이 일하는 스텝분들, 사장님 등등의 다른 사람들을 접하고 대화도 해보면서 나의 생각, 인간관계도 확장 시켜보고 너무 내성적인 나의 성격도 개선시켜 보고싶다.

2) 활동계획

업무 내용은 (근무표, 포지션 등) 제주로 가기 전 미리 대표님께 전달받았다.
카페 스텝으로 근무하며 청소, 빨래 등을 했다.

3) 근무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 4일근무 (화요일은 전체 휴무) 근무표를 짜주셔서 적혀있는대로 근무했다.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근무시간: 아침근무 8:30~12:00/ 점심근무 12:00~17:00/ 저녁근무 17:00~ 22:00

4. 움직이는 학교 진행과정

맡은 업무

카페 스텝

주로 음료를 제조하는 카페 스텝을 맡았다. 상황에 따라 청소, 책 판매, 윗층 스테이 손님 안내 등등의 업무도 추가로 했다. 내 진로가 베이커리 카페 쪽이어서 정말 열심히 배우고 만들었는데, 기초 정도는 다질 수 있었지만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안계셔서 실전에서 경험을 많이 쌓아보지 못한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카페 스텝이 근무하는 곳>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들>

베이킹 스텝

정식으로 맡은 업무는 아니었지만 카페 스텝 근무 중 시간이 날 때 스콘 등의 디저트를 구워서 카운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사장님이 재료를 지원해주셔서 일하는 동안 계속 연구하며 레시피도 보완하는 등 많은 경험을 쌓았고,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스텝분들, 손님들께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다.





<만든 디저트들(애플파이, 플레인스콘)>

5. 계획과 달라진 것

계획에서 벗어나는 업무는 없었고, 추가된 일정은 몇 번 있었다.

첫 번째로는 제주 풀무질에서 열리는 책 모임 참여였다. 제주 풀무질은 17학번 김동현오빠가 개인무빙을 진행했던 인문학 서적 중심 독립서점이다. 마침 내가 일하는 곳과 풀무질이 걸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제주에 온 다음 날 방문했는데 책방 대표님이 <대범한 밥상>이라는 책을 읽고 6월 26일에 열리는 책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해주셔서 톡톡이 그 책을 읽은 후 저녁에 열리는 책 모임에 참여했다. 책 모임에는 처음 참여해봤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다 보니 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각자의 시선에 따라 해석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대화를 하다보니 조금씩 풀려서 다른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시타북빠에서 열린 <사물의 철학> 책 모임이었다. <사물의 철학>은 시타북빠의 대표님이신 함돈균 님이 쓰신 책인데, 대표님을 만나러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 사이에 섞여 모임에 함께 참여했다. <사물의 철학>은 끝까지 읽어오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작가와 함께하는 북 토크도 처음 와봤고, 게다가 그 작가님이 내가 일하는 곳의 대표님이라는게 신기했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어서 몸은 조금 무거웠지만, 사람들과 대화하고 내 생각을 나누는 것이 즐겁게 느껴져서 별로 피곤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사물의 철학 책모임>

6. 인터뷰

대표님을 인터뷰 해야 하는데 대표님의 제주 복귀가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서 거의 다시 육지로 돌아가기 직전에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을 학교에서 짜서 왔는데, 지내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생기고 생각도 많이 바뀌어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질문을 어느정도 바꿔서 진행했다. 인터뷰를 하며 준비해온 질문 외에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다.

시타북빠 인터뷰

1번 질문: 시타북빠가 생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주 지역에 있는 여행 트렌드 중에 책방이 있어요. 요즘 많이들 하시는 얘기 중에 보면 서점은 없어지는데 책방은 생겨난다는 말이 있어요.

서점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책들이 들어와 있는데 작은 책방(독립서점)은 호스트(책방주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취향을 반영해서 책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문학평론가였는데 특히 시 비평을 많이 해왔거든요. 여행과 시는 참 잘 어울려요. 평소에는 잘 읽지 않는 장르지만 시라는 게 우리가 다른 풍경을 보러 다니는 것이 여행이라고 하면 시는 정신을,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는 정신적인 여행이에요.

이 구좌라는 지역에는 삶의 전환이라던가 새로운 생각 같은 걸 모색하는 여행객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취향을 반영한 시 중심의 책방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책방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책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열기도 하는 이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을 만들게 됐어요.

2번 질문: 시타북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호스트라는 게 제일 큰 강점이죠 ㅎㅎㅎ 호스트가 글을 쓰는 작가잖아요. 제가 작가로써 가지고 있는 성격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있죠. 다 제가 컬렉트 한 책들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책을 좀 많이 읽어본 분들도 시타북빠에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여기가 뭐 책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책의 수준이 되게 좋고 색깔도 다양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결론은 책방 호스트가 작가라는 것과 여기에 오면 작가와 대화도 해볼 수 있고, 그 작가의 관점이 반영된 빛깔을 가지고 있는 큐레이팅 된 책이 있다는 게 우리 책방의 가장 큰 특징이자 빛깔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질문: 시타북빠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사실 모든 책방들이 겪고 있는 일인데.. 일단 책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여가 시간들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보는데다 많이 쏟고 특히 요즘 OTT(넷플릭스) 서비스가 발달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유튜브로 시작했다가 자기전에는 OTT 서비스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또 한국인들은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중고등학생때나 이렇게 한창 책 읽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해야 할 때.. 계속 책을 보는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입시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경험밖에 없다 보니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읽고 이런거 자체가 너무 낯선거예요.

대부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이것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책을 보는 인구도 점점 줄고.. 게다가 책이 상품으로서의 수익성이 엄청 적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책 사업같은 경우는 면세 사업이에요. 수익률이 너무 낮기때문에 세금을 매길 수조차 없는거예요.

참 이게.. 지역에서 책방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낭만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낭만을 가지고 책방을 연건 아니지만 실제로 맞닥뜨려서 경험을 해보니까 책방을 운영하면서 그 매출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의 책방들이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늘 염려가 되고 이런 고민들을 책방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바깥 같아요.

4번 질문: 시타북빠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여기서 갖게 되는 보람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일이 수익성은 거의 없는 일이지만 참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타북빠는 제주에 있잖아요.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제주라는 섬에 있기때문에.. 제주에 오는 여행객들은 마음이 되게 많이 열린 상태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대화도 허심탄회하게 하시고, 외국 여행지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요. 우리도 외국 여행을 가면 서로 금방 친해지거든요. 도시에서는 뭐 여관에서 만나다던지 가게에서 만나다던지 해서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잘 친해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주에 오시는 분들끼리는 되게 쉽게 친해지세요.

특히 시타북빠는 호스트와 가까운 곳에 테이블을 놓았어요. 이제 여기에 앉아서 맥주라도 한 잔 하시려고 앉으시는 분들은 자기 얘기를 엄청 솔직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인생에서 겪고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상이나.. 전망에 대해 얘기하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저한테 작가로서의 멘토링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친구가 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자 최대의 수확인 것 같아요.

5번 질문: 시타북빠에 있는 책들 중 가장 좋아하시는 책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다기보다는... 이곳에는 몇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시타북빠는 말 그대로 시와 타이포그래피. 이렇게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다른 책들도 있지만 우리가 중심적으로 가져오는 장르는 시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책 장르 중에서는 시집

이 제일 아끼는 장르죠.

그래서 가끔 책을 추천해달라는 손님들께는 보통 시집을 먼저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타북빠에서 좀 좋아하는 작가들이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가분들은~ 4년전에 돌아가신 문학평론가 황현산 선생님의 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존 버거라고 아주 뛰어난 에세이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의 책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6번 질문: 시타북빠 카페의 메뉴 중 가장 좋아하시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 지역이 구좌다 보니 구좌 당근케이크를 많이 추천 드리고,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케이크도 참 맛있더라구요. 제가 달달한 걸 좋아하거든요.

커피 중에서는 제가 이름을 붙인 시그니처 메뉴인 시라떼를 좋아합니다.

(시라떼- 헤이즐넛 향 크림을 올린 아인슈페너!)

7번 질문: 이곳의 천장에 많이 새겨져있는 타이포그래피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지?

-김수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한국의 작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이고, 영향도 많이 받은 시인이거든요.

김수영 시인의 시 7편을 천장에 새겨놓은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포그래피스트 안 마노 디자이너에게 '나는 시의 사원을 만드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시의 문장을 줄테니 이걸로 시의 사원에 걸맞게끔 디자인 해달라고 요청드렸더니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 전통 기와에 있는 무늬처럼

글자를 디자인해주셨어요.

8번 질문: 책에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정보화라는 게.. 특히 시각 미디어. 디지털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접하는 시대잖아요. 이 미디어라는 게 사람의 시각을 홀릭하게 만들거든요.

전부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사람들이.. 온 지구인들이 그것만 보고있는데 이 책같은 문자 매체는 이것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영상 매체는 그 영상의 정보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뇌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자 매체는 정신을 온전히 집중해야 읽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집중해서 읽어내는 것을 더 이상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신집중 훈련을 할 수 있는게 문자 매체거든요. 그래서 책은 아무리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한다 해도 놓지 말아야해요.

우리의 정신 사유 능력을 개발하고 깊이 사색하는 데에는 결국 책이 최고거든요. 앞으로는 책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희귀해지겠죠.

벌써 희귀해졌죠. 수준 있는 사유를 하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르는 데는 책이 정말 좋아요.

멋있어 보이고 싶다면 책을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 질문: 제일 기억에 남는 손님은 어떤 분인가요?

-기억에 남는 손님이라.. 많은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을 말해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 살고 계세요. 근데 그 분이 어느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던 날 딱 방문을 하셨어요.

책방에서 시집 한 권과 철학책 한 권을 사 가셨는데, 그때 사간 책이 황병승의 육체쇼와 전집이라는 시집하고 스피노자의 윤리학 강의 책이었어요.

그게 사실 좀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에 관심이 많으시냐고 물었더니 '네 저 책 좋아해요. 우리 동네에 책방이 생겨서 좋아요.' 하시는거예요.

그때 엄청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인스타그램에도 오늘의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올렸었어요.

1년 남짓의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선명해요.

10번 질문: 시타북빠를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시타북빠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여기는 시의 사원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책방 자체가 시집을 판매를 중점으로 두는게 아니라 시의 정신을 중심으로 놓은 책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라는 건 풍경을 보는게 여행인 것처럼 시는 우리의 정신을 일상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주거든요. 정신의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게 시예요.

상투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 좀 더 차원이 높거나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자기 인생의 전환을 모색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이

이 책방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제 바램이 담겨있어요.

7. 움직이는 학교 평가

1) 단체 평가

일단 처음 갔을 때부터 다시 육지로 돌아올 때까지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정말 잘해주셨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점차 친해지면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챙겨주셔서 죄송할 정도였다. 생활하는 숙소와 일하는 곳이 한 건물에 있었는데, 두 곳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

또 책방, 카페, 스테이가 합쳐진 공간이다보니 일할 때 스테이 손님들이 많이 내려오셨는데, 스테이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모르던 것도 알게되고 생각지 못한 인연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다만 대표님이 예정보다 늦게 내려오셔서 오랫동안 뵙지는 못했다는 게 살짝 아쉬움으로 남는다. 끼니도 다 챙겨주시고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일은 할 만한지 계속 신경써주신

스테이 사장님께도 감사하고, 일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내려와서 계속 말 걸어주시고 일하는 것도 도와주신 같이 근무하던 스텝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

2) 자기 평가

부모님과 학교의 품을 벗어나 처음으로 세상에 나가본다는 생각에 기대도 되고 걱정도 참 많이 했었다. 심지어 육지가 아닌 제주로 한 달동안 나 혼자 가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 두렵게 느껴졌던 것 같다. 그래도 와서 일을 하다보니 같이 일하는 분들도, 사장님도, 동네 주민 분들도 다 너무 좋은 분들이시고 나를 잘 챙겨주셔서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다. 일에 적응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알려주셔서 생각보다 빨리 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좋은 분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더 잘해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다.

일을 하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안 계셔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특히 주로 저녁근무를 해서 더 그랬었던 것 같다. 많이 오시면 8~9분 정도, 정말 없을때는 한 분도 안오신 적도 많았다. 그렇다 보니 근무를 하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점점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내가 상상하는 베이커리 카페에서의 일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또 책방에 있으니 책을 많이 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근무할 때는 조금씩 읽었지만 퇴근하고 방에 돌아와서는 책은 커녕 잠을 자기도 바빴다.

그렇게 내 꿈이 점점 꺾여나가고 있을 즈음, 손님 몇 분을 만났다.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재학중인 분도 계셨고, 대안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많이 만났다. 같이 일하는 분 중에도 대안학교를 나오신 분이 계셨다. 그런 분들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내가 하고있었던 미래에 관한 걱정도 조금씩 덜 수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도 희미하게나마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휴무날에는 제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해보기도 했는데, 혼자서 버스를 타고 제주를 여행하는 기분은 정말 좋았다. 해수욕장도 가보고, 숲도 가봤다. 관광지가 아닌 정말 제주도 그 자체를 온몸으로 느끼고 온 것 같다.

일도 재밌었지만, 특히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도 이곳에서 사람들과 나눴던 이야기들, 함께했던 기억은 항상 지니고 살아갈 것 같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4주동안 이것저것 열심히 해왔던 나에게도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다.

8. 결산

식비가 예상 금액보다 덜 나왔고, 교통비도 예상 금액보다 적었다.

숙박비 0원

식비 11만원

교통비 10만원

비상금 5만원

=총 26만원(자부담 6만원)

임소은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한 DOGO 온천마을’



1. 움직이는 학교 주제

‘간디에서의 배움을 사회에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싶었다. 좋아하는 것(취미)은 많았지만 그것을 진지하게 배워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말 그대로 좋아하는 것이었지 진로로 삼고 싶은 것이 아니었으니까.

원하는 것을 찾기 전에 ‘4년 동안 학교에서 뭘 배웠는가?, 내가 가장 많이 얻은 것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봤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인간관계. 즉 ‘함께하는 삶’이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렵고 지겨웠지만 그만큼 좋은 것도 많았다. 4년 동안 간디인들과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하고, 마을과 더불어 살아가는 활동 등 여러 경험을 하며 인생은 절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공동체가 주요 가치로 굳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울 차례다. 지난 4년간의 배움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와 관련된 일을 연관 지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간디에서의 배움을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개인무빙이라는 교육과정을 통해 그동안 추구해온 ‘공동체’라는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곳에서 경험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2. 움직이는 학교 현장 선택 과정과 이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었다. 젊음과 공동체가 공존하는 청년마을로 알아보았다. 전국에 수많은 청년마을이 있었지만 ‘온어스’에 가겠다고 결정한 건 어떤 영상 때문이었다. 도고 ON AIR 채널에 올라와 있는 최낙원대표님의 인터뷰 영상이었다. 온어스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마을을 만들면서 우리가 의도한 것은 무엇이였는지와 관련된 영상이었다. 온어스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며 생각하였다. 그동안 추구하던 공동체라는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곳이 ‘온어스’라는 것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일을 마친 시간에도 같이 삶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가치와 맞다고 판단되었다. 이곳이라면 사회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3. 움직이는 학교 목표와 계획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을 알아보면서 내가 살고있는 덕산면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마을을 살리자’는 부분에서 크게 공감되었고, 로컬, 마을과 함께하는(마을학교), 호호장(플프마켓) 등 여러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청년들이 함께하는 도고면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마을을 만들어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 많은 것들이 궁금해졌다. 온어스 조합원과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만나며 경험을 듣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기획해서 큰 성과를 이루고 간다는 느낌보단 3주간 잔잔하게 머물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 또한 오랜기간 동안 늘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생활을 해 새로운 사람이 어려워진 낮가림도 고치고 싶다.

이곳에서의 경험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삶을 살게 될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하며 갔다.

4. 움직이는 학교 현장 소개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214 도고상사

전화 : 0507-1396-0274 / 이메일(최낙원대표님) : paradise2348@naver.com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는 문화기획·디자인·인테리어·환경교육·사진·영상·공연·축제 등 다양한 업종의 청년 기업들이 모여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일하고, 퇴근 후 함께 밥을 먹고,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을이 된다면 어떨까? 우리의 재능으로 지역을 변화시킨다면, 공존과 상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인구소멸 위기 지역 도고면을 청년마을로, 무엇이든 시도하고 살아보는 도고를 만들고자 한다.

1) 온어스 이름 뜻

온어스 이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on earth. 이 세상에 함께하는 사람들라는 의미와 아산 청년 기업 대표들이라는 특징이 있어 기업 대표들의 모임, 'owner'들이 모임이라는 'owners'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2) 온어스가 만들어진 계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목적을 갖고 만들게 되었다. 같이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고라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꿈꾸던 그림은 아이들을 같이 응원시키고 일 이 마친 시간에도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꿈꾸고 있다.

3) 주요활동

거점 공간과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도고라는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 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DOGO온천마을, 도고에서 노을자, 인프라 조성 등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3-1) DOGO온천마을

온어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DOGO온천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행한다.

마을의 슬로건은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이 행복한 마을’이다. 이런 모토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든다. 제로웨이스트, 마을 살기, 취향 탐구, 휴식 등 따듯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름만 마을인 것이 아닌 우리가 마을이 되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다.

먼저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3박 4일 동안 도고를 경험하고 같이 일함으로써 공동체 의식도 키우고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도전하는 청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고에서 같이 일하고 쉬고 살 수 있는 동료들을 발굴해 내고 있다. 도너지 하우스라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지역 살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제공한다.



그림 110 도너지하우스 현관문

4) 그 외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을 통해서 도고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은 온어스 식구들이 직접 공사한 공간이므로 ‘도고상사’라고 부른다. 도고상사 말고도 도너지굴이라는 사무공간이 있다. 이곳은 협동조합 그려, 디자인 온도, 온어스 3개의 회사가 모여있는 사무실이다.

도고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도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않는 구 도고온천역 레일바이크 광장에서 로컬 아티스트들과 함께, 지역 내에 핸드메이드 셀러분들과 함께 공연이 있는 플프마켓을 운영한다. 작년하계 매달 마지막 주마다 활발하게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



그림 111 온어스 사무실



그림 112 도더지굴 외관

5. 움직이는 학교 활동 내용

1) 기간 및 업무

근무 기간 : 6/5~6/23

근무 시간 : 10:00~18:00

근무 요일 : 주 5일 (휴일 : 토, 일)

6월 5일 (월)	6월 6일 (화)	6월 7일 (수)	6월 8일 (목)	6월 9일 (금)	6월 10일 (토)
- 온어스 전체회의 참여 - 대표님과 면담	현충일	- 인터뷰 질문짜기 (유정, 진배) - 대표님 따라 미팅 (토비스콘도)	- 취향살이_일상 편 회의	- 참가자 인터뷰 질문지 짜기	- 도고에서 노을자 (요가 / 18시)
6월 12일 (월)	6월 13일 (화)	6월 14일 (수)	6월 15일 (목)	6월 16일 (금)	6월 17일 (토)
- 정상쌤 오는 날 - 온어스 전체회의 참여 - 유정, 진배님 인터뷰	- 취향살이_일상 편 - 인터뷰 녹취짜기 - 국민통합위원 회, 청년특별위원 회, 지역의회 현장방문	- 대화상자 - 참가자 인터뷰 - 카드뉴스 제작	- 세계꽃식물원 탐방 (구근개기) - 참가자 인터뷰 - 별관측 (22시) - 대정님 인터뷰 - 대화상자	- 취향살이_일상 편 오전 일정만 참여 - 전시발표회 (13시 / by.대표님)	- 노을 영화제 (20시~22시)
6월 19일 (월)	6월 20일 (화)	6월 21일 (수)	6월 22일 (목)	6월 23일 (금)	무빙 끝!
- 온어스 전체회의 참여 - 인턴일지 2편	- 낙원대표님 인터뷰 질문짜기	- 낙원대표님 인터뷰 - 3주 동안의	- 인턴일지 3편 스토리 제작	- 인턴일지 3편 제작 - 집 가는 날	

제작	- 취향살이_도고 담다 입소식 - 녹취따기	배움 정리			
----	-------------------------------	-------	--	--	--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주로 도더지굴에서 개인 작업(인터뷰, 인턴일지, 녹취정리 등)과 프로그램 스텝을 하였다. 1일차에 대표님과 면담을 할 때 콘텐츠 기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해 주셨지만 3주라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안만 받고 진행하진 않았다.

[회의]

매주 월요일에 있는 온어스 전체회의에 총 3번 참여하였다. 6월은 특히 프로그램이 많이 몰려있었기에 매주 논의할 안건이 많았다. 주로 취향살이 일상편, 도고담다, 도고에서 노을자 등 프로그램 진행 상황 공유와 방문 알림이 주된 논의 거리였다.

학교에서 하던 회의와 크게 다를 것은 없었지만 차이점이 있었다면 계획대로 진행됐던 것이 달랐던 거 같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듯 보였다.

전체회의 말고 취향살이 일상편 회의에도 참여를 했다. 길잡이로 함께하게 되어서 마지막 점검하는 회의에서 내가 할 일과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 직접 의견을 말하며 회의에 빠져들진 않았지만 사회에서 진행하는 회의를 직접 눈으로 보며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림 113 영웨이브에서 회의하는 모습

[DOGO온천마을]

● 도고에서 노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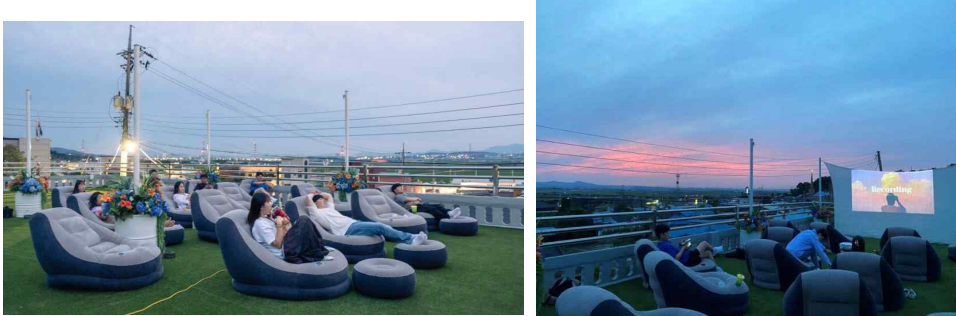
도고면은 노을 지는 저녁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을 지는 석양을 보며 몸과 마음을 요가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진다. 요가를 마친 이후 무알콜 칵테일을 만들고 간식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네트워킹 파티도 진행하여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간다.



● 노을 영화제

도고에서 노을자와 비슷한 노을 영화제도 진행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진다. 팝콘과 음료를 제공하여 눈과 귀와 입을 배부르게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상영한 영화는 '꾸뻔씨의 행복여행'이다. 함께 행복을 찾는 도고마을과 어울리는 영화였다.



● 취향살이 일상편

취향살이 <일상편>은 지속 가능한 시골형 제로웨이스트를 배워보는 3박 4일 지역살이 프로그램이다. 원래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진행하려 했던 프로그램이지만 완전 무결에 대한 검열이 있었기에 말로만 제로웨이스트인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시골형 제로웨이스트를 중심으로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배워보고자 일상편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가끔 찾아오는 행운보다 내 곁에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기 위함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프로그램 일정 중 자유 활동이 많았기에 3박 4일 동안 내가 크게 할 일은 없었다. 오전 오후 대화상자, 세계꽃식물원 구근 캐기, 별관측 외에는 다른 일정이 없었다.



그림 122 세계꽃식물원
탐방



그림 125 구근캐기 작
업 중인 참가자



그림 126 도고성당에서 별관측하는
모습

● 취향살이 사진편, 도고 담다

취향살이<도고 담다>는 나를 도고에, 도고를 카메라로 담아보는 3박 4일 지역살이 프로그램이다.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는 사람, 사물을 보는 자기만의 시선이 있는 사람, 내가 찍은 사진을 종종 들춰보는 사람, 한적한 시골 마을 ‘도고’가 궁금한 사람이라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길잡이로 함께한 것은 아니고 간단한 일정에 참여하는 정도였다.

●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지역의회 방문

지난 13일에 방문회를 하였다.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현수막도 준비하고 영웨이브 대관도 하였다. 최낙원대표님의 DOGO온천마을 설명을 듣고 간담회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온어스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고 말하니 관심을 갖고 질문도 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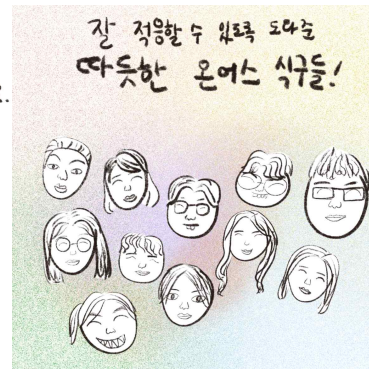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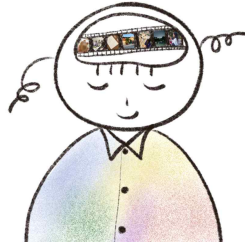


[인턴일지]

원래 계획 되어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표님의 제안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1주차 여긴 어디? 나는 누구?, 2주차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3주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로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고 3주 동안 도고에서 느낀 것을 담은 인턴일지를 제작하였다. 총 3편으로 DOGO온천 인스타그램에 연재되었다.

인턴일지 EP.1 여긴 어디? 나는누?

길게 느껴졌던 3주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니
그동안 읽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6. 인터뷰

무빙을 시작하기 전 내가 고민하던 공동체라는 것을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청년마을 즉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으로 간 것이다. 이곳에 생활하고 있는 온어스 조합원들에게는 어떻게 공동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공동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드리고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주요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사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등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질문도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후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지에 관한 구성으로 되어있다.

온어스 조합원 4명, 취향살이 일상편 참가자 6명. 총 10명에게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 인터뷰는 요약한 내용이다.)

온어스 조합원

● 온어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온어스와 함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좌측은 최낙원대표님, 우측은 조합원 질문이다.)

최낙원대표님 :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목적을 갖고 만들게 되었어요. 저희가 꿈꾸는 이상은 같이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도고라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요. 저희가 꿈꾸던 그림은 아이들을 같이 등원시키고 일을 마친 시간에도 같이 삶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정님 : 원래는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그때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유정이가 청년위원회 활동하면서 이런 게 재밌고,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 깃수 청년위원회에 지원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만남 유정, 저, 진영이 그리고 다른 분들 해서 환경동아리를 만들게 됐고 어쩌다 보니 온어스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유정님 : 진배님이랑 비슷하게 아산시 청년위원회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시작은 환경동아리였어요. 청년위원회에서 만난 진배님이나 오랫동안 봐온 다정, 친구들이랑 이런 거 해보자 해서 동아리로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저희 같은 친구들이 각자 '그려'나 '온도' 이런 분들끼리 모이게 되었어요. 그중에서도 좀 더 마음 맞는 친구들이 우리 진짜 이제 청년 마을이라는 거를 도전을 해보자 해서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가 된 거고 그때 온양실험실도 합류해서 자연스럽게 온어스의 일원으로 일을 하게 된 거죠.

진배님 : 제가 그 당시에 서울에서 나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름 재밌고 일도 힘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고향에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창업을 해서 혼자서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혼자서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지루하고 심심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청년 참여기구라는 게 막 시작될 때쯤이었어요. 그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강유정 김다정 이런 친구들과 협동조합 온양실험실을 또 만들게 된 거죠.

● 지금까지 온어스에서 주최한 프로그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그 활동을 통해 어떤 발전이 있었나요?

최낙원대표님 : 작년에 진행했던 지역살이 1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1기 때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했고 온어스가 모두 참여하는 한 달 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그전까지는 서로 알고 친하기는 했지만 같이 살아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팀을 이뤄서 프로젝트도 해 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걸 토대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온어스 자체가 되게 단단해진 것 같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했을 때도 단단한 멤버십을 가지고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공동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드리고 있고 왜 공동체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최낙원대표님 : 공동체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안에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나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로 바뀌었는데 이게 또 새로운 사회 문제들을 계속 얘기하는 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 마을 단위 정이 기술 기반의 시대에서 오히려 역행해서 그런 마을이나 공동체가 지금에 있어서 더 가치를 발휘하고 필요한 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다정님 : 일단 공동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혼자라면 절대 하지 못할 일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사진으로 창업을 하게 된 거든 저렇게 공간을 준비하게 된 게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일 적인 거 말고도 저는 되게 사적인 부분에서도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유정님 :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나는 분명 1인 구멍가게 사장이 꿈이었는데 어찌다가 협동조합에 협동조합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어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경험을 하다보니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는 것도 알았고 마을을 이루는 거는 혼자서 못하는 거여서 마을을 꿈꾸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성이 있고 존중이 되느냐는 그 공동체의 역량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랑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의도한 게 아니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 차려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진배님 :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돈을 하는 일보다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얻는 기쁨이 있으면 제가 그걸 통해서 뭔가 조금 돈을 덜 벌어도 상관없다. 대신 공동체 생활이든 제가 하는 법인이든 거기서 최소한의 체제 유지 비중 더 많이 있어 어떻게 보면 좀 철없는 거기도 하고.

● 취향살이 도고 담다, 취향살이 일상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정님(도고 담다) :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계절의 도구를 담아보고 싶다'는 게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작년 한 달 살이 프로그램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나뻐다기 보단 조합이 안 좋았던 거 같아요. 사람은 변수가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엮어보자,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뭐라도 나한테 남는 거를 한 번 기획해보자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유정님(일상편) : 이번에 제일 신경 쓴 게 시골형 제로웨이스트를 찾는 걸 관찰하는 거. 도고에서 살아보니까 어른들은 이미 제로웨이스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있는 물건으로 쓰고 없으면 붙여 쓰고 아니면 갖다 붙여서 쓰고 원래 목적이 아니더라도 아다리가 맞으면 갖다 끼워 쓰고. 어르신들은 제로웨이스트가 일상이니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관찰하며 배워보자라는 그 시골형 제로웨이스트를 한번 트라이 해보자 해서 일상편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제로웨이스트를 지향을 하되 타이틀에 거는 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정면적인 표현은 뻔 거고 그렇게 해서 3박 4일 일상편을 하게 된 거죠.

● 취향살이 도고 담다, 취향살이 일상편 프로그램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다정님(도고 담다) : 자유롭게 촬영 다니고 편집을 하고 해서 마지막 날에 그 사진을 제출하면 '나는 이런 사진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어요'를 각자 얘기하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퇴소하는 정말 간단한 3박 4일을 보낼 거예요.

유정님(일상편) : 제가 주제를 던지고 참가자분들이 그걸 찾아다니는 그런 자율적인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대부분 짰어요. 오전 오후 대화상자랑 식물원 가는 거랑 별관측 그런 거 빼고는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3편을 진행해서 책을 만들 계획이에요.

●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정님(도고 담다) : 저희의 목적은 도구에 서 3박 4일 동안 지금 계절에 도구에 무엇이든지 촬영을 하고 각자의 사진 5장 이상씩을 모아서 한 기수당 사진집 하나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유정님(일상편) : 3박 4일 전후에 참가자들의 변화를 알고 싶었어요. 여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서 이 팀이 어떤 것을 만들어낼까 이게 사실 저에게도 약간 타인에 의한 미션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면서는 이 사람들이 3박 4일 동안 발견한 것들로 정말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 생활 방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가 그게 저는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찾고 싶은 거예요.

프로그램 참가자

● 취향살이 일상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영님 : 원래 귀농 귀촌이나 제로웨이스트나 생태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 취지가 제 관심사랑 관련이 많은 것 같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요즘 좀 휴식을 하고 싶어서 찾은 것도 있어요.

가현님 : 세상을 배우고 관심사의 저변을 넓혀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일단 관심을 무조건 확장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여행처럼 계속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기존의 것들을 보고 그리고 또 변화하니까 세상이 변하는 세상에 발맞춰 살고 싶어요.

선재님 : 지방 살이나 여튼 지역 살이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제주 살이도 있고 다른 여기 아는 지역 살이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깊이 당장 농촌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경험 혹은 가벼운 여행에 가까운 마음일 것 같고요.

아영님 : 도시 소음에 많이 피로감을 느꼈고 버겁다고 느끼기 시작하니까 이제 작은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로운 삶과 거리가 멀고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게 사는 거 같아서 그래서 도시를 떠나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딱 적당한 길이에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서 그리고 프로그램도 봤었는데 별 관측하는 이런 것들 너무 좋았고 뻥뻥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좋았고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채영님 : 쉬려고 왔어요.

햇별님 : 거의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았거든요. 가면 갈수록 서울이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이 아닌 곳으로 떠나야겠다.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서 제가 시골살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틀 전까지는 함양에 있었고 여기도 기회가 돼서 오게 되었어요.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남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영님 : 젊은 사람들이 귀농 귀촌을 했을 때 어떤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지 궁금했는데 그런 힌트를 좀 얻고 싶어요.

가현님 : 진짜 배우려고 왔어요. 그냥 사소한 거 하나라도 휴지도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 3박 4일이라는 기간이 주워졌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기회와 배움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때도 뭔가 계속 떠올리면서 기억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얻어가고 싶은 거 같아요.

선재님 : 대학교 졸업하고서 취직을 하려고 할 때 뭘 할지를 구체적으로 안 정해서 그런 거를 고민하고 싶었어요. 뭔가 탐색하는 과정의 일정으로 경험을 더 넓히고 싶어요.

아영님 : 여기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막 식물 관찰하고 그냥 풍경 감상하고 했던 그 뭔가 일련의 행동들을 도시에서도 계속 이어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채영님 : 휴식이 가치가 있구나를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쉬면 도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극단적인 생각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일이 주워지면 워커홀릭에 가깝지 게으른 타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걸 아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햇별님 : 지금은 제가 지금 또래 여성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하루밖에 안 봤는데 벌써 정말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듣고 나도 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냥 그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공통질문

● 지금 하는 일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발전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며 그걸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최낙원대표님 :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한 조금의 자극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향 자체가 뭔가 다른 사람과 뭔가를 함께 하고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그런 네트워크 망을 만드는 거가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하는 일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것들을 같이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

할 때 기쁘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다정님 : 회사 다닐 때는 제가 부품같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업무 분담이 잘 되어있고 큰 회사니까 언제든지 제 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사실 일이 저한테 어떤 의미를 가진 라고 할 때 한 단어로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발전하는 게 곧 나의 일이나 이런 거의 발전이고 내 일이 발전하는 게 내가 발전하는 거다 라는 그런 게 있고 가끔 진짜 재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엄청 힘들 때도 있지만 가끔 진짜 뽕 차오르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그 성취감에 진짜 어쩔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생겨요.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해요.

유정님 : 환경과 관련된 일은 관심 있고 자연 좋아하고 그러긴 했는데 환경 보호 이런 쪽으로 완전히 직업을 틀게 된 이유는 이 문제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나?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냥 무시가 안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환경적인 거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업보를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조금 중요해요. 그 외에는 협동조합이든 온어스든 하게 된 건 우연이에요. 보통 각자 꿈이 있잖아요 저는 1인 구멍가게 사장이 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를 주최 하게 된 거는 제가 막 계획해서 다음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다음에는 뭐 해야지 라는 계획이 있던 거는 아니에요.

진배님 :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개인이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어떤 사회를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의미였고 그거를 저는 저같이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는 할 수 있구나.

가영님 : 일단 적성에 잘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직업이라는 건 개인의 가치관이 가장 잘 반영되는 것 같아요.

가현님 : 이런 것들의 의미는 내가 앞으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것인지 어떤 대화를 할 것인지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것.

선재님 : 지금 그냥 근황을 친구들이랑 서로 만나서 나누면 저의 근황은 토익 공부랑 주짓수랑 크게는 그렇게 두 개 밖에 없거든요. 크게 두 가지 일상. 그냥 관심 있어서 했다가 너무 재미있게 하고있는 일상이고 그렇습니다.

아영님 : 헤헤 낄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으니까 처음 졸업하고 취직할 때 일을 구하게 될 때 그런 노력을 많이 안 했어요. 다음 직업은 조금 더 되게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으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이 결국 저를 계속 제 모습을 계속 찾아가게 하니까 그게 좀 뽕족해지면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영님 : 지금 할 일은 쉬는 건데 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걸 자꾸 놓치고 있어서 기억하려고 쉬고 있는 것 같고, 잘 쉬는 법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는 거를 알았어요. 거기에 저도 포함된다는 거를 살면서 깨닫게 돼서 잘 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겠단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쉬는 방법을 탐구해보고 연습해 보는 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햇별님 : 저는 비건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하잖아요.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이거든요. 사실 비건도 그렇고 페미니스트도 그렇고 되게 가시화가 아직도 많이 안 된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그래서 사실 이 말을 했을 때 많은 안 좋은 말을 듣기도 하고 편견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 건 제가 이런 사람이고 제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맥락에서 저는 이거를

일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 가치관을 뒤로 한 채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그거는 나와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 **살면서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최낙원대표님 : 나 혼자만의 무언가를 뭔가가 잘 되었을 때 행복감보다 같이 나눴을 때 행복감이 되게 큰 것 같고 그 가치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그런 온어스 구성원 자체가 공통점이 어떻게 이거를 계속해나갈 수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공통점이 삶의 지향성이 좀 결이 잘 맞다고 생각해요.

다정님 : 저는 서로의 신뢰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뢰가 없으면 사실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어떤 것이든 간에 신뢰가 깨지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나면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그냥 단순하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요.

유정님 : 진짜 진짜 완전 다양성이예요. 진짜 그것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요. 다양성을 지키고 싶고 원래 서울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아산에 계속 남기로 마음먹은 것도 서울이나 대도시의 다양성이 부러워서 우리 로컬에서 내가 한 번 그런 일을 해봐야겠다. 대단한 사명감이 아니라 그냥 나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라는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그런 다양성을 가지려고 시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한 달 살이 안에서 그런 걸 시도를 조금 많이 하려고 했어요. 질문을 던졌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긴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다양성을 좀 갖추고 싶어서 많은 노력했던 거 같아요.

진배님 : 솔직히 지키고 싶은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확고한 가치가 있어서 '아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이건 내가 변하지 않고 가져가겠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다 뭐든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저는 지키고 싶은 게 제가 틀렸다는 걸 항상 인정하고 있는 게 오히려 지키고 싶은 가치예요. 틀릴 수 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가영님 :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직업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을 주는 거 생태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서 유기견이나 생태 관련 제로 에스트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현님 :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3개예요. 소통이랑 존중하는 거랑 배움인데요. 다양한 사람 만나서 배우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소통을 하고 점점 더 나 혼자 배우는 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 뭐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 배움을 쌓아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더 잘 알고 존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선재님 : 단어로 나열된 가치관 같은 거를 봤을 때 가장 좋아하는 거 두 개가 평화랑 행복이거든요. 평화는 그냥 뭐 크게 봤을 때는 세계 평화 그리고 작게 봤을 때는 그냥 이어피스 같은 내 머릿속 안에서 마음 안에서 정리되는 평화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행복은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오늘 행복해야 되고 내일 행복해야 되고. 직장을 가져도 행복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으로 뒀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아영님 : 거창하게 생각나는 건 없고 엄청난 신념을 갖고 사는 건 아니라서 그냥 제 미래를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낭만 같은 거 챙기면서 그러니까 각박하게 찾아도 잠깐은 아니면 한 달 뻥 세계 살았다. 그다음에는 잠깐이라도 이렇게 쉬어가면서 낭만 챙기다가 좋아하는 거 보고 찾아다니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채영님 : 지키고 싶은 가치는 거의 변함없이 항상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사랑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기도 하고 맞는 것도 같아요. 사랑은 사랑 하나지만 그 사랑을 이루거나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인내나 아니면 배려 존중 이해. 복합적인 거를 담고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랑을 완성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지키고 싶은 가치관인데 노력하고 있는 거는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

햇별님 : 제가 여러 가지 가치관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제 궁극적인 가치관은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지금 제가 어른이 된 지 너무 한참 됐지만 좋은 어른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좋은 어른이라는 게 뭐냐고 생각하면 우선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어른들을 존중하는 사람인데 저는 나이주의가 강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막대하고 반말하고 그들이 충분히 욕구가 있는 존재라는 걸 망각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제가 청소년기 때 진짜 많이 만났고 그래서 내가 저렇게는 안 늙어야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 지금의 본인을 있게 해준 것 같은, 살면서 가장 잃어버리기 싫은 혹은 기억나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최낙원대표님 : 가정환경이 되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엄마가 ‘뭔가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 돼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떠한 것이 있을 때 항상 나누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 같고 자연스럽게 뭔가 기쁜 게 있고 나눌 게 있으면 편안하게 나누고 하는 것이 좋고 재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지금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다정님 : 이런저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버겁고 힘들었는데 그걸 지켜보던 주변의 언니가 “다정아 네가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해도 되고 우리는 네가 나한테 뭘 해줘서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너라서 좋은 거야.”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 말 듣고 눈물 왈칵.

그때 깨달았죠. 내가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하고 이거를 타인한테 뭔가 해줌으로써 이거를 정말 충족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뭘 해주는 거를 굳이 바라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게 되게 큰 전환점이라고 해야 하나? 자신을 좀 지키면서 적당히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돼서 그게 정말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유정님 : 첫 번째는 서울에서 했던 대회 활동들이었 것 같아요. 거기서 불공평함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재밌고 ‘서울 짱 재밌어. 짱이야. 난 서울에서 살 거야’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거 좀 불공평한데?’라고 딱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느낌을 느끼게 된 순간 왜 맨날 지방 사람들은 뒤를 쫓아야 되지?

두 번째는 진짜 애증의 한 달 살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공적 이해와 사적 이해가 충돌한다는 걸 한 달 사이에서 느꼈거든요.

마지막은 저희 강아지들 데리고 온 거. 유리랑 컵 데리고 온 게 진짜 무한한 애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대가 없는 애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랑해요.

진배님 : 눈이 나쁘지만 걸어 다닐 때 안경을 잘 안 쓰고 그냥 걸어 다녀요. 길을 몰라서 멀리 있는 분한테 길을 물어보려고 인사했는데 외국인. 동남아 여성분에게 제가 길을 물어본 거죠. 저희 동네였

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그분한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아차 잘못 물어봤다 라고 했는데 기양 물어봤는데 할 말도 없고 괜히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기쁘게 생각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순간이거든요. 항상 얘기하는 순간. 뭐랄까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 같고 되게 인상 깊었던 순간 중에 하나예요.

가영님 : 제일 처음 그런 여행을 해봤던 게 20대 초반에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을 해봤었어요. 손님들이 거의 30대 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 했던 게 기억에 남았고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뭔가 후회가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하고 싶은 걸 다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고 싶은걸 다 했고 그래서 지금은 후회가 없어요.

가현님 :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휴식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 초등학교 때 진짜 도서관에서 살아서 사서 아주머니가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진짜 무색하게 너무 그냥 찌든 삶을 살다가 그냥 저 스스로도 일단 내가 이것 약간 깨야겠다 생각한 것도 솔직히 스스로 약간 기특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 싫은 경험이고 진행 중이고 계속은 못하겠지만 그냥 배운 걸 소행으로 이제 나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환점이다.

선재님 :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좋은 경험을 많이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다른 반들은 다 롯데월드 놀러 가자고 얘기할 때 저희는 38장 갈래 그런 지역장 갈래 그렇게 제안해 주시고 좀 특별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율타리가 되어 주시니까 그 안에 모인 친구들이랑 저도 그에 맞게 약간 그게 모양새를 맞춰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영님 : 딱 특정한 계기는 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영국에 워킹홀리데이로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그냥 하고 싶은 걸 많이 찾아다니고 그냥 좋아하는 거 맨날 다니고 약간 그랬던 시절. 풍부한 제 정체성 같은 걸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친 것 같고 왜냐하면 주변에 다른 친구들 보면 나는 좋아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되게 신기하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냥 그런 걸 보면 좋아하는 걸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영님 : 나쁜 일들은 기억하려고 안 해도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행복한 순간들은 ‘나쁜 일이 뭐가 있었어?’ 얘기하는 것보다 ‘행복한 순간이 뭐가 있었어?’ 하면 짚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 기억이 바로 나 이랬는데, 나 이때 너무 행복했어.’ 이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더 곱씹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햇별님 : 하나는 잃어버리고 싶은 기억이고요. 하나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기억인데 맞닿아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한 10년 정도 가정폭력이 있는 곳에서 자랐고 그 경험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자 제 표지판 같은 경험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 가해자처럼 살지 않겠다는 확실한 그런 사상이 생겼고 덕분에 저는 그 가해자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건 진짜 자신할 수 있는 거 같아요.

● 사회를 맞이하기 전인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최낙원대표님 :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달려가는 것보다는 달리기 전에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에 대한 목표점을 잘 고민을 하고 굳이 막 열심히 남들보다 뛰어서 갈 필요는 없고 때로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는데 그 목표를 잘 세웠으면 좋겠다.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잘 고민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정님 : 삶에 정해진 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느낌이나면 20살 때는 뭘 해야되고 25살에 뭘 해야 되고 30살 전에는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인생 망해 약간 이런. 실제로 온어스 안에 사람들만 봐도 한 개의 길만 걸어온 사람이 없거든요. 다 여기저기 거쳤다 온 사람이고 사회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기준에 안 맞았으면 좋겠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범죄가 아닌 이상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정님 : 일단 한국 여자는 검열을 덜 해도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하고 싶은 거만 하면서 살 수 없어라고 하잖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걸 해야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성공이나 뭐냐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왜냐면 어차피 지구는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남은 세계만이라도 하고 싶은 걸 해야됩니다.

진배님 : 솔직히 그냥 부러워요. 남들 고등학교 때는 해볼 수 없는 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더 많이.

가영님 : 뭐든지 똑같은 걸 겪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연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들을 건 듣고 고를 건 거르고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현님 : 이미 너무 잘 하고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뭐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해볼까 해서 갔다고 했잖아요. 언니들이 했는데 내가 굳이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근데 언니의 삶은 언니의 삶인 거고 소은님의 삶은 소은님의 삶인 거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재님 : 경험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 성격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경험의 의미도 있지만 지나쳐 봤을 때 툴립 구근처럼 겨울에는 싹이 없지만 봄에 피어나듯이 언젠가는 피어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것처럼 차곡차곡 잔잔하게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영님 : 되는 길을 알려주는 건 어렵고 그냥 엄청 다운됐을 때 엄청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시기가 됐을 때. 그럴 때 너무 당연한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연습. 그거 하면 살짝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더라 정도? 그리고 낭만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나 장소가 있으면 계속 거기에 데려다 놓으세요. 자신을.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채영님 : 하고 싶은 것 중에 우리는 자꾸 안 될 이유를 찾잖아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생각이 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엄청 강했어서 머리로는 이미 0부터 10까지 다 해봤어. 근데 사실 0에서 끝나는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시작도 안 해봤던 거. 근데 하고 후회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햇별님 : 사회는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에요. 그걸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세상은 나쁜 곳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나쁜 일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정말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7. 움직이는 학교 소감

1) 단체 평가

마을이 서쪽에 위치 해있어 석양 지는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고 따듯한 사람이 가득한 마을이라는 소개에 맞게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따듯했다.

개인무빙을 통해 아산시 도고면을 처음 알게 되었다. 도고 상사, 도터지굴, 도터지하우스 건물이 깔끔했다. 친구만큼 편안한 단체 내 분위기도 화목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는 청년 마을로 무엇이든 시도하고 도전한다.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한다.

온어스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그려, 협동조합 온양실험실, 디자인 온도, 인테리어,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업종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우리 학교의 집행부와 같다고 이해하면 편하다.

움직이는 학교를 진행한 6월에는 프로그램이 몰려있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보진 못했지만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 많은 프로그램 중 주말에 진행했던 도고에서 노을자와 노을 영화제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 지역살이 프로그램은 내가 참여자가 아니었기에 깊게 빠져들지 못하였고 도고의 아름다움을 짧은 시간 내에 느낄 수 있던 순간이었다.

무빙 첫날 최낙원 대표님과 면담할 때 기획해보는 것이 어떠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었다. 하지만 내가 새로운 곳에 와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실행하기엔 3주라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진행하지 않았다. 그만큼 나에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표님의 개인 일정도 따라다니며 도움을 주셨다. 최낙원 대표님뿐만 아니라 온어스 식구 모두가 나를 잘 챙겨주셨다.

단체 내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좋았다. 아산시 청년위원회부터 시작된 인연이 약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니 친구같은 보다 더한, 말 그대로 가족같은 분위기였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내고있는 듯하다.

청년마을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과 진득하게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살이 프로그램은 당연하고 도고에서 노을자 같은 프로그램은 한 번 왔던 사람이 여러 번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얼굴만 보고 끝나는 인연은 드물었다. 그것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소통하는 시간이 의미 있었다.

2) 자기 평가

적응하는 기간을 너무 길게 끌었던 탓인지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던 것 같다. 남은 2주는 최대한 많은 걸 얻어보고자 기회가 있다면 잡았다. 평소에는 도터지굴에만 있었지만 도고상사에 가서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수다를 떨며 스몰토크도 했다. 도고에서의 3주가 끝나가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퇴근 후 일정을 모두 참여했다. 음식을 먹으며 축구 경기를 같이 보기도 하고 밴드 연습 구경하기도 하고. 송별회를 할 때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무빙을 가는 목적이 이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오는 것이었는데 그것 이상의 경험을 한 것 같아 매우 만족스러운 3주였다. 다음에 도고에 가게 된다면 프로그램 참가자로도 가보고 싶고 직접 기획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빨리 적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 시간만 단축되었다면 훨씬 도고에 빠져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적응을 하니 마음의 여유가 생겨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도 쉽게 말을 걸 수 있었다. 잊고 있던 친화력이 돌아온 듯하고 무빙 가기 전의 고민이었던 낮가림 완화도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만약 낮가림이 고민인 후배들에게 청년 마을을 추천해주고 싶다.

3) 총평

내가 학교를 다닌 지 벌써 5년째가 되는 해다. 입학한 후 매년 똑같은 일상, 똑같은 환경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던 터라 이 과정이 매우 의미가 있었다. 직접 '사회'라는 새로운 것에 다가가는 것이 처음이었고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한다는 것도 어려웠다.

개인무빙을 준비하는 것부터 3주 동안 현장실습을 하면서 눈으로 본 것들, 사람들을 만나며 나눴던 얘기들 모두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이었다.

1주차는 솔직히 시간만 보냈다.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간에 나 혼자 지내는 것, 여긴 학교처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배움을 찾아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 잘 챙겨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다. 낮가림도 심하고 수줍음도 많은 성격이라 천억덕하게 말을 걸며 친해질 수 없었다. 용기가 부족했던 거 같다. 개인무빙을 가는 것이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였다. 평소 걱정만 하던 것을 몸소 겪으니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긴장 상태여서 나에게 말을 걸면 대답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답했다. 솔직히 좀 힘들었다. 할 것도 없었고 시간만 보내는 느낌이어서. 하루에 20마디 이상 말한 적이 없던 거 같다. 그렇게 어색한 첫 주를 보냈다.

일주일이 지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온어스 조합원들과도 불편하지 않았고 나를 정말 잘 챙겨주시고 배려해주는 느낌이 많이 들어 감사했다.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등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말도 잘 걸어주셨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지나니까 '낯선 사람'에게만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도 열렸다. 내가 이 사람들을 낯선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외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었다.

화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지역 살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며 경험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대화가 잘 통했다. 이것을 통해 잊고 지내던 새로운 사람들에게 말 거는 법, 불임성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첫 주와는 다르게 이곳에 스며들고 있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곳의 자연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다. 첫 주차와는 다르게 일정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있어서 바쁘게 지냈다. 남은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한 주를 보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냈는지 벌써 마지막 3주를 달리며 끝이 났다. 이 주는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3주 동안 내가 도고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며 집에 갈 준비를 했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긴 했지만 이곳이 너무 좋은 곳이라 '격하게 집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여러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신 낙원대표님, 3주 동안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경희님, 취향살이 일상편의 길잡이로 함께 했던 유정대표님, 따듯한 목소리로 인사해 주시던 진배이사님, 늘 웃으면서 말 걸어주셨던 중호대표님, 모든 말에 공감을 잘 해주시던 민지대표님, 정말 착하셨던 다정대표님, 나를 정말 귀여워 해주셨던 석현대표님, 그냥 너무 고마운 윤지님까지 감사한 사람 투성이다.

움직이는 학교를 준비하고 마치는 과정을 완료한 후 무빙을 가기 전 내가 나에게 던졌던 ‘간디에서의 배움을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간디에서 배울 것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난 4년 동안의 배움을 새기고 나의 삶과 이어지도록 이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흘려보낸 배움도 많겠지만 현재와 앞으로의 배움은 소중하게 간직할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해줬던 따듯한 조언들을 힘들 때마다 꺼내보며 용기를 내보고자 한다. 학교라는 태양계에서 사회라는 우리 은하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첫 시도를 온어스에서 하게 되어 미지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내가 이곳에 지내면서 좋은 영향이 되었길 바란다.

8. 결산

- 학교 지원금 200,000

구분	내역	금액	비고
전체비용	식비	-130,000	아침, 저녁 (점심 제공)
	그 외 (간식, 교통비 등)	-55,000	숙소 제공
합계		-185,000	

최규민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



1. 움직이는 학교 현장 소개

1) 단체 소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994년도에 문규현 신부, 홍근수 목사가 함께 창립하였고, 평통사의 5대 가치와 지향인 ‘자주, 평화, 통일, 비핵, 군축’에 따라 다방면적인 방법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5대 가치와 지향의 내용은 이렇다.

-**자주**- 한미간의 각종 불평등한 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이루어 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든다.

-**평화**- 전쟁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를 국제법적으로 보장하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펼치고, 군사동맹이 아닌 평화협력체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실현한다.

-**통일**- 강대국의 간섭과 남북의 적대를 강요하는 분단을 끝내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7.4 남북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9.19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이행한다.

-**비핵**- 핵무기없는 한반도를 위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주한미군, 핵우산)과 함께 북의 핵무기도 폐기함으로써 일본의 핵무장을 막고,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 핵강국들의 핵무기도 뒤로 물림으로써 동북아의 비핵지대화를 실현한다.

-**군축**- 무기대신 복지를! 과도한 국방비를 삭감하고 불필요한 공격무기 도입을 반대하며, 공격적인 훈련을 반대하고 대규모 병력을 감축한다.

또한 평통사는 지역마다 지부가 있는 단체이다. 모든 행사를 기획, 진행, 기록하고 각 지역 평통사를 통솔하는 중앙평통사, 이에 따라 활동하고 지원하는 광주평통사, 군산평통사, 나주평통사, 논산평통사, 대구평통사, 목포평통사, 보령평통사, 부산평통사, 부천평통사, 서울평통사, 순천평통사, 익산평통사, 인천평통사, 전주평통사, 해남평통사가 있다. 회원 수는 약 3300여명이다.

나는 이 중 총책임 지부인 ‘중앙평통사’로 개인무빙을 갔다.

2) 주요 활동

2002년 억울하게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효순이 미선이 등 미군에 의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평화공원 조성추진과 함께 2020년 6월 13일 완공

제주 강정마을, 평택, 파주 무건리, 군산, 성주 소성리 등 아름다운 우리땅에 들어서 있는 미군기지를 폐쇄하는 시위, 성명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 선언과 북과 미국의 정상이 합의한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 성명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에 의한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전개 및 2023년 6월 7일 국제 민중법정을 위한 1차 국제토론회 개최 등

3) 정보

상임대표 : 문규현

주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2층

전화 : 02-711-7292

2. 움직이는 학교 현장 선택 과정과 이유

1) 진로 탐색 과정에서의 의미, 본인 성장 과정에서의 의미

개인무빙으로 평통사를 가게 되었지만, 평통사와 관련한 진로를 구상하고 있지는 않다. 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에 관련 없는 분야로 가서 독특하고, 색다른 경험을 이루어내고 싶었다.

이러한 기준점 속에서 ‘평통사’를 선택한 이유는, 사회단체에서 우리 간디학교의 모습이 보여 독특해 보였기 때문이다. 간디학교라는 대안학교 특성상 기존 공교육에 반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 만든 교과 과정을 선보인다. 평통사 또한 이와 비슷한 양상을 이룬다.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와 같은 평화를 이루지 못할 정책들에 반하여 새로운 대안을 외친다는 부분이 간디학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나에게 친근한 간디학교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단체를 탐구하고 싶은 호기심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특성상 많은 사람의 교류가 오가고 이에 따라 생각, 의견, 신념들이 오가는 상황이 빈번하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여러 사람의 생각과 신념 등을 탐구하고, 알아가고 싶었다. 또한 이러한 목적 외에도 한국 사회와 관련해서 경험을 얻고자 했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 관한 경험과 내가 탐구하고 싶은 것들을 탐구하며 얻은 경험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을 성장시키고자 했다.

2) 현장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시대적 가치

평통사는 1994년도에 창립되어 창립 초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꾸준히 활동한 단체이다. 이에 따라, 목적을 이룬 활동들이 많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평화통일 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되었고 평화통일 연구에 관해 지식과 전문성이 뛰어나다. 사회적 가치에 관해서는 이들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28년 동안 쌓인 평화통일 연구의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평화에 대한 대안을 대중에게 전달한다. 이렇듯 평화통일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화인식을 심어주며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가 다시금 번지지 않도록 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3. 움직이는 학교 목표와 계획

1) 움직이는 학교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

위와 같이 한국 사회에 관한 경험을 얻고 탐구하고 싶은 것들을 탐구하며 얻은 경험을 통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2) 단체와 협의된 업무

중앙평통사와 자세히 협의되었었던 업무는 없었다. 하지만 개인무빙 중 가장 큰 행사 두 가지인 한국 원폭 피해자 민중 법정과 효순, 미선 21주기 추모제에 행사진행위원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해주었다.

4. 움직이는 학교 진행과정

1) 출·퇴근 시간

출근: 10:30 퇴근: 18:30

- 토요일, 일요일 제외 모두 출근
- 행사 특성에 따라 출퇴근 변동이 있었음

2) 맡은 업무

(1) 업무, 근무 기록

5월 29일 월	10:30 인턴 활동 소개 11:00 평통사 생활 오티 12:00 평통사 20주년 책자 13:00 점심/휴식 14:30 민중법정 소개 글 읽기 17:00 민중법정 소개(이기훈) 16:00 환영 인사시간 16:30 구술채록 업무 17:30 인턴일지작성 18:00 하루 피드백 18:30 퇴근
5월 30일 화	10:30 20주년 책자 독서 11:00 청소 11:30 민중법정 인원 정리 12:30 20주년 책자 독서 13:00 식사 14:30 청년프로그램 기획 5:00 국제인도법 글 읽기 16:00 국제인도법 강의 청강 17:00 구술채록 18:00 활동일지 18:20 종례
5월 31일 수	10:20 평통사 20주년 책자 11:30 효순미션 자료 읽기 13:00 점심&산책 14:30 민중법정 실무 15:30 효순미션 강의 16:30 구술채록 18:30 종례 후 퇴근
6월 1일 목	10:30 민중법정 실무 11:30 20주년 책자 12:00 구술채록 13:00 점심&산책 14:30 철도노조 물건 가져오기 16:00 구술채록 18:00 하루일지 작성

	18:30 퇴근
6월 2일 금	10:10 구술채록 12:30 민중법정 이름표 제작 13:00 점심&산책 14:30 민중법정 이름표 제작 16:00 민중법정 배너 프린트 17:00 민중법정 이름표 제작 & 민중법정 관련 배너 제작 18:30 퇴근
6월 5일 월	10:30 민중법정 종이꽃 만들기, 13:00 점심, 14:30 민중법정 별지 프린트, 18:30 퇴근
6월 6일 화	민중법정 되짚어보기 OX 퀴즈쇼 진행 민중법정토론회 세팅(현수막, 책상, 짐 정리)
6월 7일 수	민중법정 진행팀 업무 뒷정리
6월 8일 목	외빈, 평통사 분들과 해인사 탐방 합천원폭피해자 간담회 세팅
6월 9일 금	휴식
6월 12일 월	10:15 일정 논의 10:30 효순미션 불꽃제작 11:30 효순미션 짐챙기기 12:30 구술채록 녹취 정리 13:00 점심/우편업무 14:30 구술채록 녹취 정리 15:00 반송 회지정리 17:30 차량 짐 정리 18:00 일지작성 18:30 퇴근
6월 13일 화	효순, 미션 21주기 추모제 준비, 뒷정리
6월 14일 수	10:25 확장억제 정책 폐기 1인 시위 13:00 점심 14:30 사드 소책자 읽기, 16:00 사드 강의 17:00 구술채록 18:00 활동일지 작성 18:30 퇴근
6월 15일 목	10:30 청소 11:00 반송 회지정리 11:30 회지 글쓰기 13:00 점심 14:30 회지 글쓰기 15:00 사드 심화편 자료읽기 16:00 사드 심화편 강의 17:00 회지 글쓰기

	18:00 하루일지 18:30 퇴근
6월 16일 금	휴식
6월 19일 월	11:00 구술채록 기록서 양식 만들기 13:00 점심 14:30 활동일지 작성 15:20 소성리 출발
6월 20일 화	6:30 성주 소성리 사드 집회 참여 7:30 아침 8:30 소성리 탐방 10:00 숙소 짐 정리 12:00 점심&귀가
6월 21일 수	10:40 20주년 책자 검토 11:00 20일 일지 쓰기 11:20 철도노조 기물 반납 12:30 20일 일지쓰기 13:00 점심 14:30 평통사 청년, 청소년 여름 캠프 놀거리 알아보기 15:00 이정상 선생님과 면담 15:30 황윤미 대표님 인터뷰 16:00 구술채록 18:00 활동일지 작성
6월 22일 목	10:30 토론회 주제 2 녹취풀기 13:00 점심&인터뷰 14:30 토론회 녹취 풀기 18:00 활동일지 작성 18:30 퇴근
6월 23일 금	10:30 개인정보 문서 파쇄 11:30 평통사 30년 미리보기 12:30 점심 13:00 문화의 날(청년 활동가님들과 놀고 저녁먹기)

(2) 일반 업무

구술채록 -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 중 한국인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중 히로시마 피폭자이신 이기열 선생님의 1시간 반 분량의 인터뷰 녹취를 풀어내었다. 구술채록 과정은 음원 파일을 클로바노트로 한글 문서로 변환 후 기존 음원 파일을 들으며 AI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들을 고쳐내었다. 가장 꾸준히 진행한 업무였다.

1. 기본 사항		
성명		
성별		
직업		
주요 관심사		
주요 관심사	주요 관심사	
주요 관심사	주요 관심사	
주요 관심사	주요 관심사	
주요 관심사		
주요 관심사		
주요 관심사		
주요 관심사		

구분	세종	산하청	지방4회	
		지방4회	지방4회	지방4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A photograph of a cluttered desk. On the left, there is a large stack of yellowed, aged papers. In the center, a blue folder or binder is visible. To the right, there are more stacks of papers, some of which appear to be old documents or photographs. A small blue object, possibly a pen or a small container, is on the desk surface. The overall scene suggests a workspace with a lot of old or unused materials.

- 135 -

저는 고등학교의 인턴십 참여 프로그램으로 시민단체인 평통사에서 5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 인턴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합천 청(소)년 평화캠프에 학내 통일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참여한 것이 인연이 되어 평통사 인턴으로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턴으로 평통사에 온 기간은 평통사 행사들이 연달아 진행되는 아주 바쁜 시기였습니다. 이에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업무나 학습뿐만 아니라 행사를 함께 준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인턴으로 활동한 지난 3주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지난 6월 7일~8일 합천 인근에서 진행되었던 원폭국제 민주법정 1차 토론회 준비를 함께했습니다. 청년 활동가에게 원폭민주법정에서 다뤄질 내용에 대한 사전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 전날 청년들과 함께 할 OX퀴즈를 기획하고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필요한 평화의 꽃을 만들고, 참가자들의 이름표를 제작하는 사전 준비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토론회 전날과 당일에는 진행 팀으로 소속되어 토론회를 위한 세팅을 맡았고, 일정이 모두 끝난 후 평통사 활동가들과 뒷정리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지 마자 다음으로 2002년 미군 장갑차량에 희생된 신효순, 심미선을 기억하고 추모 21주기 추모제의 스텝으로 참가했습니다. 토론회 전날 당일 참가자들이 함께 들 상징 촛불 만들기를 진행하고, 추모제 당일인 6월 13일, 효순미선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추모 행사 준비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활동으로는 평통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거꾸로 읽는 한국사’, ‘평통사 20년의 기록과 전망’이라는 책자를 읽으며 ‘자주, 평화, 통일, 비핵, 군축’이라는 평통사의 창립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원폭피해자이신 이기열 선생님의 구술채록 인터뷰의 녹취를 풀고 기록하는 일이나,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반도의 핵무기 위협 격화가 이루어지게 될 확장억제 강화, 핵 협의그룹, 한미일 군사 동맹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1인시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평통사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통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인턴생활을 상상해보았을 때 기자회견이나, 시위를 많이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활동하면서 평통사는 시위만 하는 단편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것과 시위 또한 평통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하나의 실천 방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행사, 활동이라도 수많은 소소한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야 성과 있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왔던 작은 활동들이 평통사의 행사와 활동에 한 부분이 되었고, 성공적으로 행사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얻듯이 이번에 참여했던 큰 행사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세세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는 평통사였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인턴십을 갔다면 ‘이렇게 큰 행사들을 마주할 기회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즉, 평통사로 인턴십은 나에게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되찾았던 기회이자,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소중한 경험을 이끌어 주신 평통사 활동가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평통사의 인턴십 제안이 없었다면, 이 소중한 경험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편안하게 대해주고 챙겨주신 덕분에 즐거운 인턴 생활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확장억제 정책 폐기 1인 시위 -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방한함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내용을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도 하고 본인도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평통사 확장억제'라고 검색하면 나온다. 나에게는 낯선 활동이었기에 평통사 활동가 한 분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림 136 1인 시위의 모습>

평통사 청년, 청소년 여름 캠프 놀거리 알아보기 - 이번 연도 7월 22, 23, 24에 평통사에서 개최하는 청년, 청소년 여름 캠프 때 놀 만한 장소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았다.

우편 업무 - 가끔 점심시간에 활동가님 한 분과 함께 각종 소포를 우체국에 부쳤다.

인턴일지 작성 - 개인무빙 일지와는 별개로, 평통사에서 기록하는 인턴일지를 매일 퇴근 전에 작성하였다.

(3) 주요 업무

<민중법정> 1945년 미국의 원폭투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원폭피해자를 원고로하여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 국제 민중법정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의 과정은 1차부터 4차까지 존재하는데, 1차부터 3차는 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더 수준 높은 발의를 위해 시민들과 토론회를 거친다. 4차는 미국에서 민간법정을 여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연도 6월 7일 제1차 민중법정 국제토론회를 경북 성주에서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본인도 평통사와 함께 행사 준비와 행사 당일 업무들을 맡았다.

민중법정 인원 정리 - 이번 국제토론회의 참가하는 모든 시민들의 인원을 파악하고, 한글 파일을 사용해 이름순으로 정리하였다.

민중법정 이름표 제작 - 이름순으로 정리한 참가자 표를 활동가님이 넘겨주신 이름표 양식에 맞게 수정하고, 이름표를 프린트한 다음, 목걸이 명패에 맞게끔 오려내었다. 약 170명 정도의 분량이였다.

민중법정 배너 프린트 및 제작 - 민중법정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의 탁상에 올려둘 종이 명패와 설명을 프린트하고 남는 부분을 오려낸 뒤 명패는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제작하였다.

민중법정 종이꽃 만들기 - 민중법정 소품인 평화의 종이꽃을 만들었다. 종이를 꽃모양으로 오리고 종이에 평화 관련 글귀(핵 없는 세상 실현하자 등)를 적은 다음 철사에 붙이는 작업을 거쳤다. 150개 정도 제작했다.

민중법정 별지 프린트 - 토론자 중 정태욱 교수의 토론문이 누락된 것이 있어 따로 43페이지 짜리 별지 150부를 프린트하였다. 복사기를 2대나 같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다.

민중법정 되짚어보기 OX 퀴즈쇼 진행 - 민중법정 토론회 하루 전 모인 청년회원들에게 민중법정 배경지식 되짚어보기 OX 퀴즈쇼를 진행하였다. 진행방식은 며칠 전 완성한 OX 퀴즈쇼 피피티를 넘기면서 청년회원들에게 손 모양으로 OX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정답이 나온 뒤 정답의 설명은 모두 함께 읽었다.

민중법정 진행팀 업무 -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파트마다 발제자, 토론자들의 수에 맞추어 물컵, 의자, 탁상 등을 세팅하고 조명 또한 조절하였다.

민중법정 토론회장 세팅 및 정리 - 마치 예식장 같은 분위기의 기존 토론회장을 민중법정 토론회 관련 현수막과, 배너들로 장식하여 토론회장의 분위기로 바꾸었다. 또한 일본, 미국 등의 외국인들이 참석했기에 통역기 또한 지급되었는데, 이를 배급하고 다시 반납하였다. 이후 토론회가 모두 끝난 후, 세팅된 것들을 약 1시간 동안 정리하였다.



<그림 137 OX퀴즈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그림 138 토론 중인 모습>



<그림 139 토론 중인 모습>



<그림 140 토론 후 단체 사진>

<효순, 미선 21주기 추모제> 2002년 미군 브래들리 장갑차량의 불법 교차 통행으로 인하여 압사당한 신효순(14) 심미선(14)을 기리며 미군에게 책임과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를 외치는 행사이다. 추모제는 매년 2020년에 완공된 양주시 효순 미선 평화공원에서 진행된다.

효순미선 불꽃제작 - 추모제 소품인 평화의 불씨를 제작하였다. 제작과정은 민중법정 토론회 평화의 꽃과 같다.

효순미선 추모제 세팅 및 뒷정리 - 이전 토론회와 같이 배너와 현수막을 세팅하였다. 이후 이를 정리하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활동가님들과 함께 배급하였다.



<그림 141 현수막 거치 1>



<그림 142 현수막 거치 2>



<그림 143 행사 후 정리>



<그림 144 추모제의 모습>



<그림 145 추모제의 모습>

<성주 소성리 사드 집회> 2017년 4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성주 골프장을 주한 미군 기지로 용도 변경하여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었다. 이후 2023년 현재까지 소성리에서는 장비 추가 반입 저지 및 사드 배치 철회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사드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 특성상 북한,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탐색할 수 있는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어 북한, 중국의 타격 1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드는 한국 지형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요격 효용성이 없는 무기라는 연구가 있기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좀 더 세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검색해보길 바란다.

사드 집회 참여 - 매주 월~금 6:30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소성리 사드 집회 중 화요일 집회에 활동가님 한 분과 동행하여 참가하였다. 새벽 집회가 2017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을 보아 집회의 순서가 자리잡힌 모습을 보였다. 집회의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드 기지로 가는 도로 위에 자리를 잡고, 각 종교의 종사자들이 나와 연설 후 경찰이 도로에서 나오라는 경고를 한 뒤 이에 불응 시에는 모두를 도로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의로 나가거나 순진하게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림 146 사드 집회의 모습>



<그림 147 사드 집회의 모습>



<그림 148 사드 집회의 모습>

2) 인터뷰

서울평통사 대표이자 중앙운영위원이신 황윤미 님과 중앙평통사 활동가이시고 산마을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이기은 님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황윤미 서울 평통사 대표님 인터뷰>

Q.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평통사 평통사가 나름 전국 조직이에요.
이제 서울 지역, 서울 지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황윤미라고 합니다.

Q.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평통사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의 평화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대단하게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평통사를 지향하는 그런 일을 실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Q.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그냥 평통사로 딱 왔다기보다는, 조금 과정을 설명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는 우리 사회가 군부 독재 시절이었거든요. 대학교에 왔을 때 어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나 모순에 대해서 눈을 뜬 대학생들이 그런 독재 군부 독재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가 분단됐고 분단된 모순 속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오다가 평택 미군기지문제라던가 효순이 미선 사건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불평등하다. 그리고 남북 분단에도 미국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이 이어지다가 2003년에 그런 평화 통일 활동들을 하던 그런 단체들이 서로 이렇게 통합을 했거든요. 이 통합한 조직이 평통사예요. 그래서 평통사에 내가 가입했다. 라는 느낌보다는 같이 이렇게 활동하던 단체들 모두가 평통사를 하게 된 거죠.

Q.지금까지 어떠한 활동을 이루었나?

평통사라는 조직에서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얼마 전에 가봤을 텐데 효순, 미선 평화공원을 만들었던 거, 정말 우리 회원분들 모두가 그냥 돈만 내신 분도 있지만, 그냥 땅 파신 분들도 있고, 그림 그리신 분들도 있고, 잡초 뽑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 평통사라는 조직의 조직력으로 평화공원을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큰 한 페이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매항리 미군 폭격장을 폐쇄하는 활동이었는데, 워낙 그 소음이 커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나 또 동물들이 유산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발 사고, 오발탄 이런 사고들도 있고 그 매항리 폭격장을 폐쇄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었고

또 평택 미군기지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실천하면서, 미군은 2006년 2007년쯤에는 거기에 기지를 완공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늦어졌죠. 그래서 2019년에야 미군기지가 완성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제주 해군기지. 결국 해군기지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제주 해군기지 같은 문제도 굉장히 이제 미군의 핵 항공모함, 잠수함 같은 게 기항하기 위해서 거기에 만든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알려내는데, 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거는 이런 활동 들은 이루었다기보다는 이제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계속 진행해가는 그런 활동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2002년 효순 미선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효순, 미선 평화공원을 완공했듯이, 그 옆에 효순 미선 기록관 건립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Q.평통사에서 활동하며 어려웠던 것이 있었나?

어려웠던 일은 늘 많이 있어요. 다들 너무 다 바쁘잖아요. 우리 회원들도 굉장히 다 바쁘거든. 청년 회원도 그렇고 일반 회원들도 그렇고 자기 직장도 다니지, 개인적인 취미 활동도 해야 하지. 또 그러면서 그런 시간 들을 쪼개면서 자기 시간이나 돈을 내는 거니까 다들 이제 그런 바쁜 와중에 자꾸 이제 평통사 일을 같이하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적극적으로 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워하고 이제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득하면서 같이하자.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조직 활동인데, 그런 조직 활동은 평통사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매우 쉽지 않고 사실 어려운 거예요. 조직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깨쳐 나가면서 할 때 어떤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조직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늘 있다.

Q.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깨우치거나 얻은 것들이 있다면?

‘인생의 요행은 없다.’ 가끔 100만 분의 1, 천만 분의 1 정도로 로또를 맞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외의 999%는 다 자기가 이루려고, 노력하고, 또 고민하고, 그 속에서 실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하는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활동들은 그야말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여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정말 노력하고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깨우친 것 같아요.

Q.평통사 인턴을 하는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평통사 회원들과 평통사는 지극히 밀도 높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우선 그렇게 느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운영진에서 봤을 때는, 이 조직력의 밀도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훨씬 더 커져야 해요. 그래야 정말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평통사 활동 중 곧 하게 되는 7월 22일 ‘평화홀씨마당’에 모이는 회원들 수가 한 사, 오백 명 정도인데, 10%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다른 단체와 비교하면 10% 정도 활동하는 회원이 있다는 건 대단하다. 이렇게들 얘기는 해요. 다른 단체들은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직력이 좀 있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조직력이 더 향상돼야 하는데. 이 밑바탕이 되는 건 결국은 학습과 실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내용에 관해서 공부하고, 그 공부에서 느낀 것만큼 실천하고, 그럼 실천한 거에 대해서 또다시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어 오면서,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 같아요.

Q.사회적 가치 지향 시민단체라는 특성을 가진 평통사로서 활동에 대한 제약이나, 불이익이 존재하는가?

2012년이었나 평통사 실무자 9명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다 무죄를 받았어요. 우리의 활동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바는 북한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이적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법률 용어로는 적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북한은 적이야. 그리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검찰이 기소했는데, 우리는 북을 이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의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평화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나? 라는 연구목적 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재판부에 여러 근거를 갖고 설명을 했고, 재판부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렇게 좋게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런 과정 이전에 이 검찰들이 검찰이 공안 검찰이거든요. 그 공안 검찰들이 보았을 때 약간 거슬리는 단체 같으면 방해와 탄압을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정권에 성향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만 2012년처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근거 없이 활동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Q.그 반대로, 사회적 가치 지향 시민단체라는 특성을 가졌기에 활동에 대한 이익이 존재하는가?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게 최대 이익이죠. 우리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회원들이 우리 내 활동이 의미가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소성리 갔다왔잖아요. 그런데 그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되기 수년 전부터 우리 회원들은 사드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근데 사드 공부가 어려워요. MD 미사일 방어체계 미국의 군사 전략까지 알아야 하니까 내용도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무기에 대한 거니까 더욱 어렵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어려운데 그 공부를 하면서 평통사의 주장들이 실제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회원들이 보기에는 실제 그게 막 배치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평통사의 주장이 옳았고 거기에 내가 함께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회원들이 자기 활동에 대한 보람이나 가치와 긍정성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양분이 돼서 더 실천으로 오고 조직 활동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Q.앞으로 평통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는가?

일단 영향력을 가지려면 쪽수가 많아야 해요.

현재 회원은 3천 명인데 한 3만 명쯤 되면 좋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 우리가

2003년에 아까 재창립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300명이 채 안 됐었어요. 재창립 이후로 우리가 3천 명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규모의 단체가 되면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냥 자체적으로 평통사 자체를 살찌우려는 그런 말이라기보다 평화통일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려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Q.하고 싶은 말씀

국민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나 뭘 하면서 살까,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할 텐데, 한참 할 나이고. 그럴 때 이런 평통사에서의 경험들이 하나의 고민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 친구들과하고도 고민을 같이해보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좀 가치 있는 삶이 어떤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이기은 중앙평통사 활동가 인터뷰>

Q.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통사 활동가인 이기은입니다. 활동한 지는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Q.요즘 많이 듣거나, 좋아하는 곡 하나만 뽑아보자면?

곡이요? 저는 요즘 일본 노래를 너무 많이 듣는데요.

회화 공부를 해서 2차 국제토론회 때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써보고자, 일본어 노래를 많이 공부하려고. 그래서 일본어 노래 중에 제일 요즘 좋아하는 노래는~ 저는 시티팝 풍의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stay with me'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Q.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저는 나, 개인의 뭔가 안온한 삶을 위한 것보다, 타인을 위한 혹은 이 사회 전체에 이로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친구가 “다시 태어나면 활동가가 아니라면 무슨 직업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 봤을 때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은 의사였어. 내가 그때 의사에 많이 꿈꿨고 지금도 꿈꿔 있지만,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과 삶의 균형(일과 삶의 균형)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내 인생에서 일과 삶의 균형은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더라고. 그것보다도 이 짧다면 아주 짧은 인생이 다른 사람한테도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되게 그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나의 활동이랑 삶의 균형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남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Q.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저의 계기는 고3 때 학교 선생님이 평통사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3 딱 끝나고 약간 졸업식 하기 전에 틈이 있는데, 그 틈에 선생님을 통해 합천 기행을 가자는 계획이 세워져서 산 마을 친구들 9명 정도의 규모로 이제 합천이랑 소성리를 같이 갔단 말이야. 그때 느낀 게 되게 많았고, 그때 평통사를 처음 알게 됐지. 그리고 기행을 가기 전에 2회차 정도의 사전 학습을 하고 갔어. 그러고서는 뭔가 평화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일상의 평화를 많이 생각하지만, 내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디인가는 전쟁터여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소성리에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해야 하는 목표인 거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평화는 오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학을 가게 됐고 대학 생활하면서 평통사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죠. 4년 정도가 그 과정에 있었고, 그러고서는 졸업할 시점에 많은 고민이 있었어. 당연히 그런 제안이 왔을

거 아니야. 난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대학원에 갈까, 아니면 평통사 활동가를 할까. 이 두 가지를 고민했는데, 그때 고영대 대표님이랑도 면담하고, 느껴졌겠어. 그러다 고 대표님이 내가 가진 부분은 여기 있는 청년 상근자들이 못 채우고, 반대로 청년 상근자들이 가진 걸 내가 못 채운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이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평통사에 있어서 내가 필요하고 반대로 너에게도 평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셨지.

이후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됐지. 평통사의 상근자로 활동을 해야겠다. 그런데 대학 생활 동안에 4년 동안 내가 열심히 활동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실제로 취업을 고민했을 때는 이 4년간의 내가 열심히 활동했던 게, 마치 무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나를 긍정하고 내가 해왔던 활동들을 하자. 라는 생각으로 활동가가 최적의 선택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 5, 6년 정도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Q.지금까지 어떠한 활동을 이루었나?

저 혼자만의 활동이라고 할 수는 절대 없겠죠. 우리 평통사가 이루어놓은 활동인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저도 일정의 역할을 하면서 활동을 해왔던 건데, 주로는 청소년 캠프를 제가 제안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쭉 체계가 잡혀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여름 캠프도 해보자~ 라고 해서 캠프를 그렇게 대규모로 하게 된 거고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 왔었죠. 그리고 이제 주로 저는 청년 청소년들과 교류를 많이 하고, 그 외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민중 법정 토론회에서 토론회 준비를 내용적 준비나 실무적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기훈 오빠, 나, 하영 언니, 집행위원장님, 고 대표님. 이렇게 5명에서 계속 내용적인 부분을 토론회 왔거든. 그렇게 역할을 맡고 있고 뭔가 나는 내 연차에 안 맞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의미가 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Q.평통사에서 활동하며 어려웠던 것이 있었나?

내 한계에 부딪힌다. 라고 느꼈던 때는 이번 토론회 때였던 것 같아. 그때는 신경 쓸 것도 많았고, 평통사에 입사한 후 첫 활동이었지. 근데 실무적인 부분을 내가 중심으로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지. 왜냐하면 도와주기로 했던 활동가분이 다리를 갑자기 깎스하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렇게 온전히 모든 부분을 다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토론회 준비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민중 법정 실무를 잘 해내면서, 그게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토론회를 잘했으니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사실 나는 평통사 활동이 제일 힘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 평통사의 활동이라는 게 대중을 위한, 대중 중심적인 활동들인데.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어떠한 그런 경제적 이익을 바라고 접근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 사회운동 속에 함께 하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변화시켜줘야 하는 과정도 필요해.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교육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하고 이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해.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어렵지.

Q.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깨우치거나 얻은 것들이 있다면?

대학 때 4년 정도 평통사 회원 활동을 해왔다고 했잖아. 상근자로서는 1년 6개월 된 거잖아. 4년 평통사 회원 활동 및 인턴 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과 내가 1년 상근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뭐가 가장 양적으로 느낀 게 많은지 비교를 하면, 1년 상근 활동이 훨씬 더 양이 많아. 그러니까, 상근자로서 주어진 기대되는 요건들이 더 많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속에서 뭔가 진짜 많은 걸 느끼는데, 뭔가 이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걸 뭔가 많이 느꼈다랄까? 그리고 나의 변화라는 게 얼마나 진짜 중요하고 상근자로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 역량인지를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뭔가 그런 거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런 거야. 나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되게 많이 해. 하지만 한편에서는 긍정적이면서도 한편에서는 약점이 되기도 해. 왜냐면 그런 기대를 많이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태도가 나오기도 하면서도 이에 상처를 받는 것을 쉽게 털어내는 것을 훈련받는다고 생각해.

Q.평통사 인턴을 하는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평통사 회원들과 평통사는 지극히 밀도 높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평통사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된 단체야. 그래도 내년이면 30년인데 그만큼의 이제 세월을 견뎌낸 평화 통일 단체가 별로 없지. 세월을 견뎌낸 만큼 튼튼한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직력이 높은 것은 이를 끌어내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상근자의 헌신성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어. 이외에도 원점에서 벗어나 다른 정체성으로 막 끌고 가서 해산되는 예도 있어요. 평통사 안에서도.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 이걸 조직력으로 높여내기 위해서 정말 선배 상근자들이나, 지역 상근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를 보면 나도 되게 반성하게 돼. 이 상근자들이 회원들의 기둥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한 조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Q.사회적 가치지향 시민단체라는 특성을 가진 평통사로서 활동에 대한 제약이나, 불이익이 존재하는가?

불이익을 당한다. 라는 생각은 한 번도 없었고 근데 뭐 그런 건 있지. 우리가 이제 4대 보험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Q.그 반대로, 사회적 가치지향 시민단체라는 특성을 가졌기에 활동에 대한 이익이 존재하는가?

내가 말하는 거는, 다른 시민단체보다는 평통사에 한정된 것 이긴 한데 전에 얘기했던,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기도 하고. 상근자들의 근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근무를 계획해 나가는데 있어서 되게 능동적인 거지. 그런 점은 되게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되는 특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Q.앞으로 평통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는가?

저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냐면, 구체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개최한 국제토론회를 봐도 알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어느 시민단체도 우리 평통사만큼의 내용을 끌어내지 못할 거라고 봐. 우리에게서 이를 이룰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거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제네바 군축 회담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네바에서 열리는 건데, 많은 시민단체가 이 세계 군축에 대해서 회의하는 회의하기도 하고. 정부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축 회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평통사가 연설도 하고, 이렇게 한반도 평화는 이렇게 가능하다. 주장하면서 우리가 평화학을 정립하기로 했던 말이야.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영향력 있는 단체로 발전하면 좋겠다.

Q.하고 싶은 말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수고했어~

5. 움직이는 학교 평가

1) 단체평가

거의 모든 것이 처음인지라 서툴렀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활동가들

께서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 매주 2~30대 청년 활동가들께서 돌아가며 사수를 해주셨고,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 동안 산책도 함께 즐기며 맛있는 음료들도 사주셨다. 또한 업무 도중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날카롭게 지적하시지 않고, 온정 있게 틀린 부분을 설명해 주셨다.

개인무빙을 통해 평통사에 있는 동안,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배경지식을 모두 강의로 설명해 주셨다. 이러한 활동가님들의 노력 덕분에 가지각색의 다양한 경험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에 만족한다.

하지만 근본 목표였던 시민사회단체 특성상 많은 사람의 교류가 오가고 이에 따라 생각, 의견, 신념들이 오가는 상황이 빈번한 특성을 통해 여러 사람의 생각과 신념 등을 탐구하고, 알아가 사회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을 성장시킨다라는 목표는 제대로 이루지는 못한 것 같다. 객관적인 시선 성장을 이루고자 했다면 모든 성향과 여론의 사람들의 의견이 오가는 단체로 갔어야 했을 것 같다. 평통사는 객관적인 시선을 성장시키기에는 단편적인 부분이 있었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2) 자기평가

사실 개인무빙으로 평통사를 오게 되기까지의 가장 큰 작용은 통통통 회장으로서는 평통사와 교류를 위해 평통사 활동가님 중 한 분과 통화를 하던 중, 활동가님이 먼저 오라고 먼저 제안 해주셔서다. 본래 개인무빙 선택지에 평통사가 있긴 했지만 후 순위였다. 따라서 동급생 친구들과는 다르게 낙하산처럼 몹시 편하게 확정되었다.

이렇듯 쉽게 확정되어서인지 평통사에 대해서 조금 경시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개인무빙 동안 미지의 공간에서 무슨 일을 맡게 될지 기대와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의외로 이렇게 많은 일을 맡겨주실지는 전혀 몰랐다. 예상보다 촘촘하고 많은 업무량과 새로 공부해야 하는 관련 지식들이 많아 놀랐지만, 약 한 달 동안 평통사의 일부가 된 만큼 맡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업무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업무를 이행해왔다. 이렇게 개인무빙 중 맡았던 수 많은 업무들 속에서 작은 실수와 미숙함이 빠져나오긴 했다. 다시 생각해보고, 곱씹어볼수록 아쉬운 부분들이 생각난다. 하지만 이러한 어리숙함의 경험들이 차근차근 쌓이며, 실수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성장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래도 미숙한 부분들이 많았어도 맡은 업무를 모두 무사히 끝마쳤다는 것에 감사하다. 능률 수준이 눈뜨고도 못 봐줄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다.

평통사 근무 이외의 아쉬움은 자취의 부재에 아쉬움이 묻어났던 것 같다. 중앙평통사가 서울에 있는 점을 고려해, 돈 많이 드는 자취보다는 서울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개인무빙을 하기 이전, 나 혼자 생활하는 자취의 미학을 느껴보고 싶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혼자 살아가 본 적이 없는 것이 그 이유이고, 홀로 요리 해먹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등의 고독한 생활을 즐겨보고 싶었지만, 말했듯이 금전적으로 서울에서 자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포기하게 되었다. 내년 인턴십에는 지방으로 가 자취해보고 싶은 마음이다.

3) 이번 개인무빙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였나

(1) 개인이 아닌 단체라는 사회 속의 나비효과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라는 사회에서도 어떠한 행사, 활동이라도 수많은 소소

한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야 성과 있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해왔던 작은 활동들이 평통사의 행사와 활동에 한 부분이 되었고, 성공적으로 행사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얻듯이 이번에 참여했던 큰 행사들 또한, 수많은 사람의 정성과 세세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나비효과처럼 소소한 것들이 모여 큰 파장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2) 경험의 연속

평통사는 경험 제공에 있어서 뛰어난 단체였다고 생각한다. 모르는 사람들과의 협업, 정치적, 역사적, 군사적 등의 지식 들과 단체 대외 활동, 프로젝트 기획, 행사 준비 등 업무 파트에 정리해놓았듯이 상당수의 경험을 연속으로 접하게 해주었다.

(3) 새로운 발돋움을 위한 디딤돌

이번 개인무빙을 통해 얻은 세세하고 다채로운 경험들이 ‘나’라는 갤러리에 차곡차곡 저장되고 차후에 이용되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새로운 진로나 도전을 찾을 때 이번 개인무빙의 경험이 디딤돌이 되어줄 것 같다.

6. 결산

1) 결산표

구분	내역	금액	비고
전체 비용	교통비: 하루 2,700 X 18	48,600원	
개인부담		48,600원	학교 지원금 - 200,000
합계	+ 151,400		

2) 결산

점심은 평통사에서 제공하고, 아침저녁 식사와 취침은 할머니 댁에서 했기에 교통비만 부담하게 되었다. 청소년 지하철 요금은 1,350원인데 이를 출근 퇴근으로 하루에 2번씩 내게 되었다. 따라서 2,700원 X 근무일 18일을 계산하면 48,600원이 나온다. 또한 개인무빙 지원금 200,000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교통비 제외 151,400원이 남게 되었다.



Bobu-art
books & gifts



작은집건축학교

PUZZLE
Lab.



다시입다
연구소



충북 야생동물센터
The Wildlife Center of Chungbuk

신타
복

성미산학교



생강산 재미난 학교



onus
사회적협동조합

